

연구보고 2009-12

한국아동패널 2009

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영
김주연
김영원

육아정책연구소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 종단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인해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인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과학적이고 설명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육아정책의 데이터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육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에는 향후 다년간 추진될 장기종단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한국아동패널’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008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고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 2009년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 조사와 더불어 일부 패널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 수준의 대규모 표집에 의해 수합되는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는 개인 연구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조사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대회 및 논문공모사업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성공적 수행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본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신 패널 가족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협력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아동 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모범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아동패널은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 자료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나. 한국아동패널 개요

□ 전체 연구기간

- 2008~2020년(2015년까지 매년 조사 이후 2017년, 2020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모집단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이며, 표본은 2008년 4~7월에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2,078 신생아 가구임.

○ 조사유형 및 시기

- 일반조사: 기본조사로 0~7세까지 매년 1회, 9세와 12세 때 각각 1회 실시됨.
- 심층조사: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전체 연구기간 내 총 3회(아동이 만1.5세, 만4세, 초등 1학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조사 방법

- 일반조사: 아동 부모 또는 양육자 대상 구조화된 질문지와 아동발달검사
- 심층조사: 검사, 면접, 질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조사

□ 조사 내용

- 아동 특성: 개별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발달 특성
- 부모 특성: 부부간의 특성, 부모됨의 특성 및 양육 특성
- 가족 특성: 가족 내 역할 및 관계

-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육아지원기관과 개인대리양육서비스, 각종 학원, 선교원과 같은 유사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향후 이용계획
-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의 육아 관련 정책과 재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
- 육아지원정책 특성: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2. 1차년도 일반조사

□ 표본 구축 현황

- 층화 2단계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구축한 예비표본 2,562 가구 가운데 2008년 8월 25일~2009년 2월 말까지 최종 2,07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됨.
- CAPI 방식으로 조사한 표본 89.7%,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응답 표본이 10.3%임.

□ 가중치 부여

- 표본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와 사후층화 조정을 고려, 가중치를 산출함.

□ 1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 한국아동패널 개요에 제시된 대로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자료 처리 및 분석

- 일부 문항 후코딩 실시: 보육시설 관련 문항(설립유형 등), 부모의 직업형태 등
- 자료의 점검과 에디팅 실시: 문항 간 일관성, 응답 범위, 문항경로 등을 확인
- 1차년도 자료에 대한 기술분석 실시: 가중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문항에 따라 전체 분석결과와 더불어 취업모/비취업모, 혈연/비혈연으로 나누어 분석함.

3. 2차년도 일반조사

가. 2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 1차년도 일반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되, 임신 및 출산 관련 문항 등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문항들은 삭제하고, 아동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문항이 일부 추가됨.

- 아동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관련 문항을 보완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기관/시설 이용 계획 및 추가 출산 계획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음.
- K-ASQ 한국형 덴버 II, 기질과 기초생활습관의 척도문항을 연령에 맞게 수정함.

나. 2차년도 일반조사 방법

□ 설문조사

- 면접조사: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 어머니(주양육자) 대상으로 CAPI로 진행
- 우편설문조사: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앞서 어머니대상 질문지와 아버지대상 질문지를 우편발송한 후, 조사원이 가구 방문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방식 활용
- 가구원대상 질문지와 위탁가구 대상 질문지 문항은 면접조사용 질문지에 포함
- 거부가구대상 질문지는 자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2차년도에 실시하지 않음.

□ 검사

-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K-ASQ와 한국형 덴버II의 두 가지 발달검사가 실시됨.

다. 2차년도 일반조사 절차

□ 조사일정: 2009년 6월~10월(아동 생후 만 14개월 이후 시점부터)

□ 조사준비과정

- 2차년도 질문지 확정 → CAPI 프로그램 개발→ 2차년도 추가 문항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조사원 훈련의 순으로 진행됨.

□ 실사과정

-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 → 가구방문일정 협의 및 확정 → 가구방문조사 → 발달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배포의 순으로 진행됨.

□ 조사원 간담회 실시

- 조사진행상 애로사항과 3차년도 조사시 고려할 점, 패널유지 방안 등을 논의함

라. 조사성공률 및 원표본 유지율

- 2차년도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실률
 - 조사완료 패널 수는 총 1,904명이며 덴버 II는 1,896명, K-ASQ 1,903명 실시
 - 1차년도 대비 조사 성공률은 약 91.6%이며, 전체 패널 기준 성공률은 74.3%임.

4. 제1차 심층조사

가. 심층조사 개요

- 심층조사의 필요성
 - 일반조사에서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대규모 조사의 특성상 심도있는 자료수집이 불가함. 이에 전문성 있는 조사원을 활용한 심층조사를 통해 아동의 발달상태 및 주변 인적 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자료수집이 요구됨.
- 심층조사 운영체계
 - 전문성 있는 검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주요 권역별로 거점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들을 협력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함.
- 심층조사 내용
 - 발달전반: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 제2판(K-BSID II)을 사용하여 검사함
 - 애착: Q-set를 사용하여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검사함
 - 기질: ECBQ를 사용하여 아동의 기질을 검사함
 - 어머니 특성: 성격평가질문지(PAI)를 사용하여 어머니 성격검사를 실시함

나. 제1차 심층조사 방법

- 심층조사 대상 선정
 - 2차년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 중 9월 17일~27일에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220명을 선정함.

□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서울/경인권 4개, 충청권 2개, 경북권 1개, 경남권 2개, 전라권 2개 대학교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 자문, 해당 학과/센터 내 심층조사 수행 총괄, 해당 학과/센터 내 검사자 모집·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함.

□ 심층조사 검사자 훈련

- 심층조사를 담당할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주요 수행 검사에 대한 훈련 및 검사수행에 필요한 자격증(K-BSID II 중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

□ 심층조사 방법

- 아동의 발달 전반(K-BSID II)과 애착(Q-Set) 검사는 권역별 지정 검사장소로 아동과 주 양육자(어머니)가 방문하여 검사실에서 실시되며, 아동 기질(ECBQ) 과 어머니 성격검사(PAI)는 미리 우편 발송하여 검사당일 수거함.

다. 제1차 심층조사 현황

□ 심층조사 대상 모집 결과

- 총 214명의 패널이 홈페이지를 통해 심층조사를 신청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신청자가 집중되어 경기도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부설센터를 조사기관에 추가함. 6명을 추가하여 220명을 심층조사 대상자로 확정함.

□ 심층조사 진행

- 2009년 10월 5일~12월 23일까지 총 206명에 대한 심층조사가 완료됨. 검사자는 4종의 조사 완료 후 미리 제공된 코딩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송함.
-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 연구진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K-BSID는 검사도구 특성상 검사자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5. 1차년도 기초분석

가. 분석개요

□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

- 신생아 패널이라는 본 패널의 특성에 맞추어 일반적 특성 외에 출산 및 양육

관련 특성, 아동발달 특성, 육아지원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분석함.

나. 일반적 특성

□ 아동 특성

- 아동 성별은 남아 51.5%, 여아 48.5%이며,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은 2.9%임.
- 아동 중 12.6%는 출생 후 입원치료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음.

□ 부모특성

- 부모 평균 연령은 어머니 31.1세, 아버지 33.6세이고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 어머니의 68.9%, 아버지의 70.5%이며, 고졸 미만은 1% 안팎임.
- 결혼상태는 어머니 96.2%, 아버지 97.8%가 초혼이고 평균 결혼기간은 3.7년임
- 어머니 53.5%, 아버지 43.9%가 종교가 있으며,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순임.
- 부의 79.0%, 모의 27.1%가 음주를 하고, 흡연자는 모 0.7%, 부 53.5%임.
- 부의 98.5% 모의 31.4%가 취업 중이며 부 0.8%, 모 0.7%가 학업 중임.
- 조사 당시 취업모의 약 68.1%가 출산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였으며,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어머니는 28.8%, 3.1%는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
 - 휴직 중인 어머니의 97.2%가 복귀할 예정이며, 2.8%는 복귀계획이 없었음
 - 조사 당시 취업 중인 어머니 중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 이직 예정은 3.5%이며, 그 이유로는 자녀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응답이 76.8%이고 직장 내 분위기(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도 9.3%임.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원 수는 3명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3~5명임.
- 가구원 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86.7%, 3세대 가족이 8.9%임.
- 자녀 위탁여부는 전체 2.1%가 아기를 다른 가구에 위탁 중이라고 응답함.
 - 위탁가구는 대부분 취업모 가구로 외조부/외조모 위탁이 61.8%로 가장 높음.
- 가구 월 소득은 201~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지출 규모는 101~200만원이 가장 많았음. 전체 1.1%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2.6%는 차상위계층임.
-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67.6%, 연립주택(빌라 포함) 13.5%, 단독주택 9.1%이며, 소유 형태는 자가 43.0%, 전세 42.2%로 비슷하게 나타남.

□ 지역사회 특성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거주 기간은 대부분 3년 이내이며, 일반 아파트 지역이 59.5%, 일반주택지역이 32.1%임.

다. 출산 및 양육 관련 특성

□ 임신 및 출산관련 특성

- 임신 시 배란촉진/유도, 인공수정/시험관 시술 이용 비율은 각각 21%, 2.0%임.
- 전체 응답자의 3%가 조산(재태기간 37주 미만)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55.4%이며, 조사당시 약 62%가 모유수유 중이었음.
- 희망성별은 어머니는 딸 37.9%, 아들 31.3%, 아버지도 딸 37.4%, 아들 28.6%임.
- 전체 약 28%가 추가 출산계획이 있으며, 49.7%는 추가 출산계획 없음.
- 기대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고, 이어 1명, 3명이라는 응답이 각각 25.3%, 14.8%이며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 57.8%, 3명이 31%임.
- 조사 당시 전체 82%가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

- 모의 자기효능감은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며 평균 8.90점이었음.
- 모의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 30.20점으로 나타남.
- 모의 우울은 6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조사됨. 출산 전 평균 11.27점, 출산 후 1개월에 9.08점, 1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11.67점임.

□ 부부관계

- 부부가 느끼는 결혼만족도는 4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은 아내가 15.23점, 남편이 17.11점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부부갈등은 8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남편의 평균 점수는 15.05점, 아내의 점수는 15.92점으로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더 심각함.

□ 부모됨

- 부모가 갖는 자녀가치는 도구적 가치 4개 문항, 정서적 가치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부모 모두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

- 부모의 자녀기대를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 이타심,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의 항목별로 보면,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 이타심, 금전적 성공 순으로 중시함.
- 부모의 책임에 대해 모의 47.7%, 부의 52.0%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응답함.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 모두 '예의바른 생활습관'을 들었으며, 이어서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순임.
- 모의 양육스타일은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되며 취업모는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비취업모는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었음.
- 모의 양육지식은 총 13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아니다로 응답하여 정답 수의 비율을 산출하여 계산하는데, 정답의 비율은 50~75%가 45.8%로 가장 많음.
-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10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전체 평균은 27.56점임.

□ 가족

-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는 4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14.39점임.
- 가족이 지난 1년간 경험한 생활사건의 수는 규범적 사건 3.6건, 비규범적 사건 0.64건을 평균적으로 경험함.
- 어머니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원 정도를 정서적, 도구적, 여가적, 정보적 지원의 4개 하위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 5점 척도에 평균 4.17, 4.23, 4.09, 4.10점임

라. 아동발달 특성

□ K-ASQ

- 검사받은 아동의 98.6%가 정상발달로 나타났으며, 평균으로부터 2 표준편차 아래인 위험발달군 아동은 1.4%, 1 표준편차 아래인 의심발달군 아동은 12.7%임.
- 5개 영역 중 '의사소통' 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음.

□ 한국형 덴버II

- 검사받은 아동의 90.7%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8.4%가 의심스러운 발달로 나타남. 나머지 0.9%는 검사불능임.
- 전체적으로 '미세운동 및 적응 발달'에서 지연·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질 및 기초생활습관

- 아동 기질의 정서성과 활동성 척도에 대한 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제시하였음.
- 수면, 수유습관, 배변 및 씻기 습관 척도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제시하였음.

마. 육아지원 관련 특성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 전체 응답자의 15.6%가 개인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취업모는 대부분 직접 양육, 취업모의 대리양육 이용 비율은 51.5%임.
 - 비취업모 이용 비율이 0.2%에 불과하므로 관련 분석은 취업모만 대상으로 함.
- 서비스 형태는 개인대리양육자 86.7%, 보육시설 12.6%, 두 가지 병행이 0.7%임
- 최초 대리양육 이용 시기는 평균 11.1주이며, 최초 대리양육자는 외조부모/친조부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개인대리양육 이용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음.
 - 개인대리양육자는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34.1%, 낮시간에 아기만 맡기는 형태가 28.0%이며, 주중 5일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음.
 - 대리양육자 이용 비용은 정기적 현금지불이 82.6%였으며, 지불안함 10.1%임.
 - 개인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5점 척도에 4.31점으로 높게 나타남.
- 보육시설 이용 이유는 43.1%가 대리양육자 고용 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
 - 이용 중인 보육시설 유형은 가정보육시설이 63.7%, 민간개인이 27.0%임.
 - 보육시설 이용 빈도는 주중 5일간 이용이 78.1%이며, 일 평균 9.6시간 이용함.
 - 보육비 지원 정도는 일부 감면이 56.5%, 전액면제가 9.9%임.
 -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5점 척도의 3.7점으로 개인대리양육에 비해 낮음.
- 그 외 전체 아동의 4.6%가 정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원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해 각각 20%, 24%, 26%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공공여가 공간·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29.5%, 56.1%가 불편하다고 응답함.
-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사고에 대해 각각 17.8%, 26.3%가 위험하다고 인식함.

-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응답이 19.0%임.

□ 육아지원정책 특성

-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 방향은 모성보호보다 육아지원서비스 확대라는 응답이 더 많음.
-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를 휴가·휴직, 보육지원, 모성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으로 구분했을 때 여성의 휴가·휴직, 보육지원, 모성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남성의 휴가·휴직 순으로 필요성이 높았으며, 우선순위도 이와 일치함.
- 육아지원 정책 수혜는 농어민 가정 육아비 2.2%, 도우미 지원 15.8%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시행 중이고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행률이 각각 44.1, 32.6%임. 나머지 정책은 모두 시행률이 30% 미만임.
 - 제도 시행 중인 경우 이용률은 출산휴가 97.3%, 대체인력풀 운영 64.4%, 보육비 지원 61.4%, 여성의 육아휴직 57.6% 순임.
 - 이용시 만족도는 여성의 육아휴직이 평균 4.12점으로 가장 높았음.

6. 향후 추진 계획

□ 2010년도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차년도 심층조사 자료 처리 및 보고서 발간
- 1차년도 자료공개 및 제1차 학술대회 시행
- 2차년도 자료 처리 및 데이터 구축
- 2차년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분석 실시
- 3차년도 조사 준비 및 실시
- 지속적인 패널 관리 및 추적

□ 향후 추진 시 고려사항

- 발달검사 도구의 추가 또는 교체 검토
- 대체표본 검토
-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홍보 강화
- 국제협동 연구의 가능성 모색
- 종단데이터 구축 및 연구방법론 세미나 개최 검토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한국아동패널 개요	2
3. 한국아동패널 2009의 연구 내용	7
4. 한국아동패널 2009의 연구 방법	10
II. 1차년도 일반조사	12
1. 표본 구축 현황	12
2. 가중치 부여	17
3. 1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21
4. 자료 처리 및 분석	22
III. 2차년도 일반조사	26
1. 2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26
2. 2차년도 일반조사 방법	34
3. 2차년도 일반조사 절차	37
4. 조사성공률 및 원표본 유지율	40
IV. 제1차 심층조사	43
1. 심층조사 개요	43
2. 제1차 심층조사 방법	48
3. 제1차 심층조사 현황	52
V. 1차년도 기초분석	55
1. 분석 개요	55
2. 일반적 특성	61

3. 출산 및 양육 관련 특성	87
4. 아동발달특성	110
5. 육아지원 관련 특성	123
VI. 향후 추진 계획	151
1. 2010년 주요 연구 내용	151
2. 향후 추진 시 고려사항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59
부록 1. 2차년도 발달검사 안내 리플릿	161
부록 2. 영문 리플릿	163
부록 3. 시·군별 표본 구축 현황	169
부록 4.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화면	171
부록 5. 부모 안내문(심층조사)	173
부록 6. 문항별 응답빈도	175
부록 7. 1차년도 질문지(분석용)	188

표 차례

〈표 I-2- 1〉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3
〈표 I-2- 2〉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4
〈표 II-1- 1〉 권역별 표본 배정	13
〈표 II-1- 2〉 권역별 표본 구축 현황	16
〈표 II-1- 3〉 조사방법별 표본 구축 현황	16
〈표 II-1- 4〉 조사시기별 표본 구축 현황	16
〈표 II-1- 5〉 지역규모별 표본 구축 현황	17
〈표 II-2- 1〉 최종 가중치 부여 결과	20
〈표 III-1- 1〉 2차년도 일반조사 문항의 변경사항	26
〈표 III-1- 2〉 아동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27
〈표 III-1- 3〉 부모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28
〈표 III-1- 4〉 가족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30
〈표 III-1- 5〉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32
〈표 III-1- 6〉 지역사회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33
〈표 III-1- 7〉 육아지원정책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33
〈표 III-2- 1〉 한국아동패널 설문조사의 개요	36
〈표 III-3- 1〉 패널 조사원 훈련 일정 및 내용	38
〈표 III-3- 2〉 패널 조사원 간담회 일정 및 내용	39
〈표 III-4- 1〉 패널 조사 거절 이유	40
〈표 III-4- 2〉 1차년도 및 2차년도 패널의 원표본 유지율	41
〈표 III-4- 3〉 2차년도 권역별 패널 유실률	41
〈표 III-4- 4〉 2차년도 지역규모별 패널 유실률	42
〈표 IV-2- 1〉 제1차 심층조사 표본 배분	49
〈표 IV-2- 2〉 제1차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50
〈표 IV-2- 3〉 제1차 심층조사 검사자 교육	51
〈표 IV-2- 4〉 제1차 심층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51
〈표 IV-3- 1〉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배정 현황	52
〈표 IV-3- 2〉 제1차 심층조사 월별 진행 현황	54

〈표 V-1- 1〉 분석주제별 구성 - 일반적 특성	55
〈표 V-1- 2〉 분석주제별 구성 - 출산 및 양육 관련 특성	56
〈표 V-1- 3〉 분석주제별 구성 - 아동발달특성	57
〈표 V-1- 4〉 분석주제별 구성 - 육아지원 관련 특성	58
〈표 V-1- 5〉 표본의 일반적 특성	59
〈표 V-2-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61
〈표 V-2- 2〉 아동의 신체적 특성	62
〈표 V-2- 3〉 예방접종 횟수 - 4개월 기준	63
〈표 V-2- 4〉 출생 후 건강상태(중복응답)	63
〈표 V-2- 5〉 치료 기간	64
〈표 V-2- 6〉 부모 만 연령	64
〈표 V-2- 7〉 부모 결혼 상태	65
〈표 V-2- 8〉 결혼기간	65
〈표 V-2- 9〉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65
〈표 V-2-10〉 부모의 학력	66
〈표 V-2-11〉 부모 종교 유무	66
〈표 V-2-12〉 부모 종교	67
〈표 V-2-13〉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67
〈표 V-2-14〉 부모의 가족과의 비동거 사유	67
〈표 V-2-15〉 부모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	68
〈표 V-2-16〉 부모의 음주 여부	68
〈표 V-2-17〉 부모의 음주 빈도	69
〈표 V-2-18〉 부모의 음주 시 주량	69
〈표 V-2-19〉 부모의 흡연 여부	70
〈표 V-2-20〉 부모의 니코틴 중독 정도	70
〈표 V-2-21〉 부모 취업상태	71
〈표 V-2-22〉 부모 직업(대분류 기준)	71
〈표 V-2-23〉 부모 종사상 지위	72
〈표 V-2-24〉 부모 주당 총 근로시간	72
〈표 V-2-25〉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73
〈표 V-2-26〉 향후 1년 내 직장 또는 학업 복귀 계획 - 출산 시	73

〈표 V-2-27〉 항목별 직무만족도	74
〈표 V-2-28〉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74
〈표 V-2-29〉 어머니 취업 상태	75
〈표 V-2-30〉 직장으로의 복귀 계획 및 시점	75
〈표 V-2-31〉 향후 취업 계획	76
〈표 V-2-32〉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려는 이유	76
〈표 V-2-33〉 어머니 학업 상태 및 복귀 계획	77
〈표 V-2-34〉 주당 학업 할애 시간	77
〈표 V-2-35〉 직장 또는 학업 중단 시기	77
〈표 V-2-36〉 임신 중/출산 후 그만 둔 이유	78
〈표 V-2-37〉 취업 또는 학업 계획	79
〈표 V-2-38〉 가구구성원 수	79
〈표 V-2-39〉 가구 구성	80
〈표 V-2-40〉 자녀 위탁여부	80
〈표 V-2-41〉 아동과 위탁가구와의 관계	81
〈표 V-2-42〉 가구 소득	81
〈표 V-2-43〉 가구 지출	82
〈표 V-2-44〉 부동산 총액	83
〈표 V-2-45〉 금융자산 총액	84
〈표 V-2-46〉 가구 부채	84
〈표 V-2-47〉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85
〈표 V-2-48〉 주택 유형	85
〈표 V-2-49〉 주택 소유형태	86
〈표 V-2-50〉 거주 중인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86
〈표 V-2-51〉 현재 사는 동네에 거주했던 기간	87
〈표 V-2-52〉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87
〈표 V-3- 1〉 산모의 신체 특징	88
〈표 V-3- 2〉 임신 방법	88
〈표 V-3- 3〉 조산여부	89
〈표 V-3- 4〉 임신관련 느낌	89
〈표 V-3- 5〉 분만 형태	90

〈표 V-3- 6〉 출산 후 접촉	90
〈표 V-3- 7〉 출산관련 느낌	91
〈표 V-3- 8〉 모유 수유 여부	91
〈표 V-3- 9〉 모유 수유 기간	92
〈표 V-3-10〉 모유 수유 중단 이유	92
〈표 V-3-11〉 계획된 임신 여부	93
〈표 V-3-12〉 기대성별	93
〈표 V-3-13〉 후속 출산 의도	94
〈표 V-3-14〉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94
〈표 V-3-15〉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95
〈표 V-3-16〉 기대 자녀수	95
〈표 V-3-17〉 이상적인 자녀수	96
〈표 V-3-18〉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적인 자녀수	96
〈표 V-3-19〉 부모교육 여부	97
〈표 V-3-20〉 부모 교육 내용(중복응답)	98
〈표 V-3-21〉 부모 교육 기관(중복응답)	99
〈표 V-3-22〉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	99
〈표 V-3-23〉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100
〈표 V-3-24〉 어머니의 우울 정도(임상집단 여부)	101
〈표 V-3-25〉 어머니의 우울 정도(평균)	101
〈표 V-3-26〉 부부의 결혼만족도	102
〈표 V-3-27〉 부부 갈등의 정도	102
〈표 V-3-28〉 자녀 가치에 대한 인지	103
〈표 V-3-29〉 아버지의 자녀기대	104
〈표 V-3-30〉 어머니의 자녀기대	104
〈표 V-3-31〉 양육신념 - 부모의 책임	105
〈표 V-3-32〉 양육신념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106
〈표 V-3-33〉 양육스타일	107
〈표 V-3-34〉 양육 지식	107
〈표 V-3-35〉 양육 스트레스	108
〈표 V-3-36〉 남편의 양육참여	108

〈표 V-3-37〉	가족생활사건	109
〈표 V-3-38〉	사회적 지원	109
〈표 V-4-1〉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112
〈표 V-4-2〉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113
〈표 V-4-3〉	K-ASQ: 위험발달(-2·SD) 및 의심발달(-1·SD) 갯수별 분포	113
〈표 V-4-4〉	덴버 II 최종 [정상-의심발달-검사불능] 분포	115
〈표 V-4-5〉	덴버 II 지연_주의 해당 분포	115
〈표 V-4-6〉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116
〈표 V-4-7〉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117
〈표 V-4-8〉	아동특성_기질: 정서성 문항별 평균	119
〈표 V-4-9〉	아동특성_기질: 활동성 문항별 평균	120
〈표 V-4-10〉	기초생활습관_수면: 문항별 평균	121
〈표 V-4-11〉	기초생활습관_수유: 문항별 평균	121
〈표 V-4-12〉	기초생활습관_배변/씻기	122
〈표 V-5-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123
〈표 V-5-2〉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124
〈표 V-5-3〉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형태	124
〈표 V-5-4〉	최초 대리양육 시작시기	125
〈표 V-5-5〉	최초의 대리양육자	125
〈표 V-5-6〉	대리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	126
〈표 V-5-7〉	개인대리양육 이용이유	127
〈표 V-5-8〉	개인대리양육자 관계	127
〈표 V-5-9〉	개인대리양육자 구인 경로	128
〈표 V-5-10〉	개인대리양육자 거주지	128
〈표 V-5-11〉	개인대리양육자 이용 빈도	129
〈표 V-5-12〉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지불방식	129
〈표 V-5-13〉	개인대리양육 이용비용	130
〈표 V-5-14〉	개인대리양육 만족도	130
〈표 V-5-15〉	개인대리양육자 성별	131
〈표 V-5-16〉	개인대리양육자 학력	131
〈표 V-5-17〉	개인대리양육자 결혼상태	132

<표 V-5-18> 개인대리양육자 국적	132
<표 V-5-19> 개인대리양육자 자녀양육 경험	132
<표 V-5-20> 보육시설 이용이유	133
<표 V-5-21> 보육시설 설립유형	134
<표 V-5-22> 보육시설 특성	134
<표 V-5-23> 보육시설 주변 환경	135
<표 V-5-24> 보육시설 이용 빈도	135
<표 V-5-25> 보육시설 이용시간	136
<표 V-5-26> 보육시설 등하원시간	136
<표 V-5-27> 보육비 지원 여부	136
<표 V-5-28> 보육비 지원 이유(중복응답)	137
<표 V-5-29>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137
<표 V-5-30> 정기 프로그램 이용 여부	138
<표 V-5-31> 정기 프로그램 내용	138
<표 V-5-32> 정기 프로그램 기관	139
<표 V-5-33> 정기 프로그램 이용 횟수	139
<표 V-5-34> 정기 프로그램 이용 참여시간	140
<표 V-5-35> 정기 프로그램 비용	140
<표 V-5-36>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 시설 충분성	141
<표 V-5-37> 공공여가 및 문화시설 편리성	142
<표 V-5-38> 치안 및 안전사고	142
<표 V-5-39>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143
<표 V-5-40>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방향	144
<표 V-5-41>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휴가 및 휴직	144
<표 V-5-42>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보육지원	145
<표 V-5-43>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모성보호	146
<표 V-5-44>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146
<표 V-5-45>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순위	147
<표 V-5-46>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여부	148
<표 V-5-47> 도우미 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148
<표 V-5-48>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중복응답)	149

〈표 V-5-49〉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중복응답)	149
〈표 V-5-50〉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150

그림 차례

[그림 I-2-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5
[그림 I-3-1] 한국아동패널 2009의 연구 진행도	8
[그림 IV-1-1] 한국아동패널 조사 체계도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이 출생 후 경험하는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공식적인 육아지원기관 및 비공식적인 개별 육아지원이 이후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정책은 물론 사회적·학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대한 동태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패널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정과 육아지원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 현상이 시급한 국가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발달과 영향요인에 대한 역동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 종단연구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현상의 진행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특히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패널조사는 횡단적인 실태와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애과정에 따른 변화상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및 특정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매우 용이한 연구방법임(박수미 외, 2006).
- 아동의 발달을 추적해 가는 종단연구는 발달의 안정성, 개인차의 이유, 그리고 환경의 역할 등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생애 초기부터 시작될 때 그 가치가 있음.
- 한국아동패널은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국가수준의 신생아 표본을 대상으로 그들의 발달상의 변화와 주변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험을 복수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함.

- 이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부모양육 및 육아지원기관을 둘러싼 미시적인 특성 분석과 더불어 이들이 속한 사회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국가수준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논문공모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연구와 논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한국의 육아정책 발전에 귀중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2. 한국아동패널 개요

□ 전체 연구기간

- 2008년~2020년(2015년까지 매년 조사 이후 2017년, 2020년 추가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모집단은 2008년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임(제주도 제외).
-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 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 신생아 가구임.
-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음. 전국 의료기관 중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1차 추출단위로 활용하였으며, 2006년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전국을 6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층을 나누어 권역별 연간 분만건수를 비례배정하였음.¹⁾

□ 연구 진행 현황

- 앞서 서술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기초하여 한국아동패널은 2006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2008년도에 표본을 구축하였음.
- 2006년에는 향후 다년간 추진될 장기종단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한국아동패

1)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설계는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도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임.

널의 모형을 개발하였음.

- 2007년도에는 모형에서 계획된 표본설계와 조사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8년에는 1차년도 일반조사를 시작하여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였음.
- 2009년도에는 2차년도 일반조사와 더불어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제1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음.
- 2차년도 일반조사는 총 1,904명의 패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심층조사는 전체 표본의 약 10%인 200명을 목표로 220명을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총 206명을 완료하였음.
-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 <표 1-2-1>과 같음.

<표 1-2-1>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연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006년	한국아동패널 모형 개발	- 아동패널조사 모형 개발의 기초 탐색 - 조사설계 - 표본설계 - 조사영역 및 항목 1차 선정
2007년	예비조사 실시	- 한국아동패널 표본설계 확정 - 1차년도 조사내용 및 도구 확정 - 1차년도 연구방법 확정
2008년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표본구축 (2,078 신생아 및 가구) - 1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1차년도 자료구축 사전 작업 - 2차년도 조사 준비
2009년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제1차 심층조사 실시	- 1차년도 자료 처리 및 기초분석 - 2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제1차 심층조사 대상자 모집 - 제1차 심층조사 실시

□ 조사유형 및 시기

- 조사 유형은 크게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됨.
-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 조사로서, 패널 아동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9세와 12세 때 각각 1회씩 실시하게 됨. 일반조사에는 아동을 둘러싼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 외에 아동의 발달 결과를 측정하는 검사(항목)가 포함되며, 이러한 검사 문항들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관련 문항들이 매년 수정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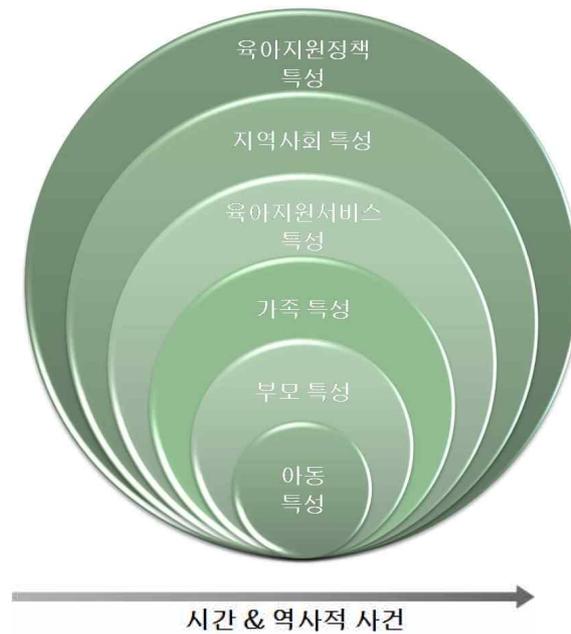
〈표 1-2-2〉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일반조사										심층조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등1)	9세 (초등3)	12세 (초등6)	
2008년											
2009년											1차
2010년											
2011년											
2012년											2차
2013년											
2014년											
2015년											3차
2017년											
2020년											

- 심층조사는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하는데, 전체 연구기간 내 총 3회(대상 아동이 1.5세, 4세,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심층조사는 표집 대상의 10% 가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심층적 자료 수집을 위해 관찰, 검사, 면담 등 폭넓은 조사방법이 이용될 예정임.

□ 조사 내용

-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과 Elder(1998, 2006)의 생애이론을 이론적인 틀로 삼아,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 하여 조사 영역을 조직하였음.
- 조사 영역은 아동을 둘러싼 주요 환경으로 밝혀진 부모, 가족 및 육아지원 서비스의 특성을 각각 조사하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위해 각 아동과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수준의 거시적인 체계 또한 연구의 영역으로 포함하였음.



[그림 1-2-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 아동 특성

- 출생 후 지속되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영역별 특성은 성장하는 아동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조사 영역임.
-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산모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개인특성, 언어·신체·인지·사회성, 기질 등의 발달 특성, 일과활동특성 등이 조사됨.
- 영아기에 해당하는 0~2세까지 한국아동패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반조사용 아동 발달 전반에 대한 도구는 '한국형 덴버 II(Denver II)'와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시스템(Korean-Ages & Stages Questionnaires: 이하 K-ASQ)'을 사용함.)

○ 부모 특성

-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가장 먼저 접하는 성인이자, 성장 전반에 가장 큰 역할

2) 3세 이후 일반조사 시 발달전반에 대한 측정은 표준화된 유아용 발달검사 도구 중 하나로 재검토될 예정임.

을 하는 환경으로, 많은 아동 관련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음.

-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특성 등의 개인특성, 부모됨, 양육특성, 아버지 특성(근로시간, 자녀양육참여 등), 어머니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직업계획, 직업특성 등), 부부관계, 기타 사회적 지원 등이 조사됨.

○ 가족 특성

-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 문제가 다양화되고, 가족 내 역할 및 관계 또한 변화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시뿐 아니라 부모들의 자녀양육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각 가정의 가구원별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역사적 특성, 물리적 환경, 사회보장 수혜 여부, 사회적 지지, 가족 내 사건 등이 조사됨.

○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지원을 이용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육아지원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
- 유치원,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 중심의 육아지원과 가정에서 대리양육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서비스 형태의 육아지원,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비롯한 각종 학원, 선교원과 같은 유사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 각 아동의 대리양육 여부와 그 이유, 최초 대리양육의 특성, 대리양육자 또는 보육시설의 특성,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 등이 조사됨.

○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의 육아와 관련된 정책, 재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 및 사회적 지원은 지방분권화가 자리 잡음에 따라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 아동 가구의 소재지,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 적합성 등이 조사됨.

○ 육아지원정책 특성

-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대상 아동의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일과 가정의 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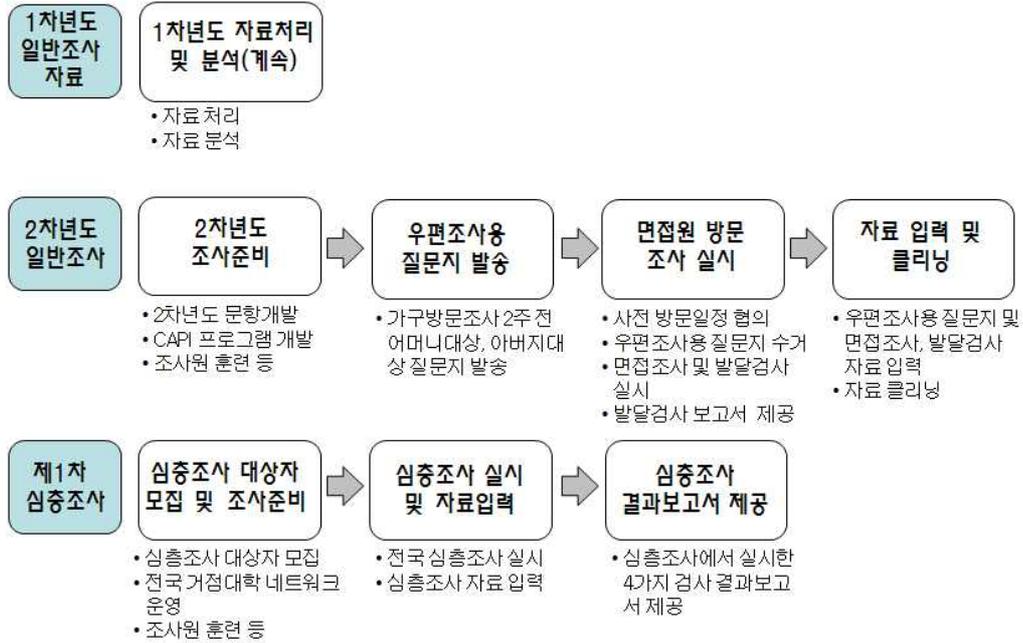
정책 관련 의견,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취업모의 경우 근무 직장의 육아지원정책 관련 의견 등이 조사됨.

□ 조사 방법

- 일반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를 기본으로 함.
 -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함.
 - 가구방문 면접조사는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이하 CAPI) 방식으로 조사 대상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함. 경우에 따라서 주 양육자에 해당하는 어머니 외의 다른 성인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으나, 대상 아동과 동일 가구 거주자이더라도 비혈연 관계(예: 유급 비혈연 육아 도우미 등)인 가구원은 응답자에서 제외됨.
 - 우편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 발송한 후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할 때 취합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함.
 - 위의 두 가지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조사 대상 또는 조사 변인 등에 따라 전화조사 등을 병행함.
 - 대상 아동의 발달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는 가구방문 시 면접조사와 함께 실시함.
- 심층조사의 경우 표본의 10%에 해당하는 아동의 여러 발달 영역 및 주요 환경 특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함.

3. 한국아동패널 2009의 연구 내용

- 한국아동패널 2009의 연구 내용은 크게 1차년도 패널자료의 구축, 2차년도 일반 조사 실시, 제1차 심층조사 실시의 세 가지로 구분됨. 한국아동패널 2009의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다음 <그림 I-3-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그림 1-3-1] 한국아동패널 2009의 연구 진행도

□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2008년도에 실시된 1차년도 조사 이후 기존 문항 중 제외 또는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확정함.
- 2차년도 일반조사는 1차년도와 동일한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면접조사와 우편조사 그리고 발달검사의 세 가지 방법을 주요 조사방법으로 활용하여 실시함.
 - 이 중 면접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CAPI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를 위한 설문 프로그램을 개발함.

□ 제1차 심층조사 실시

- 전체 연구기간(2008~2020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인 심층조사 중 제1차에 해당하는 1세 대상 심층조사를 1차년도 조사 이후 구축된 표본의 약 10%에 해당하는 220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함.

- 심층조사의 자료 수집은 전국의 각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해당 대학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 교수들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실시함.

□ 1차년도 자료 공개를 위한 작업

○ 1차년도 자료 구축 완료

- 자료의 결측치(missing data)나 항목 상호간에 비일관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에디팅(data editing) 작업을 통한 자료 구축을 완료함.
- 표본추출확률 계산 및 무응답자 조정을 통한 가중치 부여 및 자료 보완작업을 완료함.

○ 1차년도 자료 공개용 간행물 제작

- 자료 공개와 함께 배포되어야 하는 한국아동패널의 사용자지침서, 코드북 및 도구 프로파일 등의 간행물을 제작함.

□ 관련 홍보사업 수행

○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일반조사 및 심층조사 일정에 대한 안내, 발달검사 결과 공지,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 조사 참여에 대한 안내 및 감사인사 등이 이루어짐.
- 1차년도 자료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자료 이용자들을 위한 안내, 각종 발간물 및 원자료의 제공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임.

○ 발달검사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보급

- 한국아동패널에서 실시 중인 발달검사에 대한 안내를 담은 리플릿을 가구방문조사에 앞서 발송된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시 동봉함(부록 1 참조).
- 리플릿에는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일반조사에서 실시하는 발달검사의 종류, 진행과정, 검사결과의 확인 및 해석, 심층조사에 대한 안내, 심층조사 참여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영문 홍보 리플릿 및 홈페이지 제작

-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 공개를 앞두고, 향후 국제학술대회 참여 등을 통한 한국아동패널의 홍보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영문 홍보 리플릿 및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이 이루어짐(부록 2 참조).

4. 한국아동패널 2009의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2차년도 조사를 위한 질문지 개발과 제1차 심층조사에 포함될 변인 및 도구의 선정에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함.
- 심층조사에 포함될 변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지, 언어, 모-자간 상호작용의 질, 애착, 기질, 가정환경의 질 등 여러 변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문헌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조사의 실행가능성과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 적합성, 국내 타당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조사 도구를 결정함.

□ 전문가 협의회

- 1차년도 자료 공개 준비를 위하여 패널조사 전문가와의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중치 산출방식과 결측치 대체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제1차 심층조사에서 사용될 변인 및 도구 선정에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회를 실시함.
- 제1차 심층조사의 실사를 담당할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심층조사 운영 방식에 관한 협의회를 실시함.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2종의 질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와 1종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는 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하여 '면접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함.

- 우편조사는 '어머니대상 질문지'와 '아버지대상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함. 단, 우편조사의 경우 2종의 질문지를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위하여 가구방문 시 수거하는 유치조사의 방식으로 수거하였음.

□ 검사

- 2차년도 일반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검사로 한국형 덴버 II와 K-ASQ가 사용됨.
 - 검사는 면접조사를 위한 가구방문 시 함께 실시함.
- 제 1차 심층조사에서는 주요 변인별로 국내에서 표준화 또는 타당화 작업이 수행된 4종의 검사 도구를 사용함.
 - 영아발달검사인 '베일리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Korean-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이하 K-BSID II)'
 - 12개월 이상의 영유아 대상 기질 측정도구인 '유아 기질측정척도(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이하 ECBQ)'
 - 영아 대상 애착 측정도구인 '애착 Q-Set'
 - 어머니 대상 성격 검사인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이하 PAI)'

II. 1차년도 일반조사

1. 표본 구축 현황

□ 표본추출 개요

-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 1단계에서는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추출함.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인 의료기관 추출을 위해 2006년도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함.
 - 2006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의 6개 권역별로 층을 나누고, 각 층 내에서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법을 적용하여 30개 의료기관을 추출함.
- 2단계에서는 추출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및 그의 부모(주양육자)를 예비표본으로 추출함.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에 해당하는 신생아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표본으로 추출된 30개 의료기관을 2008년 4월~7월 중 해당 기관 당 3개월 동안 방문함.
 - 의료기관 방문 시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참여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예비표본 2,562 가구를 구축함³⁾.
- 3단계에서는 예비표본 가구 중 최종표본으로 추출함.
 - 예비표본 명부에 포함된 2,562 가구 중 본조사 참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최종 2,078가구의 신생아 가구 표본을 구축함.

□ 1단계 표본추출과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부를 활용하여, 연간 분만

3) 병원 모집기간 내 구축된 예비표본은 2,561가구였으나, 본조사 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모집 기간 내 출생한 패널이 추가됨에 따라 최종 예비표본 2,562가구로 수정되었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틀을 작성한 결과, 서울권 49개, 경인권 74개, 충청/강원권 32개, 경북권 28개, 경남권 46개, 전라권 31개로 총 260개 의료기관이 표본추출틀에 포함됨.

- 2006년 연간 분만건수를 기초로 3개월간 방문 시 예상되는 분만건수를 추정하여, 이 수치를 기초로 권역별로 최종 추출해야 하는 예비표본 가구 수와 최종 표본 가구 수를 배정함(표 II-1-1 참조).
 - 2006년도 전체 분만건수 대비 권역별 연간 분만건수를 최종 목표 표본 가구 수인 2,000가구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비례 배정함.
 - 최종 목표 표본 가구 수인 2,000 가구를 50% 초과하는 3,000명의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구축하도록 함.
 - 의료기관 당 3개월 동안 매주 2회 방문 시, 전체 산모 중 60% 정도를 접촉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 약 55%를 최종 표본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비표본 가구 수를 산출함.
 - 산출된 예비표본 가구 수와 병원 당 예상 참여 가구 수를 기준으로 최종 표본 의료기관수를 총 30개원으로 산출함.

〈표 II-1-1〉 권역별 표본 배정

단위: 개소, 건, 가구

권역	해당 의료기관 수	연간 분만건수	3개월간 예상 분만건수	목표 최종표본 가구 수	목표 예비표본 가구 수	의료기관당 3개월간 예상 분만건수	의료기관당 예상 참여 가구 수	최종표본 의료기관 수
서울권	49	71,301	17,825	450	674	364	120	6
경인권	74	95,065	23,766	599	899	321	106	8
충청/강원권	32	30,933	7,733	195	293	242	80	4
경북권	28	34,868	8,717	220	330	311	103	3
경남권	46	50,682	12,671	320	479	275	91	5
전라권	31	34,318	8,580	216	325	277	91	4
계	260	317,167	79,292	2,000	3,000			30

주: 2006년 연간 분만건수 기준 자료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 표본추출틀인 의료기관 명부에서 30개 의료기관을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음.

□ 2단계 표본추출 과정

- 의료기관 방문조사는 조사원이 각 의료기관별로 4~7월 중 3개월간 주당 2회, 총 24회를 방문하여 예비표본을 모집함.
- 예비표본에 해당하는 가구는 '병원용 질문지'를 이용한 간략한 구조화된 면접 조사를 완료한 가구임.
- 의료기관에서 신생아가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사 참여를 거부한 가구 및 다음의 특성에 해당하는 가구는 예비표본 명부에서 제외됨.
 - 산모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산모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산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경우
 - 신생아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산모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신생아가 입양 예정인 경우
 - 신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 의료기관에서 구축된 예비표본 가구 수는 총 2,574가구였으나, 1개월 후 전화 조사 때 이 중 13사례가 탈락하여 예비표본에서 제외되어 1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최종 2,562가구가 예비표본으로 구축됨.
 - 제외된 사례로는 아기의 사망, 입양, 모자 건강상의 이유, 가족 이민 등이 보고됨.
 - 이는 당초 목표로 한 3,00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예비표본은 최종표본 2,000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준비과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2단계 표본추출과정을 종료함.

□ 3단계 표본추출과정

- 구축된 예비표본 2,562명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가구방문 면접조사가 이루어짐.
- 조사진행 과정 중 예비표본의 거절률이 매우 높고, 예비표본의 추적률은 매우 낮으며, 표본 사정에 의한 가구방문 일정의 지연⁴⁾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함.

- 이로 인해 예정된 12월말까지 2,000가구의 최종 패널 구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기간을 목표 표본인 2,000가구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하고, 강력 방문 거절 가구를 대상으로는 '거부가구용 질문지⁵⁾'를 우편발송 하는 것으로 조사 설계상의 수정이 이루어짐.
- 이러한 조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패널의 경우 원래 예정보다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원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발달검사를 시행한 시점이 아동마다 차이가 있음.
- 또한 1차년도 일반조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일정 간의 기간이 짧아짐으로써, 2차년도 일반조사의 준비 및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함. 그러나 조사대상 패널들의 양해를 구하고, 집중작업을 통해 조사준비 기간을 단축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2차년도 일반조사를 실시하는데 큰 차질은 없었음.

□ 최종표본 구축 현황

- 최종표본에 해당하는 가구는 1차년도 조사에서 사용된 8종의 질문지(표 III-3-1 참조) 중 면접용 질문지 또는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중 하나를 응답하고, 2종의 발달검사 중 하나를 완료한 가구임.
- 표본 구축은 목표표본인 2,000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 2월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최종 2,078명의 조사가 완료되어, 최초 구축된 예비표본 2,562명 가운데 81.1%가 표본으로 구축됨.
- 이를 권역별로 보면 경남권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79.8%), 충청/강원권(8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80%이상 완료됨.

4) 조사 대상 아동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아픈 경우, 아동의 어머니가 가구방문 일정을 잇는 경우 등이 주요 이유임.

5) 거부가구용 질문지는 방문조사를 강력히 거절하는 가구 대상 우편조사를 위해 면접용 질문지, 가구원대상 질문지, 위탁가구원대상 질문지의 주요 문항들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따라서 일반조사 문항의 간략본 형태라고 볼 수 있음.

〈표 II-1-2〉 권역별 표본 구축 현황

단위: 명, %

구분	서울/경인권	충청/강원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계
전체 패널	1,235	317	277	302	431	2,562
조사 성공	991	271	227	245	344	2,078
진행률	80.2	85.5	81.9	81.1	79.8	81.1

주: 서울/경인권의 경우 의료기관 표본은 서울권과 경인권이 분리되어 배정되었으나 실사과정에서 통합되어 진행되었음.

- 조사방법별로는 원래 조사 설계상 계획되었던 CAPI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표본이 89.7%이며, 우편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구축된 표본이 10.3%임.⁶⁾

〈표 II-1-3〉 조사방법별 표본 구축 현황

단위: 명, %

조사방법	서울/경인권	충청/강원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계
전체	991	271	227	245	344	2,078
CAPI	871	265	195	233	300	1,864
	87.9	97.8	85.9	95.1	87.2	89.7
우편 (전화포함)	120	6	32	12	44	214
	12.1	2.2	14.1	4.9	12.8	10.3

주: 서울/경인권의 경우 의료기관 표본은 서울권과 경인권이 분리되어 배정되었으나 실사과정에서 통합되어 진행되었음.

- 조사시기별로는 2008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가장 많이 조사가 이루어짐.

〈표 II-1-4〉 조사시기별 표본 구축 현황

단위: 명, %

시기	08. 9	08. 10	08. 11	08. 12	09. 1	09. 2
누적 진행부수	205	888	1,258	1,653	1,936	2,078
누적 진행률	9.9	42.7	60.5	79.5	93.2	100.0
월별 진행부수	205	683	370	395	283	142
월별 진행률	9.9	32.9	17.8	19.0	13.6	6.8

6) 우편 및 전화조사에 의한 가구로는 거부가구대상 질문지에 응답한 가구에 해당함. 단, 이들 가구도 병원용 질문지와 전화조사용 질문지는 그 외 가구와 동일하게 응답하였음.

-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최종 구축된 패널의 39.9%가 대도시, 41.1%가 중소도시, 19.9%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규모별 조사 진행률은 대도시 77.4%, 중소도시 84.8%, 읍면 지역이 81.7%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지역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음.

〈표 II-1-5〉 지역규모별 표본 구축 현황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
전체 패널	1,072	983	507	2,562
조사 성공	830	834	414	2,078
진행률	77.4	84.8	81.7	81.1
비율	39.9	40.1	19.9	100.0

-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설계 당시 분만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병원을 예비표본 모집 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 중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또는 읍면지역 거주 가구의 비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 바 있음.
- 그러나 전체 패널의 60%가 중소도시 또는 읍면지역 거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패널의 대도시 편중현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또한 전국의 157개 시군⁷⁾ 중 107개 시군에서 표본이 추출되어, 표본이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시군별 최종표본 구축현황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음.

2. 가중치 부여

□ 가중치 부여방법

-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표본이 구축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서 얻어진 표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함.

7) 표본설계에서 제외된 제주도의 시군은 제외된 개수임.

- 일반적으로 복합표본 설계된 조사의 가중치는 ① 설계 가중치, ② 무응답에 대한 조정, ③ 사후층화에 의한 조정 등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됨.
- 특히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주기(wave)가 진행됨에 따라 표본탈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를 통한 가중치 보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도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산출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설계가중치 산출

- 최종 추출단위인 신생아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단위인 의료기관 추출확률과 표본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가구 추출에 따른 추출확률을 종합하여 산출함. 결과적으로 1차년도 조사에서 h 층의 i 번째 의료기관에서 추출된 j 번째 표본 신생아(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w_{hij})는 다음과 같음.

$$w_{hij} = \frac{N_h}{n_h} \times \frac{M_{hi}}{m_{hi}}$$

여기서

N_h : h 번째 층의 모집단 의료기관 수

M_{hi} : h 번째 층 j 번째 의료기관에서 (모집기간 중) 총 신생아 분만건수

n_h : h 번째 층의 표본 의료기관 수

m_{hi} : h 번째 층 j 번째 의료기관에서 추출된 표본 신생아가구 수

- 위 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계가중치의 계산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별로 모집기간 중 태어난 신생아 분만건수를 필요로 함.
- 한국아동패널의 예비표본은 2008년 4월~7월 중에 태어난 신생아들로 구축되었으나, 본 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에 태어난 신생아 전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의료기관별 2008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설계가중치를 산출하도록 함.
- 단,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의료기관들 중 3개 의료기관은 산모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사 도중에 인근 유사 의료기관으로 대체되었고, 이 경우 원래 추출된 의료기관에서 모집된 산모

도 대체된 의료기관에서 모집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출확률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함.

- 이는 조사 중단 의료기관에서 구축된 패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추출확률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지나치게 작아짐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에서 모집된 산모의 경우 '1/병원 내 추출확률'로 부여되는 가중치가 극단적인 값을 갖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 경우, 대체된 의료기관은 같은 지역 내 위치한 유사한 성격의 의료기관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산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짐.
-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1차년도 표본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표본 신생아가구 수와 모집단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제시된 방식으로 계산한 가중치를 사용하기로 함.
 - 표본 신생아가구 추출과정에서는 원래 표본설계에서 의도한 병원별 표본 신생아 수 등이 실사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일부 변경되었음.
 - 그러나 설계 가중치를 산출하면서 실사과정에서 발생한 무응답, 응답거부 등에 따른 대체 및 결손 조정치(missing adjustment)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모수 추정

- 한국아동패널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함.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_{\dots}}$$

여기서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 제시된 가중치는 각 표본 의료기관에서 패널 모집기간 동안의 신생아만을 대상으로 표본 신생아 추출확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 자료를 기초로 각종 평균 추정에 있어서는 제시된 가중치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모집단 총계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시된 가중치를 일부 조정(연간 분만건수를 반영한 상수를 산출하여 곱함)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의 2008년도 출생아수 지역별 확정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년도 전체 출생아의 지역별·성별 구성비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사후추정방식에 의한 가중치 보정과정을 적용하였음.
 - 전국의 지역별 출생아수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별로 사용되었으며, 패널 아동의 출생 당시 거주지는 패널 모집기간에 의료기관에서 받은 패널의 집주소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음. 출생 당시 집주소가 누락된 일부 사례는 병원 주소를 기준으로 출생 당시 거주지를 산정함.
 -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에 지역별·성별 구성비를 고려한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함.
- 위 제시한 방식에 따라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여 부여한 결과는 다음 <표 II-2-1>과 같음.
 - 사례별 가중치의 합은 약 440,000명으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모집단을 대표함.
 - 최종 가중치의 평균은 211.87, 표준편차는 121.22이며 최소값은 37.71, 최대값은 819.14로 나타남.

〈표 II-2-1〉 최종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최소값	최대값
사례별 가중치	211.87	121.22	2078	37.71	819.14

□ 2차년도 일반조사 자료 가중치 보정

-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주기가 진행되면서 표본 마모가 누적되는 동시에 무응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결함이 생기게 됨. 따라서 2차년도부터는 무응답 및 표본마모(sampling attrition) 등에 따른 편향을 보정할 수 있는 무응답 보정 및 사후가중치 조정 방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필

요함.

- 이를 위해 1차년도 조사 자료의 에디팅이 끝나는 10월 이후 조사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응답 처리 및 가중치 보정 작업을 실시함.

3. 1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 아동 특성

-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출생순위
- 건강관련 특성: 신생아 건강의 주요 지표인 체중, 신장, 두위 및 예방접종 여부
- 기타 특성: 출산 이후 형성된 기초습관과 모유수유 실태, 기질 등
- 아동 발달 전반에 관한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한국형 덴버II와 K-ASQ (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이루어짐.

□ 부모 특성

-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과 그 외 건강 및 심리적 특성
 - 부모특성(공통문항): 건강 특성(음주, 흡연), 부부관계 변인(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특성 변인(양육신념, 양육실제,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 자녀 기대 등)
 - 어머니 특성: 개인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우울) 및 직업관련 변인
 - 아버지 특성: 근로시간 및 양육 참여 정도

□ 가족 특성

- 모든 가족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성과 그 외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함.
 - 가구원 개인특성: 성별, 연령, 국적, 결혼상태, 직업, 학력, 종교 등
 - 가구의 경제적 특성: 소득, 소비, 자산, 부채, 기초생활수급여부 등
 - 가족의 역사적·물리적 특성: 가족생활사건, 주택유형 및 소유형태

□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제반 특성을 조사함.
 - 보육서비스 이용: 개인대리양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및 이용 이유, 최초 대리양육 유형, 최초대리양육 이용시기 등
 - 개인 대리양육이용: 개인 대리양육자 특성(인구학적 특성, 관계, 알게 된 경로, 거주지 등) 및 대리양육 서비스 특성(이용기간, 이용시간, 비용, 동거여부, 이용만족도)
 - 보육시설이용: 보육시설 특성(보육시설 유형, 입지조건), 보육시설서비스 특성(이용기간, 이용시간, 비용, 등하원 시간, 이용만족도 등)
 - 기타 서비스 이용: 이용 프로그램 유형, 이용횟수, 이용시간, 비용 등

□ 지역사회 특성

- 가구가 속한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성(행정구역, 도시규모, 거주기간), 물리적 특성(동네 주변환경) 및 육아관련 특성(지역사회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사회 내의 가용 육아지원기관 등)을 살펴봄.

□ 육아지원정책 특성

-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패널가구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4. 자료 처리 및 분석

□ 일부 문항에 대해 조사 후 코딩 실시

- 보육시설 설립유형 및 대상별 시설유형
 - 아동이 이용 중인 보육시설의 설립유형과 대상별 시설유형을 부모가 잘 모르는 경우, 면접 당시 기입한 보육시설 이름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설립유형을 사후 코딩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는 보육시설 이름과 소재지에 대해 물은 후 이를 바탕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해당 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코딩한 변수를 생성함.
-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의 경우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응답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서비스 형태를 정하는 대신 조사 후 답변 내용을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코딩함.
- 부모의 직업형태
 - 부모의 직업은 통계청의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소분류(3자리)까지 코딩하였음.
 - 직업분류는 전문 코더에게 용역 의뢰하여 작업을 실시함.
 - 질문에 대한 응답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소분류까지 분류가 불가능한 일부 사례의 경우, 대분류 또는 중분류까지만 분류를 실시함.
 - 2차년도 직업문항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충분히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예시 등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1차년도 직업(직종 또는 직위)의 변동사항을 먼저 점검한 후 답변하도록 설계함.

□ 자료의 점검과 에디팅

- 면접조사의 경우 CAPI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설계상 다음과 같은 에러 체크(error checking) 과정이 포함됨.
 - 스킵 에러(skip error) 방지: 응답 내용에 따라 문항 경로가 달라지는 브릿지 문항의 경우, 응답별 문항 경로 설정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스킵 에러를 방지함.
 - 앞-뒤 문항 간 일관성 검토: 사전에 문항간 로직을 설정하여, 앞 문항에서 답변한 내용이 이후 문항의 답변 내용과 일관되지 않은 경우 문항 간 불일치성을 확인하도록 경고창을 띄움.
 - 입력 오류 최소화: 주관식 답변의 응답범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응답범위가 아니거나 정상치를 크게 벗어난 경우 이를 확인하도록 경고창을 띄우거나

(soft check)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hard check) 조치함.

- 무응답 결측치의 최소화: 문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조사원이 무응답/모름/해당없음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무응답 결측치를 최소화함.
- CAPI로 조사된 자료는 DB로 전환되어 우편조사 자료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자료 클리닝 과정을 거침.
- 우편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 과정 및 이후의 자료 처리(자료의 코딩 및 편칭작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우편조사로 이루어진 질문지의 경우 응답 및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에디팅 과정을 거침.
 - 1차적으로 실사업체에서 기본적인 자료 클리닝 작업을 실시함.
 - 실사업체에서 보내준 자료에 대하여 연구진이 직접 문항 간 일관성, 응답범위, 문항경로, 무응답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에러 체크가 이루어짐. 이 과정은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실사업체를 통한 원자료 확인, 응답내용 확인을 위한 전화조사, 관련 유사 문항의 응답 내용 확인, 동일 문항에 대한 2차년도 응답 내용 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함.
 - 거부자용 질문지의 경우 특히 자료에디팅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전체 자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따라 2차년도 조사에서는 거부자용 질문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

□ 자료분석

- 분석시기: 1차적인 에디팅이 완료됨에 따라 10월부터 자료분석을 실시함.
 - 자료의 에디팅은 자료분석 과정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에디팅 작업은 자료공개 직전까지 지속될 예정임.
 - 따라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기술분석 결과는 문항에 따라 최종 공개자료의 기술분석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석의 내용: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항에 따라 전체 분석결과와 더불어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학업 중이라고 답한 사례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별도의 분석이 불가능하며, 학업모도 대리양육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취업모와 특성이 유사할 것이라고 여겨져 취업모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자료: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 가중치를 적용한 이유는 한국아동패널의 예비표본은 2008년 4월~7월 중에 태어난 신생아들로 구축되었으나, 본 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에 태어난 신생아 전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기 위한 것임.
 - 무응답 결측치의 경우 결측자료의 대체(imputation)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항목별로 무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고 일부 항목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밀한 무응답 대체 작업을 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결측이 무작위(random)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ignorable nonresponse)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기로 함.
 - 향후 아동패널데이터가 축적된 후 결측치 대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추가로 작업할 예정임.
- 통계 프로그램: SPSS 12.0 또는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함.

Ⅲ. 2차년도 일반조사

1. 2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 개요

- 2차년도 일반조사는 1차년도 일반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되, 임신 및 출산 관련 문항 등 불필요한 문항들은 삭제하고, 아동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문항들이 일부 추가되었음.
- 특히 어머니의 직장 복귀 및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기존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문항에 대리양육자(개인 및 보육시설) 교체 횟수 및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기관/시설 이용 계획을 추가로 조사하였음.
- 또한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인 K-ASQ와 한국형 덴버II, 기질 및 기초생활습관 등의 척도들은 아동의 연령에 맞게 문항이 수정되었음. 1차년도와 2차년도 문항의 조사변인 변경에 따른 개요는 다음 <표 Ⅲ-1-1>과 같음.

<표 Ⅲ-1-1> 2차년도 일반조사 문항의 변경사항

영역	2009년도 삭제문항	2009년도 추가문항
아동특성	산모신장, 체중, 재태기간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병력,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유전병
부모특성	임신 및 출산관련 느낌 현재 임신의 계획 여부 부모교육(교육여부, 교육내용, 교육기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사람
가족특성	가구원 특성 일부(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지위, 근로시간, 종교)	가구원의 소득활동 여부 양육에 대한 비대가성 지원 자원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없음	대리양육자 교체횟수 향후 기관/시설 이용 계획
육아지원 정책	없음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출산계획 양육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출산계획 및 걱정 지원금액

주: 일부 변인의 경우 아동의 성장에 따라 문항이 수정됨.

□ 아동 특성

- 개별 아동 특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출생순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의 주요 지표인 체중, 신장, 두위 등과 함께 병력, 장애진단 여부,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 유무,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표 III-1-2 참조).
- 연령에 적합한 기초습관과 모유수유 실태, 기질 등의 특성을 조사함. 이들 변인은 1차년도 일반조사에도 포함되었으나,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문항이 연령에 적합하도록 수정됨.
- 아동 발달 전반에 특성은 표준화된 검사인 한국형 덴버II와 K-ASQ를 사용하여 이루어짐.

〈표 III-1-2〉 아동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출생순위		
	건강 특성	체중, 신장, 두위		
		병력,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유전병		2009년도 추가문항
		예방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표 (보건복지부, 2007)	
	모유수유		2008년도 조사 시 모유수유 중으로 응답한 가구 대상	
발달 특성	발달 전반 I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K-ASQ ¹⁾	
	발달 전반 II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한국형 덴버 II	
	기질	정서성, 활동성	EAS Temperament Survey* (Buss et al., 1984)	
일과 활동 특성	기초 습관	수면, 수유, 배변/씻기	Developmental Profiles: Daily Routines (Allen et al., 2003)	

주: 1) K-ASQ: 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 EAS: Emotionality, Activity & Sociability

□ 부모 특성

- 직업 변인(취업/취학 상태, 직종, 직위 등)을 포함한 인구학적 변인과 건강 특성(음주, 흡연), 부부관계 변인(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양육특성 변인 중 일부(양육신념, 자녀기대 등)는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어머니 특성은 부모 모두에게 묻는 공통변인 외에 개인 심리 특성(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우울)과 향후 출산계획, 추가적인 직업 관련 변인 및 양육특성 변인(양육지식, 양육실제, 양육스트레스 등)을 포함함.
- 아버지 특성은 근로시간 및 양육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조사함.
- 변인별 조사항목 및 도구는 <표 III-1-3>과 같음.

〈표 III-1-3〉 부모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생년월일		부모 모두 응답	
		직업, 직위			
		종교, 국적, 귀화 여부			
		결혼상태, 결혼시기			
	건강 특성	음주		보건복지부(2005)	부모 모두 응답
		흡연		FND Test ¹⁾ (Fagerstrom et al., 1991)	
부모됨	향후 출산계획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2009년도 추가문항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됨의 태도	자녀 가치	이삼식 외(2005)	부모 모두 응답	
양육 특성	양육실제	양육스타일	PSQ ²⁾ (Bornstein et al., 1996)		
	양육지식	양육지식	KIDI ³⁾ (MacPhee, 2002)		
	양육신념	양육신념	EVS Foundation(2008) ⁴⁾	부모 모두 응답	
	자녀기대	자녀기대	NWEC(2007) ⁵⁾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김기현 외(1997)		
아버지 특성	근로시간	아버지 근로시간			
	자녀양육 참여	아버지 양육 참여 정도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어머니 특성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Pearlin Self-Efficacy Scale (Pearlin et al., 198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Rosenberg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86)		
	우울	우울	K6 (Kessler et al., 2002)		
	직업계획	출산시 직업·학업 계획			
		출산후 직업·학업 상태			
	직업특성	휴직여부, 근로복귀시기, 근로중단이유, 근로시간, 직업/직무만족도, 향후 직업계획			취업모용
		휴학여부, 휴학시기, 학업복귀시기/학업중단이유, 학업시간, 향후 학업계획			학업모용
취업·학업 경험 여부, 중단시기, 중단이유, 향후 직업·학업계획			미취학· 미취업모용		
부부 관계	결혼 만족도	결혼만족도	RKMSS ⁶⁾ (Chung, 2004)	부모 모두 응답	
	부부갈등	부부갈등	부부갈등 척도 (Markman et al. 1994)	부모 모두 응답	
기타	조사대상 오염	검사결과보고서 조회 여부		조사 후 코딩	

주: 1) FND test: Fagerstrom's Nicotine Dependence test
 2) PSQ: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3) KIDI: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4) EVS Foundation: European Values Study Foundation
 5) NWECC: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6) RKMSS: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 가족 특성

- 모든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소득활동 여부, 학력 등을 조사함(표 III-1-4 참조).
- 대상 아동이 타가구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위탁된 가구의 가구원에 관한 인구학적 특성 또한 조사함.
- 부모를 제외한 가구원의 종교 및 국적은 1차년도에는 포함되었으나 2차년도

에는 제외됨.

-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소득, 소비, 자산, 부채, 기초생활수급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밖에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주택유형 및 소유형태 등을 조사함.
- 가족의 기타 특성으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족생활사건 등을 조사함.
- 단, 2006년도 모형개발에 따르면 대상 아동이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생부 또는 생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생부와 생모를 조사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질문지 개발 과정에서 제외함.

〈표 III-1-4〉 가족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개인 특성	가구원별 인구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수	김미곤 외(2006)	
		성별, 연령, 학년	서문희 외(2005)	
		소득활동 여부	유한구 외(2005)	
		학력	유한구 외(2006)	
		건강특성	이경상 외(2006)	
		대상아동과의 관계	이삼식 외(2005)	
경제적 특성	가계 경제요소	소득	유한구 외(2006)	통계청(2000, 2006)
		지출		
		자산		
		부채		
역사적 특성	가족 생활사건	규범적 사건	FILE ¹⁾	(McCubbin et al., 1982)
		비규범적 사건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도구적, 정서적, 여가적, 정보적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에 한함.
	양육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비대가성 지원 자원 유무		
물리적 환경	주거 특성	주택 유형	서문희 외(2005)	
	주거 안정성	주택 소유형태		
사회보장지원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 수급 여부		

주: 1)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 대리양육 이용과 관련된 제반 특성을 조사함(표 III-1-5 참조).
 - 대리양육은 낮 시간 동안 부모 대신 타인이 아동을 주로 돌보는 것으로, 대리양육자는 주중의 낮 시간 동안 부모 대신 아동을 가장 오랜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정의됨. 이에 따라 조부모, 기타 친인척의 혈연 관계 외에도, 유급·무급 도우미, 보육시설 등의 교사 등이 모두 포함됨. 특히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의 경우는 주중에 해당하는 3일 동안 만나질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만 포함하였음.
 - 아동의 출생 후 조사 시점까지 이루어졌던 월별 개인대리양육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이유, 이용 중인 대리양육의 유형, 대리양육자(보육시설 포함) 교체 횟수 등을 조사함.
 - 개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 중인 개인 대리양육자 특성(인구학적 특성, 관계, 알게 된 경로, 거주지 등) 및 대리양육 서비스 특성(이용기간, 이용시간, 비용, 동거여부, 이용만족도)을 조사함.
 - 단, 자녀를 대리양육하는 가구 중 1세 아동이 주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기관/시설은 보육시설이 유일하므로, 이용 중인 보육시설 특성(보육시설 유형, 입지조건)과 보육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특성(이용기간, 이용시간, 비용, 등하원 시간, 이용만족도 등)만을 조사함.
- 대리양육 외의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현황을 조사함.
 - 대리양육 외의 기타 서비스는 주기적 이용 여부로 판단됨.
 - 단, 단위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주 3회 만나질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대리양육으로 간주되므로, 기타 서비스는 주 2회 이하만이 해당됨.⁸⁾
 - 기타 서비스의 경우 이용 프로그램명과 내용, 장소, 진행 방식,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 기간, 이용 비용 및 학습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함.
- 기관/시설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 조사함.

8) 예를 들어 한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로 다른 3개 프로그램을 주 1회씩 이용하는 경우 이용 프로그램은 3개로 코딩되어 기타 서비스에 해당함. 그러나 놀이학교를 주 3회 이용하는 경우는 대리양육에 포함됨.

- 조사시점부터 취학 전까지 향후 육아지원기관을 포함한 각종 기관 및 시설 이용계획을 월별로 조사함. 여기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에 유아대상 영어학원, 놀이학교, 선교원, 예체능 학원 등이 모두 포함됨.

〈표 III-1-5〉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영역	변인	항목	비고
주 양육자	육아지원 이용 여부	주 양육자	
	육아지원 이용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개인 대리 양육	개인 대리양육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	
		관계, 알게 된 경로	
	개인 대리양육 서비스 특성	이용기간, 이용시간, 바뀐 횟수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대리양육 이용 만족도	
육아지원 기관	보육시설 특성	보육시설 설립유형, 대상별 유형, 평가인증 여부	조사 후 코딩
		보육시설 입지조건	
	보육시설 서비스 특성	이용기간, 이용시간, 바뀐 횟수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이용 프로그램 유형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특성	프로그램명, 진행방식, 프로그램 내용, 장소,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참여기간	
기관/시설 이용 계획	향후 이용계획	향후 이용계획	2009년도 추가문항임. 유아대상 영어학원, 놀이학교, 선교원, 예체능 학원 등 포함.

□ 지역사회 특성

- 가구가 속한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성(행정구역, 도시규모, 거주기간), 물리적 특성(동네 주변환경) 및 육아관련 특성(지역사회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사회 내의 가용 육아지원기관 등)을 살펴봄(표 III-1-6 참조).

〈표 III-1-6〉 지역사회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영역	변인	항목	비고
일반적 특성	가구 소재지	시·도	조사 후 코딩
		도시규모	
	거주 기간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 시기	
물리적 특성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동네 주변특성	위탁가구대상 질문지에 포함
육아 관련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유치원, 보육시설, 기타 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여가시설, 문화시설, 치안, 안전	

□ 육아지원정책 특성

-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육아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패널가구의 의견을 조사함(표 III-1-7 참조).

〈표 III-1-7〉 육아지원정책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2009)

영역	변인	항목	비고
육아 지원 정책	정책의 방향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휴가 및 휴직	
		보육지원	
		모성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대리 양육 시 가장 중요한 점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의 방향	
		육아 관련 재정 지원 여부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휴가 및 휴직	취업모용
		보육지원	
		모성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재정 지원 관련 정책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2009년도 추가문항임	
	양육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출산계획 및 적정 지원금액		

2. 2차년도 일반조사 방법

□ 조사 도구

○ 어머니 대상 질문지

-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아동의 양육 경험, 부부관계 및 가족 관계에서 겪는 경험, 인식, 태도 등 어머니 자신만이 응답할 수 있는 내용과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사건 등 면접 상황에서 조사원에게 응답하는 것을 꺼릴만한 문항으로 구성됨.
- 이혼, 사별 등으로 새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 새어머니가 응답자가 됨. 반면, 이혼, 사별 이후 어머니가 가구 내에 없는 경우 아버지 또는 주양육자가 응답 가능함. 단,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육아도우미 등의 비혈연 피고용인은 제외됨.
- 아버지 또는 주양육자가 응답하는 경우, 어머니의 심리특성 등 어머니로서 응답해야 하는 문항은 건너뛰고 주로 아동의 양육 경험 위주로 해당문항만을 응답하도록 질문지를 설계함.

○ 아버지 대상 질문지

- 아버지의 습관 관련 변인과 아버지만의 태도 또는 지각 등이 요구되는 양육 관련 변인 및 결혼만족도 변인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됨.

○ 면접조사용 질문지

- 1차년도 수행 결과 가구원대상 질문지와 위탁가구원대상 질문지⁹⁾는 별도의 질문지로 제작하여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따라 2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에는 1차년도 가구원대상 질문지와 위탁가구원대상 질문지 문항이 포함되었음.
- 조사 대상 아동의 대리양육 이용여부의 핵심 요인이 되는 어머니 취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제반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과 각 가구원 및 위탁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됨.

9) 어머니의 취업이나 학업,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상 아동을 조부모 등의 친지에게 위탁 양육하는 경우, 위탁된 가구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작된 질문지임.

- K-ASQ
 - K-ASQ는 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의 5개 영역에 걸쳐 각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형 덴버 II
 - 한국형 덴버 II 검사는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걸친 문항에 대해 적목, 킵, 공 등의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함.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면접조사: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아동의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CAPI 방식으로 이루어 짐.
 - 우편조사: 어머니대상 질문지와 아버지대상 질문지를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조사원이 가구 방문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수거함¹⁰⁾.
 - 1차년도에는 면접조사용 질문지, 어머니대상 질문지 및 가구원대상 질문지 가운데 주요 문항들만을 발췌하여 면접조사를 거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로 사용하였으나, 거부가구대상 질문지를 사용하여 획득한 자료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에디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1차년도에 거부가구대상 질문지에 응답한 가구 중 일부는 2차년도에도 면접조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2차년도 조사에서는 거부가구 질문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2차년도에 실시되는 설문조사의 개요 및 특징을 1차년도에 기 실시된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의 <표 III-2-1>과 같음.

10) 아버지대상 질문지의 경우 1차년도 조사에서는 수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방식의 수거를 허용하였으나, 실제로 어머니대상 질문지 수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부분 수거되었으므로, 기타에서 제외되었음.

〈표 III-2-1〉 한국아동패널 설문조사의 개요

질문지 유형	주응답자	주요 자료 수집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비고
병원용 질문지	어머니	병원방문 면접조사	✓		
전화조사용 질문지	어머니	전화조사	✓		
어머니대상 질문지	어머니	우편조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사별 등으로 새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 새어머니가 응답자임. 이혼, 사별 등으로 어머니가 가구 내에 없는 경우 아버지 또는 혈연 관계의 주양육자 응답자임.
아버지대상 질문지	아버지	우편조사	✓	✓	
면접조사용 질문지	어머니	가구방문 면접조사	✓	✓	
가구원대상 질문지	어머니	가구방문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조사용 질문지에 포함하여 실시함.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어머니	가구방문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조사용 질문지에 포함하여 실시함. 대상 아동이 타 가구에 위탁된 경우만 실시함.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어머니	우편/유치/전화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년도 조사결과, 자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응답패널의 면접조사 거부 등이 우려되어 2차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 검사

-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K-ASQ와 한국형 덴버 II의 선별 검사 2종이 실시됨. 단,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문항은 해당 연령에 맞게 새롭게 구성됨.
 - K-ASQ: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의 자기보고식 응답을 면접용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조사원이 CAPI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함.
 - 한국형 덴버 II: 훈련된 조사원이 검사지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아동의 집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함.

- 검사 실시 후 3주 내에 각 아동의 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보고서가 웹보고서의 형태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게시됨.

3. 2차년도 일반조사 절차

□ 조사 일정: 2009년 6월~10월 (조사대상 아동이 생후 만14개월 이후 시점부터)

○ 조사기간 연장

- 원래 일반조사 일정은 심층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일반조사 완료 가구만을 대상으로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을 받음) 9월 이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방문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들 가구의 경우 가구방문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심층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가급적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 이전에 일반조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함.
- 패널 탈락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패널조사를 거부하지 않는 패널에 대해서는 심층조사와 관계없이 조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

□ 조사준비 과정

- 1차년도 조사결과 가운데 2차년도 질문지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일부 문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
- 2차년도 질문지 확정: 1차년도 질문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아동의 발달 및 가족구조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차년도 질문지 내용 확정
- 면접조사를 위한 CAPI 프로그램 개발: 질문지 CAPI 전환 및 문항 간 로직 설정, 1차년도 답변과 2차년도 답변 내용 간 로직 설정
- 2차년도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본조사 실시 이전에 2차년도 질문지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 및 수정된 문항에 대해 동일 연령대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 조사원 훈련: 질문지 문항 설명 및 CAPI 활용방법, 발달검사에 대한 조사원 훈련이 6월 10일~12일 사흘에 걸쳐 서울, 대구, 대전에서 각각 이루어짐. 조사

원 훈련의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III-3-1 참조).

〈표 III-3-1〉 패널 조사원 훈련 일정 및 내용

훈련일시	장소	대상지역	훈련 내용
2009. 6. 10	서울	서울·경인지역	1부: 한국아동패널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각 질문지별 문항 설명
2009. 6. 11	대구	경남·경북지역 (대구, 부산 포함)	2부: 덴버 II 검사자 훈련 및 훈련용 DVD 시청, K-ASQ 검사 관련 설명
2009. 6. 12	대전	충청·강원·전라지역 (대전, 광주 포함)	3부: CAPI 시스템 활용법 훈련

□ 실사과정

-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 각 패널별로 본조사 시작 시점 2주 전에 어머니대상, 아버지대상 질문지 및 한국아동패널 조사 안내문 1부, 발달검사 홍보 리플릿 1부, 출산과 육아 리플릿 1부 우편발송
- 가구방문일정 협의 및 확정: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 1주일 후 질문지 수령 여부 및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조사원이 개별연락 실시
 -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전화연락을 했을 때, 이사 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해당면접원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는 곧바로 실사 사무소의 수퍼바이저에게 통보하여 다른 지역 면접원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가구방문조사: CAPI 방식을 활용한 면접조사 및 아동대상 발달검사 실시, 우편발송되어 기 응답된 질문지 수거
 - 가구방문 조사 시, 향후 실시될 예정인 심층조사에 대한 정보 제공
- 발달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배포: K-ASQ와 한국형 덴버 II의 검사결과를 검사 수행 3주 후부터 참여패널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조사원 간담회 실시

- 일반조사 완료 후 조사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2010년도 3차 조사계획 시 고려할 점, 3차년도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실

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원 및 실사업체의 연구협력진과 함께 조사원 간담회를 실시함.

- 간담회는 총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서울 지역 간담회의 경우 전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일정이 겹친 경우에는 연구진이 나누어 참여함. 조사원 간담회의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III-3-2 참조).

〈표 III-3-2〉 패널 조사원 간담회 일정 및 내용

일시	장소	대상지역	간담회 내용
2009. 11. 3	서울	서울·경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년도 조사진행 시 애로사항 • 패널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3차년도 조사계획 시 고려할 점 • 3차년도 조사일정에 대한 의견 • 패널 조사원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2009. 11. 6	부산	경남·경북지역 (대구, 부산 포함)	
2009. 11. 6	광주	충청·강원·전라지역 (대전, 광주 포함)	

- 간담회 내용은 주로 2010년도 조사시기와 효과적인 패널 유지 활동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
 - 2010년도 조사시기는 휴가철(7월 중순~8월 중순)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위해 늦어도 5월에는 조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하였음.
 - 효과적인 패널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면접원 교체를 최소화하여 패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패널의 변경 사항(이사, 이혼 및 재혼 등)에 대해 담당 면접원이 잘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이를 위해 담당 면접원의 명함을 작성,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음.
 - 아동이 커가면서 패널들이 면접원에게 육아지식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음. 최소한의 전문적인 응대가 가능하도록 면접원 교육 때 육아상식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사 시에 아동 월령에 맞는 간단한 육아상식 책자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됨.
 - 1차년도 일반조사에 비해 직장에 복귀한 어머니가 많아 취업모의 경우 조사 일정을 잡기가 힘들었으며, 향후 아동들의 육아지원 기관 이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조사성공률 및 원표본 유지율

□ 2차년도 조사 성공률

-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 수는 총 1,904명이며, 이 중 발달검사는 덴버 II는 1,896명, K-ASQ는 1,903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됨.
 - 발달검사는 어머니가 검사를 강력히 거부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덴버 II와 K-ASQ를 모두 실시하지 않은 패널은 1명이며, 7명은 K-ASQ만 실시함.
- 따라서 1차년도 대비 조사 성공률은 약 91.6%이며, 전체 패널 기준 조사 성공률은 74.3%임.
 - 조사에 응하지 않은 패널을 대상으로 거절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냥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음(표 III-4-1 참조).

〈표 III-4-1〉 패널 조사 거절 이유

조사 거절이유(2차년도)	비율(빈도)
그냥 귀찮아서	49.2(217)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	17.2(76)
매년 이렇게 연락오는 것이 싫어서(지겨워서)	8.8(39)
조사(또는 조사원)에 대해 믿을 수가 없어서	0.2(1)
남편, 시부모님 등 가족들이 싫어해서	2.0(9)
아동의 컨디션(건강)이 나빠서	0.5(2)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0.9(4)
기타(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외국 체류 등)	21.1(93)
계	100.0(441)

□ 원표본 유지율

- 전체 패널의 연차별 원표본 유지율은 다음 <표 III-4-2>와 같음.
 - 병원조사시 구축했던 예비표본 2,562명 중 1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2,078명으로 예비표본의 81.1%에 해당함.
 -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표본은 1,904명으로 1차년도 조사완료 패널 대비 91.8%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예비표본의 74.3%에 해당하는 수치임.

〈표 III-4-2〉 1차년도 및 2차년도 패널의 원표본 유지율

조사연도	참여패널 수	예비표본 대비 유지율	전년 대비 유지율
예비표본 구축시	2,562	-	-
1차년도	2,078	81.1%	-
2차년도	1,904	74.3%	91.6%

□ 2차년도 표본 유실률

○ 권역별 표본 유실률

- 2차년도의 표본 유실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 패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울/경인 지역의 유실률이 1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남권, 경북권의 순이었음. 충청/강원권은 1차년도 대비 패널 유실률이 0%임. 이는 일부 패널이 탈락하였으나, 예비표본에서 탈락한 패널이 재진입하기도 해 결과적으로 1차년도와 동일한 패널 수가 유지된 것으로 보임.

〈표 III-4-3〉 2차년도 권역별 패널 유실률

권역 구분	예비표본	1차년도 성공	2차년도 성공	2차년도 유실률
서울/경인권	1,236	992	879	11.4%
경남권	437	349	320	8.3%
경북권	296	240	221	7.9%
충청/강원권	316	271	271	0.0%
전라권	277	226	213	5.8%
계	2,562	2,078	1,904	8.4%

주: 1) 병원구축 기준은 병원소재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며, 2008년 패널은 병원조사시 조사된 패널의 집주소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2) 2009년 성공패널의 지역 기준은 2009년 현재 지역이 아닌 2008년 지역으로 기준으로 하였음.

○ 지역규모별 표본 유실률

- 2차년도 패널에서 지역규모에 따른 표본 유실률의 차이를 보면, 도시지역의 유실률이 읍/면 지역의 2배 이상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패널 유실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 패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표 III-4-4〉 2차년도 지역규모별 패널 유실률

지역규모	예비표본	1차년도 성공	2차년도 성공	2차년도 유실률
대도시	1,072	830	752	9.4%
중소도시	983	834	757	9.2%
읍/면	507	414	395	4.6%
계	2,562	2,078	1,904	8.4%

IV. 제1차 심층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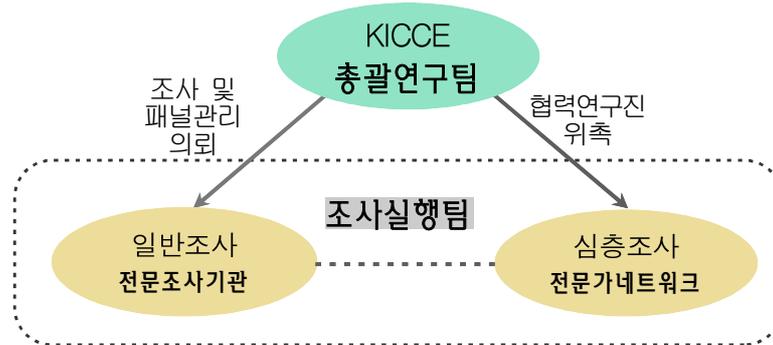
1. 심층조사 개요

□ 심층조사의 필요성

- 영아기는 신체 및 운동, 언어, 인지, 사회·정서 등 모든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1년에 한 차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패널 조사로 아동의 발달결과를 포착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음. 이에 동기간동안 아동의 발달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더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패널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영아기는 자아를 형성하고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과 아동의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민감기에 해당하는 변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요구됨.
- 또한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는 대규모 조사의 특성상 일반조사기관의 조사원을 활용하며, 이로 인해 조사 설계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도구를 선정하고 문항을 구성하였음. 이 경우 조사의 편의성 및 자료의 객관성은 높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이 불가함. 이에 전체 패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전문성이 보장되는 조사원을 활용한 심층조사 수행을 통해 아동의 발달 상태 및 주변 인적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

□ 심층조사의 운영 체계

- 전문성을 갖춘 전공자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심층조사의 특성상 일반조사와는 차별되게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거점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들을 협력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점대학의 전문가 또는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활용함(그림 IV-1-1 참조).



[그림 IV-1-1] 한국아동패널 조사 체계도

□ 심층조사 내용

○ 발달 전반

－ 변인 선정 이유

-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대한 정보를 단일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2차 자료로서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필수적임.
- 특히 선별검사보다는 진단평가검사에 속하는 도구로, 검사결과 상 발달지수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이 요구됨.

－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 영아의 각 발달영역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 제2판(Korean-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K-BSID II)을 사용함.
- K-BSID II는 다수의 발달검사 중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검사로서, 한국형으로도 최근 표준화되어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공하는 도구임.
- 특히 K-BSID II의 경우 잠재적인 위험군 집단을 발견해주는 선별적인 기능 이외에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평가 도구임. 즉, 검사결과 상 발달지수를 제공함으로써 2차 자료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구 특성

- K-BSID II는 3가지 척도, 즉 인지척도, 동작척도, 행동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인지척도와 동작척도는 영아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개인-사회성 발달, 대·소근육 운동발달 수준을 평가하며 행동평정척도는 검사과정 동안 아이의 행동을 평가하여 인지척도와 동작척도의 해석을 용이하게 함.

○ 애착

– 변인 선정 이유

- 애착은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로서, 이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기저가 됨.
- 영아기 애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조사에서는 수집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일반조사에서는 제외되었음. 이에 심층조사를 통해서 조사되는 것이 요구됨.

–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 기존의 애착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어 온 낯선상황 실험은 실험실이라는 인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제약과 질적인 분류체계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 이에 개인차를 볼 수 있는 Q-set로 대표되는 애착유형분류가 Waters와 Deane(1985)에 의해 개발된 이후 낯선 상황 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음.
- 특히 Q-set는 낯선상황실험과 같이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질적 분류보다는 양적인 개인차를 알고자 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되므로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도구로서 적합함.

– 도구 특성

- Waters(1987)에 의해 개정된 Q-set는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9점까지 분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각 항목은 특정 영역의 성격, 태도,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맥락에서의 행동이나 특정한 행동들을 다루고 있음.
- Waters의 개정판 Q-set를 토대로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한국형 애착 Q-set 개발(이영 외, 1997)이 이루어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많은 연

구에서 사용되고 있음.

- 국내 안정성 준거점수를 이용하여 살펴본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36(SD=.20), 범위는 -.30~.74이었고, 미국의 애착 안정성 준거점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평균은 .34(SD=.20), 범위는 -.34~.68로 나타남(이영 외, 1997).

○ 기질

– 변인 선정 이유

- 영유아의 기질은 개인의 발달에서 환경과의 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 특히 영아기는 기질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영아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 발달 경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함.

–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 최근 기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Rothbart는 새로운 기질 척도를 고안하였는데, 발달 단계별로 영아기(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 유아기(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 아동기(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CBQ), 성인기(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ATQ)에 걸친 기질 척도를 개발한 바 있음.
- 상기 도구 중 IBQ 또는 IBQ-R은 3개월~12개월 영아에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고 ECBQ의 경우는 18~36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된 도구임. 이에 Rothbart(2006)는 양 도구의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2~18개월 영아의 경우는 ECBQ 사용을 권하고 있음.
- 본 심층조사의 대상은 2008년 4월~ 7월에 출생한 아동으로 심층조사 시기인 2009년 10월경에는 최소한 12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ECBQ가 사용됨.
- ECBQ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질 척도라는 점 외에 동일 저자에 의한 척도가 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까지 존재하므로 추후 조사대상자가 아동기 때 이루어질 심층조사 결과와의 연계성까지 볼 수 있다는 이점을 고려하였음.

– 도구 특성

- ECBQ는 Putnam, Garstein 및 Rothbart(2006)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질 도구로서 18개의 척도로 구성된 20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18개의 척도는 활동수준(Activity Level/Energy), 주의집중(Attentional Focusing), 주의전환(Attentional Shifting), 밀착성(Cuddliness), 불편감(Discomfort), 두려움(Fear), 분노 좌절(Frustration), 강한 기쁨(High-intensity Pleasure), 충동성(Impulsivity), 억제 통제력(Inhibitory Control), 낮은 기쁨(Low-intensity Pleasure), 활동성(Motor Activation),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접근 기대(Positive Anticipation), 슬픔(Sadness), 부끄러움(Shyness), 사회성(Sociability), 반응진정성(Soothability)으로 구성되어 있음.
 - ECBQ를 이용하여 진행된 국내 연구로는 김민화·곽금주·성현란·심희옥·장유경(2003)의 연구가 있으며 현재 국내 타당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어머니 특성
- 변인 선정 이유
 - 영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감.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이 반영되며, 어머니는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주양육자의 특성이라 여겨지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검사 내용이 조사에 포함됨.
 - 심층조사의 변인들 대부분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어 영아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요인으로 어머니 특성이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됨.
 -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 어머니 특성 중 어머니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를 사용함. PAI는 Morey(1991)가 제작한 객관형 성격검사로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34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김영환·김지혜·오상우·임영란·홍상황(2001)에 의해 표준화되었음. 일반적인 성격검사들이 정신병리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고 정상인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는 다소 제한적인 반면 PAI는 두 장면에서 모두 유용함. 또한 임상 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인 MMPI는 검사가 개발된 지 너무 오래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체계에 적합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임상적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반면 PAI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

– 도구 특성

- PAI는 4개의 타당성척도(비일관성척도, 저빈도척도, 부정적 인상척도, 긍정적 인상척도), 11개의 임상척도(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공격성, 자살,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 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지배성, 온정성 척도)를 포함하고 있음.

2. 제1차 심층조사 방법

□ 심층조사 대상 선정

- 2차년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 중 200가구로 제한하며 중도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220명을 선정함.
 - 제1차 심층조사는 1차년도 조사 완료와 상관없이 예비표본 2,562가구 중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예비표본 2,562가구 중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여 표본으로 구축된 가구는 2,078가구이나, 종단연구의 특성상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484가구 중 2차년도 조사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제1차 심층조사 대상 선정은 1차년도 최종표본 2,078가구가 아닌 예비표본 2,562가구 중 2차년도에 실시되는 3종의 질문지 응답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단, 원활한 심층조사 계획을 위하여 200가구를 권역별로 배정하는 심층조사 대상 표본의 수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기준으로 함.
 - 한편, 1차년도에 시행한 K-ASQ와 덴버 I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위험군으로 선별된 아동을 심층조사에 우선 참여시키고자 해당 가구에 심층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심층조사 대상 선정은 2차년도 가구방문조사 완료 가구만을 대상으로 9월 중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icce.re.kr/panel>)를 통해 심층조사 신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이에 앞서 신청 대상자들에게 홈페이지 공지 및 휴대폰 문

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신청 접수 일정을 공지하였음.

- 홈페이지에 각 권역별 조사장소를 공지한 후 원하는 장소를 1, 2지망으로 나누어 신청하도록 하였음.
- 제1차 심층조사 수행을 위한 지역별 표본 배분은 다음 <표 IV-2-1>에 제시한 바와 같음.

<표 IV-2-1> 제1차 심층조사 표본 배분

단위: 명

권역	시/도	1차년도 최종표본		제1차 심층조사 표본	
수도권	서울	331	993	32	95
	경기	605		58	
	인천	57		5	
충청/강원권	충남	103	240	10	23
	충북	63		6	
	대전	74		7	
	강원	31	31	3	3
경북권	경북	95	240	9	23
	대구	145		14	
경남권	경남	116	348	11	34
	부산	132		13	
	울산	100		10	
전라권	전남	107	226	10	22
	전북	51		5	
	광주	68		7	
계		2,078		200	

□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15개시도(제주도 제외) 중 심층조사 대상 수 대비 협력연구진에 해당하는 거점 대학 수를 확인한 후 해당 권역 내 전문가를 확정함. 제1차 심층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구성된 지역별 전문가는 다음의 <표 IV-2-2>에 제시한 바와 같음.
-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 자문

- 해당 학과/센터 내에서의 심층조사 수행 총괄
- 해당 학과/센터 내에서의 검사자 확정 및 관리

〈표 IV-2-2〉 제1차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권역	학교/학과	지역 전문가	비고
서울/경인권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이경옥	
	이화여대 심리학전공	박성연	
	인하대 소비자 아동학과	이완정/양성은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허계형	
충청권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나종혜	공동연구진
	호서대 유아교육과	조성연	
경북권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김춘경	
경남권	부산대 유아교육과	정계숙	
	울산대 아동가정복지전공	박혜원	공동연구진
전라권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이숙	공동연구진
	전북대 아동학과	이영환	

주: 강원도는 지역전문가가 지정되지 않음.

□ 심층조사 검사자 훈련

- 심층조사는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 전공 대학원생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층조사 주요 수행 검사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음.
- K-BSID II는 「한국 Balyey 영유아발달검사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심층조사 검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워크숍을 참석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음.
 - K-BSID II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데 초급과정은 「한국 Balyey 영유아발달검사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중급과정은 검사자간 신뢰도 측정 등 심층조사에 적합하도록 보다 특화시켜 교육을 실시하였음.
 - 특히, 초급과정 이후 각 학교별로 심층조사 월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하게 한 뒤 검사장면을 동영상 파일로 미리 준비해 「한국 Balyey 영유아발달검사 연구회」에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K-BSID II 이외에 애착 Q-set, ECBQ, PAI 검사 실시 방법, 검사 보고서 작성 및 전반적인 심층조사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표 IV-2-3〉 제1차 심층조사 검사자 교육

구분	일시	장소	비고
K-BSID II 초급 과정	8. 8(토)~9(일) 8.22(토)	보육사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연구회 주관
검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9.23(토)	용산역 KTX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아동패널 소개 • 조사원 역할 및 유의사항 • PAI, Q-set, ECBQ 교육 • K-BSID II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검사자간 신뢰도 측정 및 슈퍼비전

□ 심층조사 방법

○ 도구

- 제1차 심층조사에서는 K-BSID II, 애착 Q-set, ECBQ, PAI의 네 개 도구를 활용함.

○ 자료수집 방법

- K-BSID II는 검사자 훈련을 거친 전문조사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방문하여 가구방문이 아닌 검사실에서 실시함. 단, 권역별 심층조사 대상 배정 시 그 수가 너무 적었던 강원권의 세 가구는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의 검사 장소 중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구방문을 통해 검사를 실시함.

〈표 IV-2-4〉 제1차 심층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변인	도구	자료수집 방법	비고
발달 전반	K-BSID II	아동 검사	검사실에서 실시
애착	애착 Q-set	어머니 면접	검사실에서 실시
기질	ECBQ	자기보고식 설문	유치조사로 실시
어머니 성격특성	PAI	자기보고식 설문	유치조사로 실시

- 애착 Q-Set는 K-BSID II 전후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함.
- ECBQ와 PAI는 사전에 질문지를 각 심층조사 대상 가구에 발송한 후 검사 당일 수거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제1차 심층조사 현황

□ 심층조사 대상 모집 결과

- 심층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한으로 인해 전체 패널의 10%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검사 환경의 제약으로 조사 대상자가 검사장소로 방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이에 심층조사를 원하는 패널을 우선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자가 220명을 초과할 경우¹¹⁾ 지역별 표본에 기초하여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IV-3-1〉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배정 현황

단위: 명

권역	지역	대학	최종 패널 수	선별 패널 수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총신대	27	4
		이화여대	60	9
		덕성여대	26	9
		인하대	20	4
		전남대 부설 센터(일산)	12	2
충청권	대전	한남대	7	1
	충북, 충남	호서대	7	1
경북권	대구, 경북	경북대	17	2
경남권	부산	부산대	12	2
	울산, 경남	울산대	12	0
전라권	광주, 전남	전남대	14	1
	전북	전북대	6	1
계			220	36

주: 선별된 패널은 1차년도에 시행한 K-ASQ와 덴버 II 검사에서 발달위험군으로 판별된 아동을 의미함.

11) 당초 계획되었던 조사대상의 10%(200명)에 조사 진행 중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산정함.

- 1차년도에 시행한 K-ASQ와 덴버 II 검사에서 발달위험군으로 판별된 아동은 36명 포함되었음.
- 위험발달군으로 선별된 패널 36명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표 IV-3-1> 참조.
- 2009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214명의 패널이 심층조사를 신청하였으며, 표본 할당에 미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6명을 추가 모집하였음.
- 심층조사를 신청한 패널이 220명에 못 미쳐 지역별 표본 분포에 부합하는 조사 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하여 신청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신청자가 집중되어 기 선정한 대학에서 조사기간 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부설센터를 조사기관으로 추가하였음.
-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 배정된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배정 현황은 <표 IV-3-1>과 같음.

□ 심층조사 진행

- 2009년 10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206건의 심층조사를 진행하여 전체 대상자 대비 93.6%를 완료함. 당초 탈락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초과 선정하였기 때문에 목표(200건)를 달성하였음¹²⁾.
- 유치조사용 질문지 발송(ECBQ, PAI) 및 검사일정 확정: 각 대학의 심층조사원은 담당 패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질문지 발송을 위한 주소 확인 및 검사일정을 확정하였음.
- 유치조사용 질문지 외에도 심층조사시 유의사항에 관한 부모 안내문(부록 5 참조)과 검사장소 방문을 위한 약도 및 검사자 연락처 등을 동봉하였음.
- 심층조사 참여 어머니는 우편으로 받은 질문지를 가정에서 작성한 후에 검사 당일 검사자에게 제출하였음.
- 검사장소에서 수행하는 조사는 애착 Q-set와 K-BSID II이며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동의 컨디션과 검사 당시 상황에 따라 검사 순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12) 대상자 일부는 신중플루를 우려한 조사 거절과 모의 둘째 출산 등으로 심층조사에 미참여함.

- 데이터 코딩 및 데이터 클리닝
 - 각 학교 검사자는 4종의 조사를 마친 후 미리 정해진 코딩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매주 목요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게 전송하였음.
 - 단, PAI는 분석용 데이터 코딩 외에 T점수 산정 및 결과해석을 위한 채점을 담당하였음. PAI 채점은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www.kops.co.kr; PAI 개발 연구소) 심리검사 채점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데이터 에디팅은 데이터를 송부 받는 즉시 확인하여 각 검사자와 연구진 간의 중복 확인을 거쳐 오류를 최소화하였음.
- 각 권역별 심층조사 월별 심층조사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V-3-2〉 제1차 심층조사 월별 진행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경인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전체	월별 누적 진행률
10월	54	13	7	17	6	97	44.1
11월	71	0	9	4	8	92	85.9
12월	10	1	1	0	5	17	93.6
계	135	14	17	21	19	206	-
표본수	145	14	17	24	20	220	-
성공률	93.1	100.0	100.0	87.5	95.0	93.6	-

주: 심층조사 수행 장소 기준이며, 실제 패널 거주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모 대상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

- 부모 대상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연구진이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음.
 - 단, K-BSID II는 검사과정 동안의 아동의 태도를 측정하는 행동평정척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 해석에 있어 객관적인 검사 결과 외에도 검사 수행에 대한 질적 평가, 행동관찰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박혜원·조복희, 2006) 검사의 특성상, 검사를 수행한 검사자가 직접 결과를 해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검사결과 보고서는 각 검사자가 송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작성하였음.
- 작성된 부모 대상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는 각 가정으로 우편을 통해 배송하였음.

V. 1차년도 기초분석¹³⁾

1. 분석 개요

가.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

- 한국아동패널의 분석은 신생아 패널이라는 본 패널의 특성에 맞추어 일반적 특성 외에 출산 및 양육 관련 특성, 아동발달 특성, 육아지원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이루어짐.
- 분석주제별 변인의 구성과 해당 질문지는 다음과 같음.
 - 신생아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V-1-1>과 같음.

<표 V-1-1> 분석주제별 구성 - 일반적 특성

대상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아동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출생순위	병원용
	건강특성	출생시 체중, 신장, 두위,	병원용
		생후 4개월 당시 체중, 신장, 두위, 출생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어머니대상
부모특성	인구학적 특성	부모 연령	가구원
		결혼상태, 결혼기간	병원용, 어머니대상
	부모의 건강특성	음주, 흡연 습관	아버지대상, 어머니대상
	아버지 근로특성	직업, 근로시간	가구원
	어머니 근로특성	출산시 직업·학업계획, 출산 후 직업·학업상태	병원용, 면접조사용
직업특성, 직업만족도		가구원, 면접조사용	

13) 기초분석의 내용은 모두 사례별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표집 및 가중치 부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각 문항별 표본의 응답빈도는 <부록 6>에 제시되어 있음.

대상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부모특성	어머니의 근로특성	주평균 근로시간	면접조사용
		직장(학업)복귀시기(계획)	면접조사용
		취업·학업중단 및 이직 사유, 취업 중단 시기, 취업 중단 사유, 향후 취업 계획	면접조사용
가구 및 가구원 특성	가구특성	가구원수, 다문화가족여부, 가구원 구성	가구원
	위탁가구 특성	자녀 위탁여부, 위탁가구와의 관계	위탁가구
	가구원 특성	취업실태 등	가구원
	경제적 특성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및 기초생활수급 여부	면접조사용
	주거관련 특성	주택유형 및 소유형태	면접조사용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성	거주기간, 입지적 특성	면접조사용

-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의 출산 시부터 병원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임신 및 출산 관련 변인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였음. 따라서 임신 및 출산 관련 특성은 1차년도 분석의 주요 주제가 됨(표 V-1-2 참조).

〈표 V-1-2〉 분석주제별 구성 - 출산 및 양육 관련 특성

대상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임신과 출산	임신관련 특성	산모 신장, 체중, 체중증가 임신방법, 재태기간, 임신관련 느낌	병원용
	출산관련 특성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출산관련 느낌, 모유수유	병원용, 면접조사용
	임신 및 출산 관련 기대	계획 임신 여부, 기대성별 기대자녀수, 후속 출산 의도 출산 중단 이유, 이상자녀수	병원용, 어머니대상
	부모교육	교육여부, 교육내용, 교육기관	면접조사용
어머니	긍정적 심리특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어머니대상
	부정적 심리특질	우울	병원용, 전화조사용, 어머니대상(3회 측정)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부의 결혼만족도	아버지대상
		모의 결혼만족도	어머니대상
	부부갈등	부가 인식한 부부갈등	아버지대상
		모가 인식한 부부갈등	어머니대상

대상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부모됨	자녀가치	부의 자녀가치	아버지대상
		모의 자녀가치	어머니대상
	자녀기대	부의 자녀기대	아버지대상
		모의 자녀기대	어머니대상
	양육신념	부의 양육신념	아버지대상
		모의 양육신념	어머니대상
	양육실제	모의 양육실제	어머니대상
양육지식	모의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	모가 인식한 양육 스트레스		
가족	남편의 양육참여	모가 인식한 남편의 양육참여	어머니대상
	가족생활사건	규범적 사건	어머니대상
		비규범적 사건	
사회적 지원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사교적	면접조사용	

- 발달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발달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과 질문지는 다음 <표 V-1-3>와 같음.

<표 V-1-3> 분석주제별 구성 - 아동발달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한국형 덴버 II	검사개요	한국형 덴버 II
	발달 전반	
	개인-사회발달 영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운동발달 영역	
K-ASQ	검사개요	K-ASQ
	발달 전반	
	의사소통 영역	
	대근육운동 영역	
	소근육운동 영역	
	문제해결(인지) 영역	
개인-사회성 영역		
기질	정서성, 활동성	어머니대상
기초생활습관	수면, 수유, 배변/씻기	면접조사용

- 1차년도 조사 당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 관련 특성은 분석의 중요한 주제임. 해당 변인의 구성은 다음 <표 V-1-4>와 같음.

<표 V-1-4> 분석주제별 구성 - 육아지원 관련 특성

대상	구분	변인	해당질문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 이유, 이용 현황	면접조사용
	최초 대리양육 특성	대리양육시 고려한 점, 최초 대리양육 유형, 최초 대리양육 시작시기	면접조사용
	개인대리양육 (이용가구만 응답)	개인대리양육 이용이유, 관계, 구인 경로, 대리양육자 거주지, 이용 빈도, 이용비용, 이용 만족도, 개인대리양육자 특성(성별, 학력, 결혼상태, 국적, 자녀양육경험 등)	면접조사용
	보육시설 (이용가구만 응답)	보육시설 이용 이유, 설립유형, 시설유형, 주변환경, 이용 빈도, 이용시간, 이용비용, 이용만족도, 등하원 시간, 보육비 지원 여부 및 지원 이유(해당가구), 보육시설과 대리양육 병행 이유(해당가구)	면접조사용
	기타 서비스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프로그램 내용, 참여 횟수 및 참여시간, 이용비용	면접조사용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육아관련 특성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 시설	면접조사용
		공공여가·문화시설	
		치안 및 안전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방향	면접조사용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순위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여부	
		도우미 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만족도	

나. 표본 특성

- 본 보고서의 기초분석은 가중치를 부여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이므로, 실제 표본을 분석한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V-1-5>와 같음.

〈표 V-1-5〉 표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아동성별	남자	1,056	50.8
	여자	1,022	49.2
	계	2,078	100.0
아동연령	3개월	7	0.3
	4개월	903	43.5
	5개월	682	32.8
	6개월	192	9.2
	7개월	147	7.1
	8개월	115	5.5
	9개월	26	1.3
	10개월	6	0.3
	계	2,078	100.0
아동출생순위	첫째	983	47.5
	둘째	862	41.6
	셋째	199	9.6
	넷째	23	1.1
	다섯째 이상	4	0.2
계	2,071	100.0	
출생 시 건강상태	치료 받지 않음	1,782	86.2
	입원실 치료	218	10.5
	집중치료실 치료	67	3.2
	계	2,067	100.0
부모 결혼상태	미혼	4	0.2
	유배우-초혼	1,997	97.5
	유배우-재혼	45	2.2
	별거	3	0.1
	계	2,049	100.0
부의 취업상태	취업 중	1,978	98.6
	학업 중	8	0.4
	미취업	20	1.0
	계	2,006	100.0
모의 취업상태	취업 중	611	29.4
	학업 중	14	0.7
	미취업	1,453	69.9
	계	2,078	100.0

구분		빈도		비율			
모의 주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194	43.8				
	40시간 초과	249	56.2				
	계	443	100.0				
모의 근로유형	임금 근로자	451	85.7				
	비임금 근로자	75	14.3				
	계	526	100.0				
가구형태	부부+자녀	1,613	86.5				
	조부모+부부+자녀	174	9.3				
	부부+자녀+친척	38	2.0				
	조부모+부부+자녀+친척	39	2.1				
	계	1,864	100.0				
다문화 가족	일반 가정	1,575	99.8				
	다문화 가정	3	0.2				
	계	1,578	100.0				
자녀 위탁여부	위탁가구	47	2.3				
	비 위탁가구	2,031	97.7				
	계	2,078	100.0				
기초생활 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3	1.2				
	차상위계층	53	2.7				
	해당없음	1,894	96.1				
	계	1,970	10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빈도)
만 연령	어머니	31.07	3.71	31.00	19.00	46.00	(2,077)
	아버지	33.60	4.05	34.00	19.00	51.00	(1,992)
결혼기간(연)		3.66	3.12	3.00	-	19.00	(2,048)
가구소득(만원)		321.14	149.71	300.00	.00	1300.00	(1,911)
지출(만원)		238.88	120.70	210.50	.00	1200.00	(1,948)
자산 (만원)	금융자산	2,635.58	4,183.28	1,500.00	.00	50000.00	(1,254)
	부동산	15,446.49	25,069.13	9,000.00	.00	500000.00	(1,573)
부채 (만원)	총액	3,169.05	5,777.10	1,000.00	.00	50000.00	(1,421)
	월 상환금	36.20	127.04	6.00	.00	2200.00	(1,358)

2. 일반적 특성¹⁴⁾

가. 아동 특성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 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등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아동의 성별은 남자 51.5%, 여자 48.5%이며 출생순위는 첫째아, 둘째아가 각각 48.3%, 40.9%로 대다수임.
 - 아동 월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4개월 아동이 40.4%, 5개월 아동이 34.1%로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로 4-8개월 아동이 98%로 대다수임.

〈표 V-2-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성별		연령	
남자	51.5	3개월	0.4
여자	48.5	4개월	40.4
계	100.0	5개월	34.1
출생순위		6개월	10.6
첫째아	48.3	7개월	7.5
둘째아	40.9	8개월	5.4
셋째아	9.5	9개월	1.2
넷째아	1.1	10개월	0.4
다섯째아 이상	0.3	-	-
계	100.0	계	100.0

아동의 건강특성

- 체중, 신장, 두위
 - 출생 시 체중은 3.0kg 이상 3.5kg 미만이 48.5, 신장은 50cm 이상 52cm 미만이 35.6%, 두위는 33cm 이상 34cm 미만이 26.6%로 가장 많았으나 두위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14) 가중치를 부여한 값으로,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전체 모집단(N=439,084)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함. 위 <표 V-1-5>의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구분됨.

- 4개월 시 체중은 7kg 미만, 7kg 이상 7.5kg 미만, 8kg 이상 8.5kg 미만이 각각 15.6%, 15.2%, 14.5%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 신장은 65cm 이상 70cm 미만이 31.6%로 가장 많으며, 두위는 41cm 이상 43cm 미만이 11.3%로 가장 많음.
- 한편 4개월 시 체중, 신장, 두위 등은 아기수첩 등의 병원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생후 4개월 당시 예방접종을 위한 병원 방문이 지연된 사례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음.

〈표 V-2-2〉 아동의 신체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출생시 체중		4개월 체중	
2.0kg 미만	0.3	7.0kg 미만	15.6
2.0kg 이상 - 2.5kg 미만	2.6	7.0kg 이상 - 7.5kg 미만	15.2
2.5kg 이상 - 3.0kg 미만	19.8	7.5kg 이상 - 8.0kg 미만	12.1
3.0kg 이상 - 3.5kg 미만	48.5	8.0kg 이상 - 8.5kg 미만	14.5
3.5kg 이상 - 4.0kg 미만	23.8	8.5kg 이상	13.8
4.0kg 이상 - 4.5kg 미만	4.9	모름	28.7
4.5kg 이상	0.2	-	-
계	100.0	계	100.0
출생시 신장		4개월 신장	
48cm 미만	17.7	65cm 미만	18.4
48cm 이상 - 50cm 미만	25.7	65cm 이상 - 70cm 미만	31.6
50cm 이상 - 52cm 미만	35.6	70cm 이상	6.7
52cm 이상	21.0	모름	43.4
계	100.0	계	100.0
출생시 두위		4개월 두위	
33cm 미만	23.1	41cm 미만	5.1
33cm 이상 - 34cm 미만	26.6	41cm 이상- 43cm 미만	11.3
34cm 이상 - 35cm 미만	24.8	43cm 이상	6.7
35cm 이상	25.5	모름	76.9
계	100.0	계	100.0

○ 국가필수예방접종 횟수

- 국가필수예방접종은 4개월을 기준으로 결핵(BCG) 1회, B형 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소아마비(폴리오)는 각 2회를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결핵 71.6%, B형 간염 62.1%,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67.6%, 소아마비

64.4%만이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2-3〉 예방접종 횟수 - 4개월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결핵(BCG)		B형 간염(HepB)	
접종 안함	0.1	접종 안함	0.3
1회	71.6	1회	6.7
모름	28.3	2회	62.1
-	-	모름	30.9
계	100.0	계	10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폴리오)	
접종안함	0.2	접종 안함	0.2
1회	3.7	1회	6.4
2회	67.6	2회	64.4
모름	28.5	모름	29.0
계	100.0	계	100.0

○ 출생 후 건강상태

〈표 V-2-4〉 출생 후 건강상태(중복응답)

단위: %

구분	비율
치료 받지 않음	87.4
입원실 치료	9.5
집중치료실 치료	3.1
계	100.0

- 전체의 87.5%는 출생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반면 9.5%의 아동이 출생 후 황달, 설사 등으로 신생아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출생 후 중환자실이나 인큐베이터 같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3.1%임.
- 입원실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기간은 3~4일이 35.1%로 가장 많고, 1~2일은 29.5%, 1주일 이상은 24.9%임.
-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은 6~10일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1~5일 33.7%, 11일 이상은 26.4%임.

〈표 V-2-5〉 치료 기간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입원실 치료 기간		집중치료실 치료 기간	
1~2일	29.5	1~5일	33.7
3~4일	35.1	6~10일	40.0
5~6일	10.5	11일 이상	26.4
7일 이상	24.9	-	-
계	100.0	계	100.0

나. 부모특성

□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 부모 연령

-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만 31.1세, 아버지 만 33.6세이며, 표준편차는 각각 3.7, 4.3으로 어머니의 경우 20대 후반~30대 중반이 가장 많고, 아버지는 30대 초반~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여겨짐.
- 최저 연령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만 19세이고 최고령자 나이는 어머니 만 46세, 아버지 만 51세임.

〈표 V-2-6〉 부모 만 연령

단위: 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머니	31.1	3.7	19	46
아버지	33.6	4.0	19	51

○ 부모의 결혼 특성

- 부모의 결혼 상태는 어머니 96.2%가 초혼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으며, 재혼 2%, 이혼 1.5%, 미혼 0.2%, 별거 0.1%임. 아버지는 초혼 97.8%, 재혼 2%, 별거, 이혼이 각각 0.1%임.
- 결혼기간은 평균 3.7년이며, 1년 이내부터 최장 19년까지 분포되어 있음.

〈표 V-2-7〉 부모 결혼 상태

단위: %

구분	유배우		별거	이혼	사별	미혼	계
	초혼	재혼					
어머니	96.2	2.0	0.1	1.5	-	0.2	100.0
아버지	97.8	2.0	0.1	-	-	0.1	100.0

〈표 V-2-8〉 결혼기간

단위: 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3.7	3.1	0	19

주: 초혼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함.

○ 국적

〈표 V-2-9〉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국적			귀화 여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99.8	99.7	귀화함 ¹⁵⁾	0.5	0.1
외국 국적 소지자 ¹⁶⁾	0.2	0.3	귀화하지 않음	99.5	99.9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주: 귀화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응답표본이 소수이므로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

- 어머니의 99.8%, 아버지의 99.7%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이 중 어머니의 0.5%, 아버지의 0.1%는 외국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임.

○ 학력

- 최종 학력이 4년제 대졸인 어머니가 34.5%, 아버지 40.0%로 가장 많으며, 초 대졸 이상인 자가 어머니 68.9%, 아버지 70.5%로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가 과

15) 귀화한 어머니의 귀화 전 국적은 중국 15.0%, 북한 61.3%, 대만 23.7%이며, 아버지 귀화 전 국적은 무응답으로 알 수 없음.

16)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 17.2%, 중국 65.9%, 베트남 16.9%이며, 외국인 아버지 국적은 중국 16.2%, 미국 48.9%, 캐나다 19.2%, 영국 15.7%임.

반수를 훨씬 상회함.

- 최종학력 고졸인 경우는 어머니 30.4%, 아버지 28.2%이며, 고졸 미만의 학력은 부모 모두 1% 안팎의 소수임.

〈표 V-2-10〉 부모의 학력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무학	-	-
초등학교 졸업	0.1	0.1
중학교 졸업	0.6	1.2
고등학교 졸업	30.4	28.2
대학(2·3년제) 졸업	28.1	19.7
대학교 졸업	34.5	40.0
대학원 졸업(석사)	6.0	10.0
대학원 졸업(박사)	0.3	0.8
계	100.0	100.0

○ 부모의 종교

- 부모의 종교 유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53.5%, 아버지의 43.9%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아버지보다 약 10% 가량 높음.
- 부모의 종교는 개신교(어머니, 47.3%; 아버지 46.8%)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불교(어머니, 31.4%; 아버지, 34.3%), 천주교(어머니, 19.3%, 아버지, 16.7%)의 순으로 나타남. 유교, 원불교 등 기타 종교 소지자는 2% 정도 차지함.

〈표 V-2-11〉 부모 종교 유무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있음	53.5	43.9
없음	46.5	56.1
계	100.0	100.0

〈표 V-2-12〉 부모 종교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불교	31.4	34.3
개신교	47.3	46.8
천주교	19.3	16.7
유교	0.3	0.6
원불교	0.2	0.6
증산교	0.4	0.3
천도교	0.5	0.2
기타	0.7	0.5
계	100.0	100.0

○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 어머니의 1.6%, 아버지의 4.3%가 조사시점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2-13〉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계
어머니	98.4	1.6	100.0
아버지	95.7	4.3	100.0

- 비동거 사유는 타지역 근무로 인한 비동거가 어머니 88.7%, 아버지 91.1%로 대다수이나, 학업, 별거, 장기입원/요양, 군복무(아버지만 해당)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응답도 일부 있었음.

〈표 V-2-14〉 부모의 가족과의 비동거 사유

단위: %

구분	타지역 근무	학업	군복무	장기입원/ 요양	별거	기타
어머니	88.7	4.5	na	-	3.8	3.1
아버지	91.1	-	1.0	2.8	5.0	-

주: na는 해당없음을 의미함.

□ 부모의 건강특성

○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

- 부모 각각 0.4%가 장애가 있으며 어머니 0.1%, 아버지 0.3%는 희귀난치성 유전병을 앓고 있음.

〈표 V-2-15〉 부모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

단위: %

구분	장애 유무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계
어머니	0.4	99.6	100.0	0.1	99.9	100.0
아버지	0.4	99.6	100.0	0.3	99.7	100.0

○ 음주 습관

- 부모를 대상으로 평상시 음주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약 41.5%가 비음주자이고 31.4%는 평소에 술을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현재 마시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27.1%는 마시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비해 아버지는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79.0%로 높게 나타났음.
- 평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음주 빈도와 주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2~4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게서 53.1%, 2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어머니는 월 1회 이하 마신다는 응답이 36.2%로 다음 순으로 응답된 반면, 아버지는 주 2~4회 마신다는 응답이 32.1%로 두 번째로 높았음. 특히 아버지의 4.8%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응답해 일부 아버지에게서 음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2-16〉 부모의 음주 여부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마심	27.1	79.0
마시지 않음	41.5	21.0
평소에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로 마시지 못함	31.4	na
계	100.0	100.0

주: na는 해당없음을 의미함.

- 음주 시 보통 마시게 되는 주량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1~2잔, 3~4잔이 각각 54.6%, 28.1%로 적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경우 10잔 이상을 마신다는 응답 비율이 28.8%로 가장 많고 7~9잔 마신다는 응답은 약 26.9%로 과반수 이상이 7잔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2-17〉 부모의 음주 빈도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월 1회 이하	36.2	11.1
월 2~4회	53.1	52.0
주 2~4회	10.4	32.1
거의 매일	0.3	4.8
계	100.0	100.0

〈표 V-2-18〉 부모의 음주 시 주량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1~2잔	54.6	6.4
3~4잔	28.1	16.8
5~6잔	11.5	21.0
7~9잔	2.9	26.9
10잔 또는 그 이상	2.8	28.8
계	100.0	100.0

○ 흡연 습관

- 부모의 흡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0.7%를 제외하고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약 53.5%가 흡연자로 응답되었음.
- 니코틴 중독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흡연 어머니의 약 40.4%가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였으며 36.6%는 매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비해 흡연 아버지의 약 15.5%는 니코틴에 중독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31.9%는 매우 낮은 수준, 27.9%는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로 나타났음. 높은 수준과 매우 높은 수준의 중독을 보이는 경우도 각각 11.1%, 2.5% 응답되었음.

〈표 V-2-19〉 부모의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피움	0.7	53.5
피우지 않음	97.3	46.5
평소에 피우나 임신과 모유수유로 피우지 못함	1.9	na
계	100.0	100.0

주: na는 해당없음을 의미함.

〈표 V-2-20〉 부모의 니코틴 중독 정도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중독 아님(0점)	4.4	15.5
매우 낮은 수준(1~2점)	36.6	31.9
낮은 수준(3~4점)	40.4	27.9
중간 수준(5점)	-	11.1
높은 수준(6~7점)	-	11.1
매우 높은 수준(8~10점)	-	2.5
계	100.0	100.0

□ 부모의 근로특성

○ 부모의 취업 상태

- 부모의 취업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67.4%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는 31.4%, 학생도 약 0.7% 포함되어 있음.
- 아버지는 전체의 98.5%가 일을 하고 있으며 무직은 0.8%, 학생은 0.4%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표 V-2-21〉 부모 취업상태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일을 하고 있음	31.4	98.5
학교에 다님(휴학생 포함)	0.7	0.4
전업주부(집안일, 가사)	67.6	0.0
무직	0.3	0.8
기타	-	0.3
계	100.0	100.0

주: 시간제 혹은 가족 사업의 경우 주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취업으로 제한하였음.

○ 부모의 직업 분류

- 부모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직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표 V-2-22〉 부모 직업(대분류 기준)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관리자(1)	3.4	1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46.0	24.1
사무종사자(3)	33.3	30.8
서비스종사자(4)	5.0	4.7
판매 종사자(5)	8.7	8.9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6)	-	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1.3	9.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1.4	8.2
단순노무 종사자(9)	1.0	1.5
군인(A)	-	-
계	100.0	100.0

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소분류(3자리)까지 작업하였으나, 기초분석에서는 대분류만 제시함.

-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6.0%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사무종사자가 33.3%인 반면, 아버지는 사무종사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4.1%임. 따라서 대다수의 부모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 직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직업이 군인인 어머니, 아버지는 없으며, 어머니 중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

- 일을 하고 있는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정규직/상용직이 각각 86.0%, 81.9%로 가장 많음. 비정규직 임시직 또는 일용직도 부모 각각 6.3%, 6.4%로 일부 분포되어 있음.
- 부모의 주당 근로시간은 어머니 43.8시간, 아버지 54.5시간으로 아버지가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표 V-2-23〉 부모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정규직/ 상용직	비정규 임시직	비정규 일용직	기타	계
어머니	86.0	4.9	1.4	7.7	100.0
아버지	81.9	4.2	2.2	11.7	100.0

〈표 V-2-24〉 부모 주당 총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머니	43.8	12.4	3	96
아버지	54.5	13.4	20	128

□ 어머니 취업상태

○ 어머니 취업/학업 상태 분류

- 지난 6개월간 어머니의 취업 상태를 조사하여 3가지로 분류한 결과 미취업인 경우가 70%로 가장 많고 취업 중인 어머니는 29.2%이며 학업 중인 경우는 0.8%로 나타났음.

〈표 V-2-25〉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단위: %

구분	취업 중	학업 중	미취업	계
비율	29.2	0.8	70.0	100.0

주: 시간제 혹은 가족 사업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음.

○ 향후 1년 내 취업/학업 복귀 계획

- 출산시 병원조사를 통해 향후 1년 내 직장 또는 학업 복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6%에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29.3%는 전일제로, 11.1%는 시간제로의 복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2-26〉 향후 1년 내 직장 또는 학업 복귀 계획 - 출산 시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또는 학업 계획 없음	59.6
시간제로 근무 또는 학업 계획	11.1
전일제로 근무 또는 학업 계획	29.3
계	100.0

□ 취업모 근로특성

○ 직무만족도

- 취업 중인 어머니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각 항목에 대해 모두 3.5점 이상의 양호한 점수가 나왔음.
-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에 답한 비율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10% 이하로 나타났으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임금 또는 소득,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0%를 약간 상회함.
-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30.3%, 매우 만족 5.4%의 순임.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표 V-2-27〉 항목별 직무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업무 내용	근로 환경	근로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임금 근로자	매우 불만족	0.4	0.1	0.1	0.5	1.7	0.7	0.1	0.1	1.5
	불만족	9.8	2.8	1.8	3.8	9.5	7.5	1.1	5.9	7.6
	보통	34.9	17.9	23.8	19.4	19.0	31.7	14.6	37.0	27.5
	만족	45.8	57.4	56.6	59.3	51.5	46.6	69.1	50.2	52.1
	매우 만족	9.0	21.7	17.7	17.1	18.4	13.6	15.2	6.9	11.3
	평균(5점)	3.5	4.0	3.9	3.9	3.8	3.7	4.0	3.8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임금 근로자	매우 불만족	1.1	-	-	-	-	-	-	-	-
	불만족	13.5	8.0	2.5	2.2	10.6	7.0	3.8	-	-
	보통	38.0	29.7	16.8	30.1	25.0	34.1	22.5	-	-
	만족	36.7	49.2	67.0	54.7	50.2	40.1	54.3	na	na
	매우 만족	10.8	13.1	13.7	13.0	14.2	18.8	19.4	-	-
	평균(5점)	3.5	3.7	3.9	3.8	3.7	3.7	3.9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주: na는 해당없음을 의미함.

〈표 V-2-28〉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매우 불만족	0.1	0.6	-
불만족	2.3	2.5	2.2
보통	30.3	28.0	30.7
만족	61.9	64.2	61.5
매우 만족	5.4	4.6	5.6
계	100.0	100.0	100.0

○ 조사당시 취업상태 및 향후 계획

- 약 68.1%는 출산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취업 상태이나 휴직 상태인 어머니 비율은 28.8%로 나타났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약 3.1% 있음.

〈표 V-2-29〉 어머니 취업 상태

단위: %

구분	비율
출산휴가중	0.8
육아휴직중	25.9
기타휴직중	2.1
출산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68.1
새로운 직장에 취업	3.1
계	100.0

- 휴직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향후 복귀 계획에 대해 물은 결과 97.2%가 복귀할 예정이며 약 2.8%는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평균 12.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소 4개월부터 최대 36개월로 나타났음.

〈표 V-2-30〉 직장으로의 복귀 계획 및 시점

단위: %, 개월

구분	복귀 계획			복귀 계획 시점			
	복귀할 계획임	복귀할 계획 없음	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97.2	2.8	100.0	12.6	5.4	4	36

- 출산 후 직장에 복귀 또는 새직장에 취업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향후 취업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예정(94.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직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5%로 일을 계속하겠다는 어머니가 대다수임. 일을 그만 둘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함.
-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을 계획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탐색한 결과,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가 29.3%로 가장 많았고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24.6%,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17.9%,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5.0%로 양육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응답이 76.8%임.
-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도 9.3% 나타나, 여성이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V-2-31〉 향후 취업 계획

단위: %

구분	비율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임	94.0
이직할 계획임	3.5
일을 그만둘 계획임	2.5
계	100.0

〈표 V-2-32〉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려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9.3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5.0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24.6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29.3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17.9
가족이 원해서	2.0
기타	11.9
계	100.0

주: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 계획인 응답 표본이 소수이므로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n=34).

○ 학업 중인 어머니 학업 관련 특성

- 학교에 재학 중인 어머니의 현재 학업 상태는 휴학 중 61.6%, 재학 중 38.4%로 나타났음.
- 휴학 중인 어머니의 84.4%가 학업으로의 복귀를 계획 중이며, 15.6%를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음.
- 출산 후 학업으로 복귀한 어머니의 복귀 시점은 평균 1.7개월로 나타났으며 주당 학업에 할애하고 있는 시간은 등하교 시간을 포함하여 평균 11.1시간이며 최소 2시간부터 최대 50시간까지 분포되어 있음.

〈표 V-2-33〉 어머니 학업 상태 및 복귀 계획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현 학업 상태		복귀 계획(휴학 중인 경우)	
휴학 중	61.6	복귀 예정	84.4
재학 중	38.4	복귀 안함	15.6
계	100.0	계	100.0

주: 본 문항에 해당하는 응답 표본이 소수이므로(n=14)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

〈표 V-2-34〉 주당 학업 할애 시간

단위: 개월,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복귀 시점	1.7	0.8	1	3
주당 학업 할애시간	11.1	11.3	2	50

주: 본 문항에 해당하는 응답 표본(출산 후 학업에 복귀한 어머니)이 소수이므로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n=7).

○ 미취업/미취학 어머니 특성

-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 중 37%는 결혼 후 현재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32.3%는 임신 중에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음. 임신 전에 그만 둔 경우도 25.3%였으며 출산 후에 그만 둔 경우는 5.4%로 비교적 소수임.

〈표 V-2-35〉 직장 또는 학업 중단 시기

단위: %

구분	비율
결혼 후 지금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	37.0
임신 전에 그만 둬	25.3
임신 중에 그만 둬	32.3
출산 후에 그만 둬	5.4
계	100.0

-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시점에 따라 그 이유를 조사하였음.
 - 임신 전 그만 둔 이유는 임신을 위해서는 39.4%, 임신 이외의 개인적 사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60.6%임.

-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이유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라는 의견이 임신 중 그만 둔 경우 41.6%, 출산 후 그만 둔 40.0%로 가장 많음.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힘들어서) 그만 두었다는 의견도 다수 응답되었음.
- 한편, 임신 중 직장 또는 학업을 그만 둔 이유는 태교를 위해서라는 의견이 16.7%로 두 번째로 높게 응답되었음.

〈표 V-2-36〉 임신 중/출산 후 그만 둔 이유

단위: %

구분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임신을 하기 위하여	39.4	na	na
임신 이외의 개인적 사정으로	60.6	na	na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na	5.0	7.2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na	13.4	23.3
(출산 후)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na	1.4	6.2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힘들 것 같아서)	na	11.7	12.2
(출산 후)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na	41.6	40.0
가족이 원해서	na	1.6	4.8
태교 등 출산준비를 위하여	na	16.7	na
기타	na	8.7	6.3
계	100.0	100.0	100.0

주: na는 해당없음을 의미함.

- 향후 취업 또는 학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3~5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전체적으로 향후 1~5년 이내에 취업 또는 학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48.2%로 반수 가까이 응답되었음.
- 기타응답으로는 5~7년 내에(35.9%),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18.6%)의 의견이 다수 응답되었음.

〈표 V-2-37〉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단위: 시간

구분	비율
계획 없음	41.0
6개월 이내	2.7
6개월~1년 이내	5.2
1~2년 이내	13.1
2~3년 이내	13.1
3~5년 이내	22.0
기타	2.8
계	100.0

다.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특성

○ 가구원 수

-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식구(친인척 포함) 및 생계, 교육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따로 사는 아동의 생부와 생모를 포함.
- 가구원 수는 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해당아동과 부모만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구원 4명이 39.1%, 5명이 13.6% 순으로 나타났음.

〈표 V-2-38〉 가구구성원 수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3명	41.5	41.3	41.6
4명	39.1	35.8	40.4
5명	13.6	16.0	12.6
6명	4.5	5.4	4.2
7명 이상	1.3	1.5	1.2
계	100.0	100.0	100.0

○ 가구원 구성

- 가구원 구성으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이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8.9% 순으로 나타났음.
- 취업모의 경우가 비취업모보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보다 조부모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가족 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양육의 도움을 받기 위함으로 추정됨.

〈표 V-2-39〉 가구 구성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부부+자녀	86.7	79.1	89.9
조부모+부부+자녀	8.9	14.6	6.6
부부+자녀+친척	2.1	1.7	2.3
조부모+부부+자녀+친척	2.3	4.7	1.3
계	100.0	100.0	100.0

□ 위탁가구 특성

○ 자녀 위탁여부

- 아동이 부모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에 위탁가구 대상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함.
- 자녀를 다른 가구에 위탁하는 경우는 전체의 2.1% 정도에 해당하였고, 취업모의 경우는 6.2%, 비취업모는 0.3%로 취업모의 자녀가 위탁가구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V-2-40〉 자녀 위탁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위탁	2.1	6.2	0.3
비위탁	97.9	93.8	99.7
계	100.0	100.0	100.0

○ 위탁가구와의 관계

- 아동과 위탁가구와의 관계를 보면, 외조부/외조모 가구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으며, 친조부/친조모 가구에 맡기는 경우는 25.8%로 고모/삼촌 3.0%, 이모/외삼촌 1.6%를 포함하여도 외가에 자녀를 위탁하는 가구가 친가에 맡기는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음.
- 지인이나 베이비시터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도 전체의 6.0%로 나타났음.

〈표 V-2-41〉 아동과 위탁가구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친조부/친조모	25.8	25.5	30.1
외조부/외조모	61.8	62.9	48.3
고모/삼촌	3.0	3.3	-
이모/외삼촌	1.6	-	21.6
베이비시터(비혈연 지인 포함)	6.0	6.5	-
친조부/친조모+외조부/외조모 ¹⁾	1.7	1.8	-
계	100.0	100.0	100.0

주: 1) 친가와 외가에 3일씩 위탁하고 있음.

□ 경제적 특성

○ 소득

- 가구 월 소득으로는 201만원~300만원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만원~200만원 29.5%, 301만원~400만원이 17.6% 순으로 나타났음.

〈표 V-2-42〉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00만원 이하	2.0	0.3	2.3
101만원~200만원	29.5	6.4	34.5
201만원~300만원	35.4	20.2	38.7
301만원~400만원	17.6	29.4	15.1
401만원~500만원	9.6	16.6	5.8
501만원 이상	5.9	0.2	3.5
계	100.0	100.0	100.0

- 취업모 가구의 경우 301만원~400만원이 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만원~300만원 20.2%, 401만원~500만원이 16.6%이었던 반면,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201만원~300만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만원~200만원 34.5%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취업모 가구가 비취업모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높게 나타났음.

○ 지출

- 가구의 월 지출 규모로는 101만원~200만원이 3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만원~300만원 35.2%, 301만원~400만원이 13.1% 순으로 나타났음.
- 취업모 가구의 지출규모는 201만원~300만원이 3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만원~200만원 22.2%, 301만원~400만원 21.8% 순이었음. 비취업모 가구는 101만원~200만원이 4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만원~300만원이 33.2%로 대부분의 비취업모 가구가 101만원~300만 원 정도의 지출규모에 속하였음.
- 취업모 가구의 지출규모가 대체로 비취업모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V-2-43〉 가구 지출

단위: %

구분	가구 총 지출			구분	아동 관련 총 지출		
	전체	취업모	비 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 취업모
100만원 이하	5.7	2.4	7.2	10만원 이하	2.8	1.9	3.2
101~200만원	39.2	22.2	46.9	11~20만원	16.1	8.2	19.6
201~300만원	35.2	39.5	33.2	21~30만원	19.8	13.7	22.5
301~400만원	13.1	21.8	9.1	31~50만원	24.8	22.7	25.8
401~500만원	3.8	7.2	2.3	51~70만원	14.6	17.7	13.3
501~600만원	1.7	4.2	0.6	71~100만원	7.1	13.0	4.4
600만원 초과	1.2	2.8	0.6	100만원 초과	14.8	22.8	11.2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 아동과 관련한 총 지출 비용은 31만원~5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21만원~30만원이 19.8%였으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도 14.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취업모 가구가 비취업모 가구에 비해 아이 관련 지출 규모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의 취업으로 인한 대리양육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짐.

○ 자산

- 부동산 총액으로는 1억 초과 2억 이하인 경우가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01만원~1억원으로, 대부분 2억원 이하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44〉 부동산 총액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000만원 이하	9.1	4.8	10.9
1001만원~3000만원	8.5	6.7	9.3
3001만원~5000만원	12.0	8.3	13.6
5001만원~7000만원	11.4	9.0	12.3
7001만원~1억원	17.4	18.2	17.1
1억1만원~2억원	21.5	27.6	19.0
2억1만원~3억원	9.4	12.8	8.0
3억1만원~5억원	5.9	5.8	5.9
5억1만원~10억원	4.3	6.8	3.2
10억 초과	0.5	-	0.6
계	100.0	100.0	100.0

- 취업모 가구의 경우 7001만원~3억원 이하의 구간에 부동산 자산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취업모 가구는 3001만원~2억원 이하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 취업모 가구의 부동산 총액이 비취업모 가구 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이지만 가장 높은 금액인 10억원 초과인 경우는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가 더 많음.
- 금융자산으로는 1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1만원~3000만원이 32.3%, 3001~5000만원이 10.6%의 순이었음. 금융자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2.6%로 나타났음.

〈표 V-2-45〉 금융자산 총액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000만원 이하	47.4	34.3	52.8
1001만원~3000만원	32.3	38.4	29.8
3001만원~5000만원	10.6	14.3	9.1
5001만원~7000만원	2.4	2.0	2.6
7001만원~1억원	4.7	7.4	3.5
1억원 초과	2.6	3.6	2.2
계	100.0	100.0	100.0

○ 부채

- 가구 부채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19.9%였음.
- 부채가 1억원 초과인 가구는 전체의 5.9%이며, 부채 규모는 비취업모 가구에 비해 취업모 가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V-2-46〉 가구 부채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혀 없음	43.5	40.5	44.7
1~1000만원	10.5	7.5	11.8
1001~3000만원	19.9	17.9	20.7
3001~5000만원	9.5	11.0	8.8
5001만원~1억원	10.8	13.1	9.9
1억원 초과	5.9	9.9	4.1
계	100.0	100.0	100.0

○ 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1.1%, 차상위계층 해당 가구는 2.6%로 나타났음.
- 취업모 가구보다 비취업모 가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가 더 많음.

〈표 V-2-47〉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	0.7	1.3
차상위계층	2.6	2.6	2.7
해당없음	96.2	96.7	96.0
계	100.0	100.0	100.0

□ 주거관련 특성

○ 주택 유형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가 6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빌라 포함) 13.5%, 단독주택 9.1%의 순이었음.

〈표 V-2-48〉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단독주택	9.1	8.7	9.2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67.6	67.6	67.7
연립주택(빌라 포함)	13.5	14.7	13.1
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	7.2	6.4	7.5
비주거용 건물내의 주택(상가 또는 사무실안쪽)	2.1	1.9	2.2
오피스텔	0.4	0.6	0.4
계	100.0	100.0	100.0

○ 소유 형태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 형태로는 자가인 경우와 전세인 경우가 각각 43.0%, 42.2%로 비슷하게 나타남. 따라서 거주 중인 주택은 대부분 자가와 전세로 이루어져 있음.
-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2.0%이었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78.0%였음.

〈표 V-2-49〉 주택 소유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자가	43.0	43.9	42.7
전세	42.2	44.7	41.1
전/월세(보증부 월세)	8.4	7.3	8.8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0.2	0.2	0.2
무상(사택, 관사, 친인척 소유주택포함)	5.7	3.9	6.4
기타	0.5	-	0.8
계	100.0	100.0	100.0

〈표 V-2-50〉 거주 중인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있다	22.0	28.2	19.5
없다	78.0	71.8	80.5
계	100.0	100.0	100.0

라.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성

○ 거주기간

- 조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사는 동네에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29.8%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이 21.3%였으며, 약 70% 가량이 현재 사는 동네에 3년 이내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생아 가구의 평균 결혼기간이 3.67년으로 짧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현재 사는 동네로 이주하였거나,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주지 이동이 잦기 때문으로 여겨짐.

〈표 V-2-51〉 현재 사는 동네에 거주했던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년 미만	18.1	17.1	18.5
1년 이상 - 2년 미만	29.8	28.9	30.1
2년 이상 - 3년 미만	21.3	23.2	20.5
3년 이상 - 4년 미만	11.0	12.2	10.6
4년 이상 - 5년 미만	7.6	6.2	8.2
5년 이상	12.2	12.4	12.1
계	100.0	100.0	100.0

○ 지역사회에의 입지적 특성

-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지역인지에 관해서는 일반아파트지역이 5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주택지역이 32.1%로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52〉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일반주택지역	32.1	34.8	31.1
일반아파트지역	59.5	58.4	59.9
상가지역	4.2	4.3	4.2
공장(단)지역	1.0	0.3	1.2
농/어가지역	2.6	2.2	2.7
기타	0.6	0.1	0.9
계	100.0	100.0	100.0

3. 출산 및 양육 관련 특성

가. 임신 및 출산관련 특성

□ 임신관련 특성

- 산모의 신체적 변화
 - 임신과 관련하여 산모가 경험한 신체적 변화를 살펴보면, 임신 전 체중은 평

균 54.8kg이었으며, 출산 직전 체중은 평균 68kg 정도로 임신 기간 중 평균 약 13.3g의 체중 증가가 있었음. 산모들의 평균 키는 161cm로 나타남.

- 드물긴 하지만 임신 기간 중 체중이 감소한 사례도 4사례가 있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는 31kg 증가하였음.

〈표 V-3-1〉 산모의 신체 특징

단위: cm, kg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모의 신장	161.0	4.7	134	176
임신 직전 체중	54.8	7.9	38	97
출산 직전 체중	68.0	7.9	44	103
임신 중 체중 증가	13.3	4.5	-7	31

○ 임신 방법

- 임신을 위해 보조생식술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연임신이라는 응답이 95.9%였으며, 배란촉진/배란유도 후 임신했다는 비율이 2.1%,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2.0%를 각각 차지함.
- 따라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모집단의 약 4.1% 정도가 의료적 시술을 통해 임신한 것으로 추정됨.

〈표 V-3-2〉 임신 방법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자연임신	95.9	97.0	95.5
배란촉진 / 배란유도 후 임신	2.1	2.2	2.1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	2.0	0.8	2.5
계	100.0	100.0	100.0

- 한편,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율이 3배 가량 높음. 이는 이러한 시술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취업모가 시도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일 것

으로 여겨짐.

○ 재태기간

- 예정일과 출산일의 차이는 평균 5.18로 평균적으로 예정일보다 약 5일 정도 빨리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출생아 가운데 3%가 예정일보다 3주 이상 빨리 태어난 조산(재태기간 37주 미만)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표 V-3-3〉 조산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정상분만	97.0	97.3	96.9
조산	3.0	2.7	3.1
계	100.0	100.0	100.0

주: 예정일보다 2주 이상 늦게 태어난 사례는 없었음.

○ 임신관련 느낌

-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에 대해 '매우 기뻐다'는 응답이 약 70%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산모들이 매우 기쁘거나 다소 기쁘다고 답했음.
- 반면, 12.8%의 산모들은 기쁜 마음과 동시에 난감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소수의 산모들은 난감하거나 불행하다는 느낌만을 경험하였음.

〈표 V-3-4〉 임신관련 느낌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기뻐음	69.7	72.1	68.7
다소 기뻐음	16.2	14.8	16.8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이 엇갈렸음	12.8	11.1	13.6
다소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	1.2	1.9	0.9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	0.1	0.1	0.1
계	100.0	100.0	100.0

□ 출산관련 특성

○ 분만 형태

- 아동의 분만 형태는 정상분만이 55.4%, 제왕절개가 44.6%로 나타나, 제왕절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계획된 제왕절개는 전체 분만의 26.7%,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는 17.9%를 차지함.
- 비취업모의 제왕절개율이 취업모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계획된 제왕절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V-3-5〉 분만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정상분만	55.4	59.9	53.4
계획된 제왕절개	26.7	22.9	28.4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	17.9	17.2	18.2
계	100.0	100.0	100.0

○ 출산 후 접촉

- 분만 직후(분만 시 전신마취를 한 산모의 경우에는 의식이 돌아온 직후) 아기를 안아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약 70%가 그렇다고 답해서 다수의 병원에서 분만 직후 아기와 접촉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V-3-6〉 출산 후 접촉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그렇다	69.9	70.5	69.6
아니다	30.1	29.5	30.4
계	100.0	100.0	100.0

○ 출산관련 느낌

- 출산 직후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2%가 '매우 기쁘다'고 답했으며, 95% 이상이 다소 또는 매우 기쁘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4.3%의 산모들은 기쁨과 동시에 난감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불행하거나

난감했다는 응답은 0.3%였음.

- 이를 임신 직후의 기분과 비교해보면, 임신 직후의 기분에 비해 매우 기쁘다는 응답이 10% 이상 증가하였음(표 IV-3-4 참조).

〈표 V-3-7〉 출산관련 느낌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기뻐함	81.2	80.0	81.8
다소 기뻐함	14.2	15.3	13.8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이 엇갈렸음	4.3	4.2	4.3
다소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	0.2	0.5	0.1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	0.1	-	0.1
계	100.0	100.0	100.0

○ 모유수유

- 1차년도 조사 당시 모유수유 여부, (중단했다면) 중단 시기, 중단 이유 등을 질문하였음.
- 약 62%의 산모가 모유수유 중이라고 답했으며 38%는 수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비취업모의 경우 70%에 육박하는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취업모의 경우 절반 이상인 55.7%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V-3-8〉 모유 수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수유	62.0	44.3	69.5
비 수유	38.0	55.7	30.5
계	100.0	100.0	100.0

-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 모유 수유 기간은 최소값 0에서 최대 32주까지 나타남. 즉, 모유 수유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최대 8개월까지 수유한 후 중단한 경우도 있었음.
- 평균적인 모유 수유 기간은 약 8주로,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2개월 가량 모유 수유를 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3-9〉 모유 수유 기간

단위: 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7.96	6.05	0	32
취업모	8.91	6.23	0	28
비취업모	7.23	5.80	0	32

- 모유 수유를 중단한 이유로는 '젓이 나오질 않아서' 라는 응답이 전체의 58.3%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의 45.6%, 비취업모의 68.4%가 이에 해당함.
- 취업모(학업모 포함)의 경우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동안 수유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7.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 차지했음. 반면, 비취업모는 '아기가 젓을 잘 빨지 못해서', '질병, 약 복용 등 의사의 권유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라는 각각 9.9%, 8.2%, 7.9%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출산 후 취업이나 학업을 지속하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여건상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한편, 기타응답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아기 건강상의 이유(열상, 설사, 황달 등), 다른 가족 요인(남편과의 불화, 큰 아이의 시샘), 기타 요인(사고로 입원, 젓의 양이 많아 아기가 먹기 힘들) 등이 있었음.

〈표 V-3-10〉 모유 수유 중단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젓이 나오질 않아서	58.3	45.6	68.4
젓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0.9	0.7	1.0
아기가 젓을 잘 빨지 못해서	7.9	5.4	9.9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동안 수유가 어려워서	17.9	37.7	2.2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5.6	2.6	7.9
질병, 약 복용 등 의사의 권유로	7.4	6.5	8.2
함몰유두로 아기가 젓을 빨지 못해서	0.4	0.3	0.5
기타	1.6	1.3	1.8
계	100.0	100.0	100.0

□ 임신 및 출산 관련 기대

○ 계획임신 여부

- 아동의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랬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랐다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으나, 17.7%는 부부 모두 바라지 않았다고 응답함.
- 부모 중 한쪽만 계획하거나 바랐다는 응답은 어머니만 바랐다는 응답이 2.3%, 아버지만 바랐다는 응답이 7.8%를 차지하여, 아버지만 바랐다는 응답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V-3-11〉 계획된 임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어머니만 계획하거나 바램	2.3	1.9	2.5
아버지만 계획하거나 바램	7.8	7.4	7.9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램	72.3	71.9	72.4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음	17.7	18.8	17.2
계	100.0	100.0	100.0

○ 기대성별

- 임신 중 바랐던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의 경우 딸이 37.9%, 아들이 31.3%로 딸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도 딸이 37.4%, 아들이 28.6%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 바라는 성별이 없었다(아들·딸 상관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3분의 1 가량을 차지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은 약화되고, 오히려 딸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V-3-12〉 기대성별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남자(아들)	31.3	28.6
여자(딸)	37.9	37.4
바라는 성별이 없었음	30.7	34.0
계	100.0	100.0

○ 후속 출산 의도

- 앞으로의 출산계획을 묻는 질문에 약 28%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9.7%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했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2%였음.

〈표 V-3-13〉 후속 출산 의도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낳겠음	28.0	29.7	27.2
낳지 않겠음	49.7	48.8	50.1
잘 모르겠음	22.2	21.4	22.5
기타	0.2	-	0.3
계	100.0	100.0	100.0

-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녀 교육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0.5%로 그 뒤를 이었음. 특히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교육 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31.6%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V-3-14〉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	5.7	5.0	6.0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유치원/보육시설/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	30.5	28.0	31.6
직장/학업 때문에	2.0	5.8	0.4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4.5	3.9	4.8
이미 계획한 수 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33.8	35.1	33.3
나이가 많아서	7.1	7.6	6.9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16.4	14.7	17.0
계	100.0	100.0	100.0

-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추가로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5.3%가 1명이라고 응답했으며, 2명이라고 답한 비율은 13.7%,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수였음.

〈표 V-3-15〉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명	85.3	86.1	84.9
2명	13.7	11.1	14.9
3명	0.9	2.5	0.2
4명 이상	0.1	0.4	-
계	100.0	100.0	100.0

- 2008년 출산한 아동의 출생순위에 후속출산 계획인 자녀수를 더하여 기대 자녀수를 산출함(후속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기대 자녀수가 됨).
- 기대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7.9%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라는 응답이 25.3%, 3명이라는 응답이 14.8%를 각각 차지했음. 4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0%였음.
- 취업모의 경우 1명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비취업모가 더 높았음.

〈표 V-3-16〉 기대 자녀수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명	25.3	28.8	23.9
2명	57.9	57.8	57.9
3명	14.8	12.4	15.9
4명	1.7	0.9	2.0
5명	0.3	0.1	0.4
계	100.0	100.0	100.0

주: 아동의 출생순위와 후속출산 계획을 모두 응답한 경우만 산출

○ 이상적인 자녀수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서는 2명이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라는 응답이 31%,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6% 이상임.

〈표 V-3-17〉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무자녀	0.6	1.0	0.4
1명	2.2	2.7	2.0
2명	57.8	55.3	58.8
3명	31.0	32.3	30.4
4명	6.3	4.9	6.9
5명 이상	0.4	0.6	0.3
잘 모르겠음	1.8	3.3	1.2
계	100.0	100.0	100.0

- 반면, 이상적인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해,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25.3%)과 대조를 보임. 따라서 자녀를 1명만 낳기로 계획한 가정에서도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의 차이는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묻는 문항의 응답에도 나타나듯이, 교육비 부담 등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이상 자녀수가 성별 구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44.3%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 자녀수를 답함.
- 성별을 구분하여 응답한 이상 자녀수는 아들 1명, 딸 1명이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으며, 아들 1명, 딸 2명이 23.1%, 딸 2명, 아들 1명이 11.2%, 아들 2명, 딸 1명이 9.1%로 나타남.

〈표 V-3-18〉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딸, 아들 구분없이	54.2	55.2	53.8
딸, 아들 구분해서	44.3	43.4	44.8
기타	1.4	1.4	1.4
계	100.0	100.0	100.0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성별 구분시			
딸만 1명	0.5	0.7	0.5
딸만 2명	1.4	0.9	1.5
딸만 3명	0.1	-	0.1
아들만 1명	0.4	0.6	0.3
아들만 2명	0.8	1.4	0.6
아들만 3명	0.1	-	0.1
아들 1명, 딸 1명	52.5	55.0	51.5
아들 1명, 딸 2명	23.1	22.5	23.3
아들 1명, 딸 3명	0.3	-	0.4
아들 2명, 딸 1명	9.1	8.4	9.3
아들 2명, 딸 2명	11.2	8.9	12.2
아들 2명, 딸 3명	0.5	1.1	0.2
아들 3명, 딸 1명	0.1	0.3	-
계	100.0	100.0	100.0

□ 부모교육

○ 부모교육 여부

- 1차년도 조사시점까지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82%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출산을 전후로 한 부모교육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V-3-19〉 부모교육 여부

단위: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전체	82.0	18.0	100.0
취업모	86.1	13.9	100.0
비취업모	80.3	19.7	100.0

-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취업모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등을 얻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짐.

○ 부모교육 내용

-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신생아 관리방법과 모자보건 관련 교육(신생아 예방접종, 산욕기 관리 등) 등 신생아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분만 관련 교육, 운동 또는 체형관리, 아기용품 만들기 등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

〈표 V-3-20〉 부모 교육 내용(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신생아 관리 방법 (모유수유, 신생아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등)	20.3	20.9	20.1
모자보건 관련 교육 (신생아 예방 접종, 산욕기 관리 등)	18.1	18.8	17.8
분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호흡법, 분만법, 태교, 명상 등)	15.7	15.1	15.9
운동 또는 체형관리 (요가, 체조 등)	15.8	15.6	16.0
아기 용품 만들기 (장난감 만들기, 퀴트, 패치워크 등)	15.5	15.6	15.4
바람직한 자녀양육 방법 (대화기법, 훈육방법 등)	14.0	13.6	14.2
기타	0.5	0.5	0.6
계	100.0	100.0	100.0

○ 부모교육 기관

-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산부인과 또는 산후조리원의 강좌가 29.9%, 보건소가 27.3%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복지관, 지역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와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좌가 7%를 웃돌았으며, 나머지 교육기관들은 모두 5% 이내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 부모교육 기관으로 산부인과 또는 산후조리원의 강좌와 보건소 외에 기타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기타 응답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음.

〈표 V-3-21〉 부모 교육 기관(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산부인과 또는 산후조리원의 강좌	29.9	27.8	30.6
보건소	27.3	24.0	28.4
시청·군청·구청·교육청 등의 공공기관	1.6	1.1	1.7
복지관, 지역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7.3	5.8	7.8
종교단체, 사회단체	2.6	1.1	3.1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대학 등)	4.5	6.0	4.0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좌(매일유업, 남양유업, 셀트리 등)	7.1	8.1	6.8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2.7	4.6	2.1
기타	17.0	21.4	15.5
계	100.0	100.0	100.0

나. 어머니

□ 자기효능감

- 모의 자기효능감은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함. 모의 자기효능감은 가능한 점수범위인 4~20점 가운데 평균 8.9점으로 나타남.
- 취업모의 평균은 8.83점, 비취업모의 평균은 8.93점으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0.1점 정도로 크지 않음.

〈표 V-3-22〉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8.90	2.74
취업모	8.83	2.67
비취업모	8.93	2.77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의미함.

□ 자아존중감

- 모의 긍정적인 특질인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여, 가능한 점수범위는 10~40점 사이임. 이 중 모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0.2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위치해있음.

〈표 V-3-23〉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20	4.11
취업모	30.95	3.85
비취업모	29.90	4.17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

- 취업모의 평균 점수는 30.95점, 비취업모는 29.90점으로 평균 1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남.
- 평균은 비취업모가 낮는데 비해 자아존중감의 표준편차는 비취업모가 더 크게 나타나서 비취업모 간에 자아존중감이 편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울

- 모의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은 병원조사 시와 1개월 후 전화조사를 통해, 그리고 1차년도 조사 시 세 차례에 걸쳐 측정됨. 병원조사 시에는 분만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의 우울을 조사하였음.
-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증도(mild/moderate) 우울, 19~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됨.
- 출산 전 우울을 측정한 결과, 약 4분의 3은 정상군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21.1%는 경도/중증도 우울, 4.6%는 중도 우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출산을 앞두고 우울을 느끼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우울의 수준은 출산 전 평균 11.27점에서 출산 후 1개월 시점에서 9.08점으로 감소하였다가 1차년도 조사 시점에는 다시 11.67점으로 심해지는 양상을 보임. 우울 집단에 속하는 비율도 이에 따라 출산 후 1개월 시점에서 11.5%로

감소하였다가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28.5%로 다시 증가함.

- 여성이 출산을 전후로 우울 정도의 변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V-3-24〉 어머니의 우울 정도(임상집단 여부)

단위: %

구분	출산 전 우울			분만 1개월 후 우울			1차년도 조사 시 우울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정상	74.3	75.5	73.8	88.5	89.4	88.1	71.5	74.7	70.2
경도/중등도	21.1	21.2	21.1	9.1	8.1	9.6	22.0	19.6	22.9
중도	4.6	3.3	5.1	2.4	2.5	2.3	6.5	5.6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V-3-25〉 어머니의 우울 정도(평균)

단위: 점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출산 전	11.27	3.91	11.12	3.73	11.33	3.98
1개월 후	9.08	3.58	9.00	3.55	9.12	3.60
조사 시	11.67	4.23	11.31	4.07	11.81	4.30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다.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

- 부부가 느끼는 결혼만족도를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질문하였음.
- 결혼만족도는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20점임.
- 결혼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어머니가 15.23점, 아버지가 17.11점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의 결혼만족도는 취업모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부의 결혼만족도는 아내가 비취업모일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3-26〉 부부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구분	모의 결혼만족도			부의 결혼만족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15.23	15.64	15.06	17.11	16.97	17.17
표준편차	3.06	2.83	3.13	2.74	2.86	2.69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부부갈등

-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부부가 느끼는 갈등의 정도를 8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질문한 결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는 15.92점, 남편이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는 15.05점으로 모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모인 아내와 취업모의 남편이 부부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와 대조되는 양상을 보임.

〈표 V-3-27〉 부부 갈등의 정도

단위: 점

구분	모가 인지한 부부 갈등			부가 인지한 부부 갈등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15.92	15.20	16.22	15.05	15.19	14.99
표준편차	6.211	5.85	6.33	5.49	5.66	5.4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

라. 부모됨

□ 자녀 가치

- 자녀 가치는 총 7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은 개념적으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3개, 4개 문항이 해당됨. 따라서 전체 응답범위는 7~28점이며, 정서적 가치는 3~12점, 도구적 가치는 4~16점 사이에 분포함.

〈표 V-3-28〉 자녀 가치에 대한 인지

단위: 점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문항평균)	표준편차	평균 (문항평균)	표준편차	평균 (문항평균)	표준편차
모 자녀가치						
정서적 가치	4.46	0.54	4.54	0.50	4.43	0.56
도구적 가치	2.96	0.79	2.96	0.76	2.96	0.80
부 자녀가치						
정서적 가치	4.91	1.39	5.00	1.44	4.87	1.36
도구적 가치	3.79	1.81	3.78	1.95	3.79	1.76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척도 점수에서 각 척도별 전체 응답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문항평균값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문항 평균값은 4.46, 도구적 가치는 2.96점이었으며, 아버지의 정서적 가치 문항평균값은 4.91, 도구적 가치는 3.79점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부모 모두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조금 더 높게 인지하는 수준이었으나, 도구적 가치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기대

-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기대는 1) 돈을 잘 번다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중시한다는 총 6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부의 86.6%, 모의 90.8%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매우 원한다'고 응답해, 부모 모두 자녀의 장래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는 이타심과 금전적 성공이 그 뒤를 이음.
- 취업모의 남편은 비취업모의 남편에 비해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 등 세속적

인 조건을 자녀의 장래에서 중시하는 반면, 비취업모의 남편은 이타심,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 등을 상대적으로 중시함.

〈표 V-3-29〉 아버지의 자녀기대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4점척도)	표준 편차
금전	전체	27.2	57.2	15.0	0.6	100.0	1.89	0.66
	취업모	26.1	57.8	15.2	0.8	100.0	1.91	0.66
	비취업모	27.7	56.9	15.0	0.5	100.0	1.88	0.66
명성	전체	20.4	47.4	30.3	1.9	100.0	2.14	0.75
	취업모	18.3	48.5	32.1	1.2	100.0	2.16	0.72
	비취업모	21.2	46.9	29.6	2.3	100.0	2.13	0.76
사회적 지위	전체	20.5	46.3	31.3	1.8	100.0	2.14	0.76
	취업모	17.3	46.7	34.6	1.3	100.0	2.20	0.73
	비취업모	21.8	46.2	29.9	2.0	100.0	2.12	0.77
이타심	전체	35.4	54.8	9.7	0.1	100.0	1.75	0.63
	취업모	36.6	55.1	8.1	0.1	100.0	1.72	0.61
	비취업모	34.8	54.6	10.4	0.2	100.0	1.76	0.63
행복한 가정	전체	86.6	12.9	0.4	0.1	100.0	1.14	0.37
	취업모	87.1	12.7	0.1	0.1	100.0	1.13	0.35
	비취업모	86.5	12.9	0.5	0.1	100.0	1.14	0.37
취미나 여가	전체	11.0	50.4	36.2	2.5	100.0	2.30	0.69
	취업모	10.0	54.7	33.8	1.6	100.0	2.27	0.65
	비취업모	11.3	48.7	37.1	2.8	100.0	2.31	0.71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표 V-3-30〉 어머니의 자녀기대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4점척도)	표준 편차
금전	전체	27.9	62.4	8.9	0.8	100.0	1.83	0.61
	취업모	26.0	63.9	9.3	0.8	100.0	1.85	0.60
	비취업모	28.7	61.7	8.8	0.8	100.0	1.82	0.61
명성	전체	18.6	42.7	36.2	2.5	100.0	2.23	0.77
	취업모	17.0	47.4	33.2	2.4	100.0	2.21	0.75
	비취업모	19.2	40.7	37.5	2.5	100.0	2.23	0.78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부모 모두 '예의 바른 생활습관'을 들었으며, 이어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응답함.
-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간 1%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을 보면, 취업모의 경우 '독립심'을, 비취업모의 경우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와 '어른 말씀 잘 듣기'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의 경우 아내가 비취업모인 남편들이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3-32〉 양육신념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예의바른 생활습관	18.4	18.0	18.6	17.9	17.7	18.0
독립심	9.7	10.4	9.4	10.0	10.3	9.9
근면함	9.6	9.9	9.5	11.3	11.5	11.2
책임감	17.3	17.0	17.4	17.0	17.1	16.9
상상력	3.9	4.4	3.7	3.7	3.9	3.6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15.6	16.1	15.4	13.6	14.0	13.5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8.1	7.3	8.4	8.8	7.8	9.3
결단력과 끈기	9.2	8.8	9.4	9.6	9.5	9.7
종교적 신념	2.8	3.4	2.6	1.9	2.1	1.8
이타심	1.2	1.4	1.1	1.4	2.0	1.2
어른 말씀 잘 듣기	4.3	3.4	4.7	4.7	4.0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양육실제

- 양육실제는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선정, 총 6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임을 의미함.
- 양육스타일은 크게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요인으로 분류되며, 각각 3문항씩이 해당됨. 따라서 각 하위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3~15점임.
- 비취업모는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취업모의 경우는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동

을 주로 돌보는 비취업모로서의 특성을 반영함.

〈표 V-3-33〉 양육스타일

단위: 점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원	12.08	1.62	12.09	1.67	12.08	1.60
도구적 지원	12.19	1.70	11.82	1.78	12.34	1.65
계	24.27	3.00	23.91	3.05	24.42	2.96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을 의미함.

□ 양육지식

- 양육지식은 총 13개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아니다로 대답하도록 하여, 그 중 정답인 응답 수의 비율을 산출하여 계산함.
- 정답의 비율은 50~75% 이상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75% 이상 정답을 알고 있는 비율도 40.7%에 해당함.
-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3-34〉 양육 지식

단위: %, 점

구분	25 미만	25-50미만	50이상-75미만	75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	12.3	45.8	40.7	100.0	67.51	15.99
취업모	0.4	7.2	47.7	44.7	100.0	69.57	14.25
비취업모	1.5	14.3	45.1	39.1	100.0	66.68	16.57

□ 양육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는 총 10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 10~50점의 점수범위 가운데,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7.56점이며,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음.

〈표 V-3-35〉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56	6.17
취업모	27.05	6.35
비취업모	27.76	6.09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마. 가족

□ 남편의 양육참여

- 총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남편의 양육참여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음.

〈표 V-3-36〉 남편의 양육참여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39	3.19
취업모	14.80	3.06
비취업모	14.22	3.23

주: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가족생활사건

- 가족생활사건은 각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가족이 경험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경험한 경우 1점, 그렇지 않다면 0점을 주어 채점함.
-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으로 구분되며, 각각 16문항, 11문항으로 구성됨.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1년 간 가정의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많았음을 의미함.
-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규범적 사건을 3.6건, 비규범적 사건은 0.64건 정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이러한 가족생활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V-3-37〉 가족생활사건

단위: 점

구분	규범적			비규범적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3.62	3.34	3.74	0.64	0.60	0.66
표준편차	2.34	2.31	2.34	0.95	0.87	0.98

□ 사회적 지원

- 사회적 지원은 총 12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가능한 점수범위는 12~60점임. 사회적 지원은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각각 정서적 지원 2문항, 도구적 지원 3문항, 정보적 지원 3문항, 여가적 지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위요인별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도구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서적 지원이 4.17점이었음. 여가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임.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전체 평균은 4.1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모든 하위영역에서 취업모의 점수가 비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나,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표 V-3-38〉 사회적 지원

단위: 점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문항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5	0.60	4.17	0.60	4.14	0.60
정서적 지원	4.17	0.71	4.17	0.70	4.16	0.71
도구적 지원	4.23	0.68	4.25	0.64	4.21	0.70
여가적 지원	4.09	0.68	4.12	0.66	4.07	0.69
정보적 지원	4.10	0.70	4.13	0.71	4.09	0.69

4. 아동발달특성

가. K-ASQ

□ 검사 개요

- 한국의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K-ASQ)는 포괄적인 유아 발견 프로그램으로 조기 중재대상의 유아를 적절한 시기에 판별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SQ의 선별체계는 부모나 주 양육자가 작성하도록 설계된 19개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연령은 4~60개월임. 각 질문지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한 점진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들은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의 5개 영역으로 나뉘어짐.
- 30개의 점진적 문항들에 대해 부모는 자녀의 수행 정도에 따라 '예-가끔-아니오'로 나누어 표시함. 최종적으로 각 점수를 10-5-0점으로 환산하고 각 영역별로 합산한 총점을 내어, 각 5개 영역의 점수를 선별 절선점수(cut-off point)와 비교함.
- 위험군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점수는 전체 아동 분포 중 (1)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2배수 영역(신뢰구간 약 95%)에 해당하는 $-2 \cdot SD$ 기준점과, (2)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1배수 영역(신뢰구간 약 68%)에 해당하는 $-1 \cdot SD$ 기준점의 2가지를 적용하여, 전자를 '위험발달'군으로, 후자를 '의심발달'군으로 명명하였음. 통상 판별검사에서 발달 지연 위험군으로 칭하는 것은 전자의 절선점수미만 위험발달군에 해당함.
- 위험발달 및 의심발달 판별은 5개 영역별로 제시되며, 아동의 발달 전반에 관한 전체적인 판별은 제시되지 않음. 구체적으로 위험발달 영역 총 갯수와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가 제공됨.
- 한국판 ASQ (Korean-Ages & Stages Questionnaires)는 미국에서 개발된 ASQ 2판 (Squires, Potter, & Bricker, 1999)을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 한 것임(허계형, Squires, 이소영, 이준석, 2006).

□ 검사결과

- 발달 지연과 중재 가능성을 생애 초기에 판별하기 위한 한국형 ASQ 질문지

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게 하는 검사로,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의 5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영역별 절선점수 미만의 위험군으로 추정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가 기준별로 <표 V-3-1>에 제시되어 있음.

- -2·SD 절선미만 '위험발달군'을 분류한 결과, 5개 영역 중 '의사소통' 부문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과 '개인-사회성' 영역의 위험발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대근육·소근육 '운동' 영역의 비율이 가장 낮게, 즉 대부분의 영아들이 운동영역에서 정상발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K-ASQ 검사 결과, 위험발달에 속하지 않는 정상발달의 비율이 전체 5개 영역 평균 98.6%로 높게 나타남.
- -1·SD 선을 기준으로 '의심발달군'에 해당하는 아동을 분류한 결과, 위험발달군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 영역중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소근육운동'과 '개인-사회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영아기에 드러나는 발달위험성이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 취업모와 비취업모 그룹의 자녀들을 비교한 결과, '위험발달'의 경우 대체로 두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사소통과 사회성, 그리고 문제해결 영역에서 비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반면에 '의심발달' 준 위험군에서는 소근육운동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취업모 자녀의 의심발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취업모 영아들의 K-ASQ 발달 점수가 비취업모 영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임상적 위험군에 준하는 위험발달의 비율은 취업모 집단 보다 비취업모 집단의 영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동의 발달지체가 엄마의 취업을 저해하는, 결과적으로 집에 머무르는 비취업모의 비율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0~60점에 해당하는 발달 영역별 총점을 비교한 결과, 소근육운동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취업모의 영아들보다 비취업모 영아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달 점수를 보임. 소근육운동 영역에서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어 보임.

〈표 V-4-1〉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단위: %

구분	위험발달 (-2 · SD)			의심발달 (-1 · SD)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의사소통	3.7	3.0	4.0	16.4	18.0	15.6
대근육운동	0.3	-	0.4	10.3	11.5	9.9
소근육운동	0.4	0.4	0.4	15.6	14.3	16.1
문제해결	1.6	1.3	1.7	8.5	9.4	8.0
개인·사회성	1.2	0.5	1.4	12.8	13.3	12.6
평균 (%)	1.44	1.08	1.58	12.72	13.3	12.44

- 그러나, 위험발달 및 의심발달 영역의 총 수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의심발달 판별에서 0개의 비율이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위험발달에서 0개의 비율은 취업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앞서 <표 V-3-3>에서 살펴본 대로, 의심발달 비율이 취업모의 자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자녀가 영아기일 때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 발달의 전반적 측면에서 비취업모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위험발달 비율이 비취업모의 자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추후 추가 분석이 요구됨. 기술적으로 해석할 때, 첫째, 모의 영아기 취업이 절선점수 미만의 고위험군으로 영향을 끼칠 정도의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둘째, 실제 아동의 발달지체로 인한 양육상의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모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이해됨. 셋째,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정서적으로 밀착되어있는 비취업모의 경우 아동에 대한 인식이 보다 민감하고 이해수준이 깊어 응답과정에서 극단치로의 체크비율이 취업모에 비해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표 V-4-2〉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영역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53.18	9.18	52.74	9.26	53.37	9.14
대근육운동	56.93	6.87	56.56	6.96	57.08	6.82
소근육운동	54.60	8.70	54.58	8.89	54.61	8.62
문제해결	56.06	7.23	55.68	7.53	56.22	7.10
개인-사회성	54.25	8.48	53.89	8.04	54.41	8.66
위험발달영역 총 개수 평균	0.07	0.34	0.05	0.28	0.08	0.37
의심발달영역 총 개수 평균	0.64	1.10	0.66	1.08	0.62	1.11

〈표 V-4-3〉 K-ASQ: 위험발달(-2·SD) 및 의심발달(-1·SD) 갯수별 분포¹⁷⁾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위험발달 영역 총갯수			
0	94.7	95.6	94.3
1	4.1	3.8	4.2
2	0.9	0.3	1.1
3	0.1	0.1	0.2
4	0.2	0.1	0.3
5	-	-	-
계	100.0	100.0	100.0
의심발달 영역 총갯수			
0	65.8	62.0	67.5
1	17.8	21.2	16.4
2	8.6	10.0	8.0
3	3.9	3.2	4.2
4	2.5	2.2	2.7
5	1.4	1.4	1.3
계	100.0	100.0	100.0

17) 응답 결측 비율이 차이가 남에 따라, 집단 간 기술적 비교가 용이하도록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비율만을 제시·분석하였음

나. 한국형 덴버 II

□ 검사 개요

- 한국형 덴버 II 는 출생~6세 까지의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에 적합한 검사항목별로 아동의 수행정도를 측정함. 또한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발달 속도나 발달의 양상을 알아보는 데 유용함.
- 한국형 덴버 II 역시 전반적인 발달 수준 측정보다는, 생애 초기의 발달상의 문제와 지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판별적 성격이 강함. 일반 지능 검사가 아니며, 이후의 전반적인 발달 및 지적 능력에 대한 명확한 예측기능이나 전문 진단기능을 갖지 않음 (신희선 외, 2002).
- 덴버 II 검사는 아동을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발달, 언어발달, 전체 운동의 4개 영역에 대해 수행능력을 월등(advanced)-정상(normal)-주의(caution)-지연(delayed) 항목으로 구분함.
- 덴버 II 검사는 검사 아동을 해당 연령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판별함. 한 항목에서라도 동 연령대 아동의 90%가 통과한 항목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발달 '지연(delayed)'으로 분류하며, '주의(cautioned)' 항목은 한 항목에서라도 동 연령대 아동의 75%가 통과한 항목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 해당함.
- 최종적으로 4개영역별로 주의·지연 항목 수를 합산하여, 발달 지연 항목이 없고 주의항목이 최대 1개인 경우를 '정상' 범주로 구분함. 1개 항목에서 지연이거나 (또는 지연이면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주의인 경우에는 '의심발달' 범주로 구분함. 검사불능(untestable)은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여겨지는 항목에서 1개 이상의 거부나, 75~90% 사이에 연령선이 지나는 항목에 2개 이상의 거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덴버 II 검사는 본래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Frankenburg, 1975, 1986, 1998), 한국에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10항목으로 이루어진 표준화된 한국형 덴버 II를 적용함(신희선 외, 2002).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 22문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27문항, 언어발달 영역 34문항, 운동발달영역 27문항으로 구성됨.

□ 검사 결과

- 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한, 언어발달, 발달 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정상 범주가 전체 90.7%로 나타났으며, 의심스러운 발달 즉 발달 지체의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8.4%로 나타남.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아동을 비교한 결과, 취업모의 자녀 집단이 비취업모의 자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의심발달 판정 비율을 보임. 검사불능 비율 또한 취업모 자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V-4-4〉 덴버 II 최종 [정상-의심발달-검사불능] 분포

단위: %

덴버 II 4개 영역 총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정상	90.7	88.4	91.7
의심스런 발달	8.4	9.5	7.9
검사 불능	0.9	2.1	0.4
계	100.0	100.0	100.0

- 전체적으로 '미세운동 및 적응 발달'에서의 지연·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V-4-5〉 덴버 II 지연_주의 해당 분포

단위: %

구분	지연항목 있음			주의항목 있음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사회발달	2.5	3.3	2.2	1.0	1.6	0.8
미세운동·적응	2.8	4.3	2.2	11.0	13.0	10.2
언어발달	1.6	1.7	1.6	2.5	2.1	2.6
운동발달	2.6	3.3	2.3	4.9	6.2	4.4
전체 평균	2.38	3.15	2.08	4.85	5.73	4.50

- 언어발달을 제외한 3개 발달 영역에서 비취업모의 아동군에 비해 취업모의 아동군에서 '지연'항목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연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발달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취업모의 아동

군이 비취업모 아동군에 비해 '주의'항목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영아의 언어 발달에 모의 취업이 불리한 환경 요인이 아닌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운동과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 비취업모 환경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V-4-6〉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u>개인-사회성</u>			
0	97.5	96.7	97.8
1	2.4	3.3	2.1
2	0.1	-	0.2
계	100.0	100.0	100.0
<u>미세운동 및 적응발달</u>			
0	97.2	95.7	97.8
1	2.0	3.5	1.4
2	0.6	0.6	0.6
3	0.1	0.2	-
9	0.1	-	0.1
계	100.0	100.0	100.0
<u>언어발달</u>			
0	98.4	98.3	98.4
1	1.3	1.3	1.3
2	0.2	-	0.3
3	0.1	0.4	-
계	100.0	100.0	100.0
<u>운동발달</u>			
0	97.4	96.7	97.7
1	2.0	2.7	1.7
2	0.5	0.4	0.5
3	0.1	0.2	0.1
계	100.0	100.0	100.0
<u>전체</u>			
0	92.5	90.6	93.3
1	5.0	7.0	4.2
2	1.4	0.5	1.7
3	0.6	0.6	0.5
4	0.5	1.3	0.2
10	0.1	0.0	0.1
계	100.0	100.0	100.0

〈표 V-4-7〉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u>개인-사회성</u>			
0	99.0	98.4	99.2
1	1.0	1.6	0.8
계	100.0	100.0	100.0
<u>미세운동 및 적응발달</u>			
0	89.0	87.0	89.8
1	9.8	10.9	9.3
2	1.1	1.8	0.8
3	0.1	0.1	0.1
4	0.1	0.2	-
계	100.0	100.0	100.0
<u>운동발달</u>			
0	95.1	93.8	95.6
1	4.6	5.4	4.3
2	0.3	0.8	0.1
계	100.0	100.0	100.0
<u>전체</u>			
0	83.7	81.5	84.6
1	12.5	12.9	12.3
2	2.7	3.8	2.2
3	0.7	1.1	0.6
4	0.3	0.5	0.2
5	-	0.2	-
6	-	-	0.1
계	100.0	100.0	100.0

- 발달 '주의'항목과 발달 '지연'항목의 수를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언어발달을 제외한 3개 영역, 즉 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 운동에서 일관되게 취업모의 영아보다 비취업모의 영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의 및 지연 항목 갯수가 0개인 경우에 비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후 주의 및 지연 항목 개수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K-ASQ 와 한국형 덴버 II의 검사결과에 대한 논의

- K-ASQ 와 한국형 덴버 II는 상이한 판별 기준과 응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검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음. 부모작성형 K-ASQ는 통계적 유의수준 95%, 즉 해당 연령 평균으로부터 2배수 표준편차까지의 영역에 해당하지 못하는 제한된 경우를 위험발달군으로 판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전체 평균 1.44%)의 위험군을 보임.
- 반면 아동을 직접 관찰하는 덴버 II 검사는 동연령대 90%, 75%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행능력과 비교하여 의심발달 위험군을 판별, K-ASQ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의심발달 위험군 (전체 8.4%)이 조사됨.
- 영역별로 K-ASQ 검사결과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이 전체 아동의 발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왔다면, 덴버 II 검사결과에서는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남. 검사자가 주 양육자인지 혹은 제 3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인지에 따른 차이가 판별결과에 일부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두 집단의 발달위험군을 비교한 결과, K-ASQ 검사에서는 의사소통과 사회성의 영역에서, 덴버검사에서는 언어를 제외한 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 운동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취업모 아동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남.
- 이를 해석하자면, 모의 취업으로부터 부적 영향을 받는 K-ASQ 고위험군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의 영역에서 상대적 열세가 두드러진다면; 모의 취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적 영향을 받는 덴버 II 위험군 아동의 경우, 언어를 제외한 발달 전반에 걸쳐 비취업모 아동 집단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는 것으로 이해됨.
- K-ASQ 검사결과에서는 상대적 고위험군인 위험발달군에서 비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K-ASQ 검사의 의심발달군과 덴버 II 검사의 의심발달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영아기 모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됨.
- 덴버 II 검사의 최종 분류(정상-의심발달)와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을 교차분석한 결과, 비취업모 집단에서 두 검사의 범주간 내적 일치도가 취업모 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남(분석표는 생략). 이는 모의 취업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단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맥락 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면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추후 분석을 통해 모의 취업과 같은 환경변인과 아동발달의 다양한 상호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사료됨.

다. 기질

□ 아동의 기질

○ 정서성

〈표 V-4-8〉 아동특성_기질: 정서성 문항별 평균

단위: 점

문항		잘 옳	감정적인 편이다	종종 보채면서 울	쉽게 기분이 나빠짐	화났을 때 격하게 반응함
전체	평균	2.45	3.11	2.81	2.25	2.97
	표준편차	0.84	0.78	0.93	0.79	1.02
취업모	평균	2.37	3.11	2.76	2.25	2.97
	표준편차	0.80	0.74	0.87	0.75	1.01
비취업모	평균	2.49	3.11	2.81	2.25	2.97
	표준편차	0.84	0.78	0.93	0.79	1.02

- 아동의 정서적 기질 5개 항목을 어머니로 하여금 평정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편이다'에서 아동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임.
-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정서적 기질을 조사한 결과, '잘 옳다'와 '종종 보채면서 울다'와 같은 울음의 특성에서 비취업모의 자녀들이 취업모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우는 것으로 조사됨.
- 다른 항목의 정서적 기질에서는 취업모 비취업모간에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활동성

- 활동적인 측면의 아동의 기질 5개 항목을 어머니가 평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녀가 '항상 움직인다'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활동시 천천히 움직임'과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좋아함'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 대체적으로 활동성과 움직임이 영아 기질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남.

-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활동성을 조사한 결과,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임'과 '매우 활동적'의 2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른 활동적 기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V-4-9〉 아동특성_기질: 활동성 문항별 평균

단위: 점

문항		항상 움직인다	활동시 천천히 움직임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임	매우 활동적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좋아함
전체	평균	3.89	2.35	3.65	3.81	2.35
	표준편차	0.79	0.81	0.89	0.81	0.77
취업모	평균	3.91	2.35	3.73	3.87	2.33
	표준편차	0.78	0.78	0.83	0.80	0.75
비취업모	평균	3.88	2.34	3.62	3.79	2.36
	표준편차	0.79	0.82	0.91	0.82	0.77

라. 기초생활습관

□ 아동의 기초생활습관

○ 수면 습관

- 아동의 수면습관에 관한 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손가락을 빨려고 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잠들기 전 혼자 웅얼이 손장난 놀이를 함'으로 나타남. 이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보이는 기본 발달 특성(빨기 본능, 웅얼이 단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면습관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 '밤에 깨지 않고 잘 자는지'의 항목에서 5점 평정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이긴 했으나, 5개 수면 습관 중 상대적으로 평균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수면습관을 조사한 결과, 비취업모의 영아가 '하루 취침 및 깨어있는 시간'과 '취침전 수유후 금방 잠이 드는가'의 측면에서 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면습관을 가짐.
- 다른 항목의 수면 습관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V-4-10〉 기초생활습관_수면: 문항별 평균

단위: 점

문항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취침 전 수유 후 금방 잠이 들	3.80	0.91	3.72	0.93	3.83	0.90
밤에 깨지 않고 잘 잠	3.58	1.16	3.59	1.10	3.58	1.18
1일 14~16시간 취침, 낮 2~3시간 깨어있음	3.78	1.05	3.65	1.04	3.83	1.04
손가락을 빨려고 함	4.37	0.78	4.34	0.75	4.38	0.79
잠들기 전 혼자 웅얼이, 손장난놀이를 함	4.05	0.88	4.02	0.85	4.06	0.89

○ 수유 습관

- 아동의 수유 습관에 관한 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하루 5~8회 먹음'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배가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잘 기다리지 못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전체적으로 아동의 수유습관이 5점 평정 평균이상의 '보통'과 '대체로 그런 편' 사이에 해당됨.

〈표 V-4-11〉 기초생활습관_수유: 문항별 평균

단위: 점

문항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하루 5~8회 먹음	4.37	0.72	4.30	0.70	4.39	0.72
수유시간 되면 칭얼대나 매번 우는 건 아님	3.89	0.91	3.89	0.89	3.88	0.92
도움없이도 젖꼭지 잘 무는 편	3.87	1.03	3.82	1.03	3.88	1.02
힘차게 빨다	3.64	1.04	3.68	0.99	3.62	1.05
배가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잘 기다리지 못 함	2.98	1.14	3.10	1.11	2.93	1.15

-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수유습관을 조사한 결과, '하루 5~8회 먹음'과 '배가 부르지 않은 경우 잘 못 기다림'의 두 항목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어 보임. 비취업모의 영아가 취업모의 영아에 비해 1일 수유 횟수

(5~8회)와 수유 중 기다림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유습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모의 양육을 통해 아동의 수유횟수와 수유 중 기다림의 훈련이 비취업모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음. 다른 항목의 수유 습관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배변 및 씻기 습관

- 아동의 배변습관에 대해 2개 항목(횟수, 시간)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1세 미만 영아의 배변 습관이 형성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됨. 아동의 씻기 습관에 관한 1개 항목, 즉 아동이 목욕시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배변습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임.
- 아동이 매일 1~2회 대변을 보는 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라는 긍정응답의 합이 전체 74.3%로 높게 나타남.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의 합은 전체 16%로 높지 않게 나타남.
- 대변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 일정한 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라는 긍정응답의 합이 전체 57.8%,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의 합은 전체 23.4%로 나타남.
- 목욕을 좋아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라는 긍정응답의 합이 약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V-4-12〉 기초생활습관_배변/씻기

단위: %, 점

구분	하루 1~2회 대변			대변 시간 일정			목욕 시간 좋아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혀그렇지않음	2.1	1.9	2.2	1.8	1.1	2.1	0.1	-	0.1
별로그렇지않음	13.9	13.3	14.2	21.6	18.0	23.1	1.7	1.4	1.8
보통	9.7	10.1	9.5	18.8	20.9	17.9	6.5	6.1	6.7
대체로그러함	43.9	47.4	42.4	41.1	44.4	39.7	26.8	27.0	26.7
매우 그러함	30.4	27.2	31.8	16.7	15.6	17.2	64.9	65.5	64.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표준편차)	3.87 (1.06)	3.85 (1.03)	3.87 (1.08)	3.49 (1.06)	3.55 (0.99)	3.47 (1.09)	4.55 (0.70)	4.57 (0.67)	4.54 (0.71)

-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배변 및 씻기 습관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어 보임.

5. 육아지원 관련 특성

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서비스 이용여부

-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보면, 어머니가 양육하는 비율(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84.4%, 개인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15.6%로 나타남.
- 비취업모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고 있으나, 취업모의 경우 조사 당시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51.5%로 나타남. 대리양육을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들은 아직까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또는 학업모인 경우 아직까지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여겨짐.
-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취업모 응답자가 소수이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비취업모를 제외하고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표 V-5-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어머니 양육	84.4	48.5	99.8
부모 외의 대리양육자	15.6	51.5	0.2
계	100.0	100.0	100.0

○ 서비스 이용 이유

-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99% 이상의 어머니들이 직장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여서 취업모의 경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표 V-5-2〉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직장 일을 하기 위하여	99.1
공부를 하기 위하여	0.4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기를 돌보는 일이 몸에 무리가 되어서	-
개인시간을 갖기 위하여	0.3
대리양육자가 돌보는 것이 아기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0.2
계	100.0

○ 서비스 형태

- 이용 중인 육아지원서비스의 형태로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6.7%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2.6%,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이용한다는 응답이 소수 있었음.
- 이를 통해 만1세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대리양육을 보육시설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V-5-3〉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개인 대리양육자(조부모, 친척, 도우미 등)	86.7
보육시설 이용(어린이집, 놀이방)	12.6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모두	0.7
계	100.0

□ 최초 대리양육 특성

○ 최초 대리양육 시작시기

- 1차년도 조사 현재 대리양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대리양육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평균 11.1주로 평균적으로 생후 3개월 이내에 대리양육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취업모가 출산 휴가를 마치기 전에 대리양육을 시작하기 때문으로 여겨 짐.

〈표 V-5-4〉 최초 대리양육 시작시기

단위: 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초 대리양육 이용 시기	11.10	5.86

주: 개인대리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모두 포함한 것임.

○ 최초 대리양육 형태

- 아동에게 최초의 대리양육자는 외조부모/친조부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육아도우미나 가사도우미 같은 비혈연 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10% 이내임.
- 최초의 대리양육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약 12.0%였으며, 개인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은 0.5%로 소수 있었음.

〈표 V-5-5〉 최초의 대리양육자

단위: %

구분	전체
친할머니	34.4
친할아버지	1.5
외할머니	35.8
외할아버지	0.2
기타 친인척	6.2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육아 도우미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8.9
과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0.5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	11.9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모두	0.5
계	100.0

○ 대리양육에서 중요한 점

- 현재 대리양육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음.
- 이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아이가 가족이나 집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1.5%가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라고 답해, 아동의 입장에서 대리양육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이용시간이나 비용과 같이, 대리양육의 특성 가운데 부모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비율은 5% 이내로 소수였음.

〈표 V-5-6〉 대리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

단위: %

구분	전체
아이가 가족이나 집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50.5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	41.5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3.4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	0.1
잘 모르겠음	-
계	100.0

□ 개인대리양육

○ 개인대리양육 이용 이유

-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육시설 대신 개인대리양육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5.6%였음. 보육시설 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은 6.0%를 차지하였음.

○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 개인대리양육자와 아동과의 관계는 외할머니가 돌보아주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친할머니가 돌보아주는 비율은 37.6%, 기타 친인척은 7.1% 등으로 친인척이 개인대리양육을 맡아주는 사례가 전체의 87.9%를 차지함.
- 반면, 육아도우미나 가사도우미 같은 비친인척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은 12.1%였음.
- 따라서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친인척 대리양육을 비친인척 대리양육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인대리양육자에 관한 이후의 분석은 친인척과 비친인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¹⁸⁾

〈표 V-5-7〉 개인대리양육 이용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56.4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3.6
비용이 부담되어서	2.1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1.3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하여서	6.0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25.6
주변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0.8
대리양육자에게 더 믿음이 가서	4.1
계	100.0

〈표 V-5-8〉 개인대리양육자 관계

단위: %

구분	전체
친할머니	37.6
친할아버지	0.9
외할머니	41.9
외할아버지	0.4
기타 친인척	7.1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부모 등)	11.6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0.5
계	100.0

○ 비친인척 개인대리양육자 구인 경로

- 비친인척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구인 경로는 주변의 소개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평소 알던 사람이라는 응답이 16.6%로 구인 활동의 절반 가량이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온라인 상의 구인,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4.2%로 오프라인상의 구인, 구직 광고나 전문업체나 기관의 소개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인을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구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8) 비친인척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 응답표본이 소수이므로(n=39)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이 점에 유의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바람.

〈표 V-5-9〉 개인대리양육자 구인 경로

단위: %

구분	전체
평소 알던 사람임	16.6
주변의 소개로	32.1
온라인상의 구인, 구직 광고로	24.2
오프라인상의 구인, 구직 광고로	15.0
업체, 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로	12.1
계	100.0

- 개인대리양육자 거주지
 - 개인대리양육자의 거주지는 함께 살면서 아동을 돌보아준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고, 아동을 대리양육자의 집에 낮시간 동안 맡기는 형태가 28.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아동만 대리양육자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응답도 19.4%를 차지해, 취업모가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을 위탁하는 사례가 20% 가까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V-5-10〉 개인대리양육자 거주지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함께 살고 있음	34.1	36.1	19.2
아기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19.4	22.1	-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18.5	17.0	29.2
아기를 이분 집에 낮시간동안 맡기고 있음	28.0	24.7	51.6
계	100.0	100.0	100.0

- 개인대리양육자 이용 빈도
 - 개인대리양육자의 이용 빈도는 주중에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을 포함하여 6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33.2%였음. 일주일에 몇 일만 맡긴다는 응답은 3.8%로 매우 소수였음.
 -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5-11〉 개인대리양육자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4.2	13.9	16.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3.0	62.1	69.7
일주일 내내	19.0	20.4	9.1
일주일에 며칠만	3.8	3.7	5.1
계	100.0	100.0	100.0

○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지불방식

- 개인대리양육자에 대한 이용비용 지불 방식은 친인척 개인대리양육자의 경우 정기적, 비정기적 현금 지불, 비정기적 현금 지불, 현물 지불, 숙식만 제공, 지불 안함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비친인척의 경우는 모두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인척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전체 80.2%로 가장 많았으나,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11.4%였음.
- 현물로 지불한다는 응답은 전체 2.4%이며, 숙식만 제공한다는 응답도 0.8%로 소수 있었음.

〈표 V-5-12〉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지불방식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82.6	80.2	100.0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4.0	4.6	-
현물로 지불	2.4	2.8	-
숙식만 제공	0.8	0.9	-
지불 안함	10.1	11.4	-
계	100.0	100.0	100.0

○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 개인대리양육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월 평균 약 63만 7천원 가량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값은 60만원이었음.
-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는 편차가 매우 커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분포함. 따라서 평균은 월 60만원 가량이나 중위값은 50만원 수준임.

〈표 V-5-13〉 개인대리양육 이용비용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전체	66.3	28.5	60.0
현금 지급	63.7	28.5	60.0
현물 지급	59.8	28.7	50.0

주: 현물지급의 경우 응답표본수가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n=6)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

○ 개인대리양육에 대한 만족도

- 이용 중인 개인대리양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비교적 만족한다는 응답도 43.5%나 되어서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응답자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친인척을 이용하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한 사례도 일부 있었음. 이는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비친인척 대리양육자의 경우 불만족하면 다른 대리양육자로 교체하겠지만, 친인척 대리양육자는 불만족하더라도 비용 상의 이유 등으로 이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표 V-5-14〉 개인대리양육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매우 불만족	0.9	1.1	-
비교적 불만족	0.6	0.7	-
보통	9.9	8.0	23.9
비교적 만족	43.5	43.3	44.8
매우 만족	45.0	46.9	31.2
계	100.0	100.0	100.0
평균(표준편차)	4.31(0.75)	4.34(0.75)	4.07(0.74)

- 개인대리양육자 성별
 - 개인대리양육자의 성별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비친인척 대리양육자는 100.0%가 여성으로 나타남.
 - 친인척 개인대리양육자에 포함된 소수 남성은 아동의 외조부나 친조부일 것으로 여겨짐.

〈표 V-5-15〉 개인대리양육자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남자	1.3	1.4	-
여자	98.7	98.6	100.0
계	100.0	100.0	100.0

- 개인대리양육자 학력
 - 개인대리양육자의 학별은 중졸 이하가 45.9%, 고졸이 38.7%로 대부분이 고졸 이하임.
 - 대졸인 경우는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학력을 모르는 경우도 8.8%였음. 특히 비친인척 대리양육자의 경우 학별을 모르는 경우가 24.8%에 달했음.

〈표 V-5-16〉 개인대리양육자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중졸 이하	45.9	51.0	8.7
고졸	38.7	36.6	54.2
전문대졸	1.2	0.5	6.5
대졸	5.4	5.4	5.9
잘 모름	8.8	6.6	24.8
계	100.0	100.0	100.0

- 개인대리양육자의 결혼상태
 - 개인대리양육자의 결혼상태는 결혼 중인 경우가 83.1%로 대다수였으며, 사별인 경우가 14.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미혼은 극소수임.

〈표 V-5-17〉 개인대리양육자 결혼상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미혼	0.2	0.3	-
결혼	83.1	82.7	86.2
이혼	1.9	2.2	-
사별	14.8	14.9	13.8
계	100.0	100.0	100.0

- 개인대리양육자의 국적
 - 개인대리양육자의 국적은 한국인인 경우가 98.2%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족과 기타 외국인이 각각 1.3%, 0.5%를 차지함.
 - 대리양육자가 친인척인 경우 99.7%가 한국인이며, 비친인척인 경우 조선족이 8.5%, 기타 외국인이 4.4%로 한국인 이외의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약 12.9%로 나타남.

〈표 V-5-18〉 개인대리양육자 국적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한국인	98.2	99.7	87.1
조선족	1.3	0.3	8.5
기타 외국인	0.5	-	4.4
계	100.0	100.0	100.0

- 개인대리양육자의 자녀양육 경험

〈표 V-5-19〉 개인대리양육자 자녀양육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있음	95.1	95.0	96.0
없음	3.9	3.9	4.0
잘 모름	1.0	1.1	-
계	100.0	100.0	100.0

- 개인대리양육자들의 95.1%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개인대리양육자들이 자녀양육을 경험한 것으로 보임.

□ 보육시설¹⁹⁾

○ 보육시설 이용이유

-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1%가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했으며, 개인 대리양육자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23.8%를 차지해, 보육시설 환경을 선호하여 보육시설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대리양육의 차선택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임.
- 반면 보육시설이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는 또래와 어울릴 수 있다는 보육시설의 장점에 기반하여 보육시설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5% 미만임. 기타 응답은 엄마가 어린이집 교사여서 같은 어린이집에 있다거나 셋째는 보육시설 이용 시 혜택이 주어져서 등이 있었음.

〈표 V-5-20〉 보육시설 이용이유

단위: %

구분	비율
개인 대리양육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23.8
개인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되어서	43.1
개인 대리양육자를 믿을 수 없어서	7.9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1.5
아이에게 보육시설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4
기타	11.2
계	100.0

○ 보육시설 설립유형

- 아동이 이용 중인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기타법인/법인외(단체)/민간개인/직장/가정(놀이방)/공동육아/기타 등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부모가 설립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면접 당시 기입한 보육시설 이

19) 조사시점 당시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 수는 소수이므로(n=46) 전체 아동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움.

름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설립유형을 사후 코딩함.

- 조사시점 당시 기타법인이나 직장보육시설, 공동육아를 이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가정보육시설의 이용률이 63.7%로 가장 높았음. 두 번째로는 민간개인 보육시설 이용이 27.0%로 많았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은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표 V-5-21〉 보육시설 설립유형

단위: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외 (단체)	민간 개인	가정 (놀이방)	계
전체	5.1	1.8	2.4	27.0	63.7	100.0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는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지 않고, 보육시설 이름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조사시점 당시 평가인증 보육시설 목록과 비교, 코딩하여 변인을 생성하였음.
- 이용 중인 보육시설의 35.5%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로 나타났음.

〈표 V-5-22〉 보육시설 특성

단위: %

구분	평가인증 여부	구분	시설 유형
미인증	64.5	일반 보육시설	95.9
인증	35.5	영아 전담	4.1
계	100.0	계	100.0

○ 보육시설 대상별 시설유형

- 보육시설의 대상별 시설유형은 일반보육시설, 영아전담 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방과후 전담시설, 방과후 통합시설과 구분되며, 부모가 잘 모르는 경우, 면접 당시 기입한 보육시설 이름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설립유형을 사후 코딩함.
- 조사시점에서 95.9%의 아동들이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영아전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소수 있었음. 나머지 시설유형은 이용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V-2-22 참조).

○ 보육시설 주변환경

- 보육시설의 주변 환경은 일반 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57.9%로 가장 많았고, 일반 주택지역이 34.6%였으며, 그 밖에 소수응답으로 상가 지역이 4.5%, 농/어가 지역이 2.9%를 차지했음.

〈표 V-5-23〉 보육시설 주변 환경

단위: %

구분	일반주택지역	아파트지역	상가 지역	농/어가 지역	계
전체	34.6	57.9	4.5	2.9	100.0

○ 보육시설 이용 빈도

- 보육시설 이용 빈도는 개인대리양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주중 5일 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토요일까지 이용한다는 응답도 16.0%였음. 일주일에 며칠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주 5일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5-24〉 보육시설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6.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8.1
일주일에 며칠만	5.9
계	100.0

○ 보육시설 이용 시간

- 평상시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9~11시간 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1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28.9%나 되었음. 아동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긴 이유는 보육시설 이용자들이 취업모이기 때문으로 여겨짐.
- 평상시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약 9.7시간이며 최대 12.5시간까지 이용하고 있었음.

〈표 V-5-25〉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 분

구분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용 시간	6.7	17.8	46.6	28.9	100.0	582.10	100.72	310	750

○ 보육시설 등하원 시간

- 보육시설의 등원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7.68분, 하원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7.91분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등하원에 하루 약 15~16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아동들이 집에서 10분 거리 이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이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표 V-5-26〉 보육시설 등하원시간

단위: 분

구분	3분 이내	5분 이내	10분 이내	30분 이내	30분 이상	계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원시 걸리는 시간	20.7	30.0	42.9	6.5	-	100.0	7.68	4.73	30	2
하원시 걸리는 시간	20.7	30.0	42.9	5.3	1.1	100.0	7.91	5.70	40	2

○ 보육비 지원 여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비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약 56.5%가 일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고, 전액 면제를 받는 아동도 9.9%로 전체 이용 아동의 3분의 2 가량이 보육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5-27〉 보육비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전액 면제	일부 감면	아무런 혜택 없음	계
전체	9.9	56.5	33.6	100.0

○ 보육비 지원 사유

-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사유로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두 자녀 이상 보육비 감면 혜택이 31.2%로 두 번째로 많았음.
- 기타 사유로는 취업여성 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

〈표 V-5-28〉 보육비 지원 이유(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7.0
기타 저소득층(차등보육료)	35.6
두 자녀 이상	31.2
기타	16.2
계	100.0

○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 이용 중인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음.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5%를 차지함.
- 5점 척도로 환산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71점으로 이는 대리양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31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따라서 보육시설보다 개인대리양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V-5-29〉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1.6
비교적 불만족	5.9
보통	27.7
비교적 만족	48.1
매우 만족	16.7
계	100.0
평균(표준편차)	3.71(0.86)

- 보육시설과 대리양육 병행 이유
 - 소수이긴 하나 보육시설과 대리양육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탐색한 결과,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장시간 있기 힘들까봐 라는 응답이 69.2%,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제한되어서라는 응답이 30.8%였음.
 - 엄마의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가지 서비스로는 대리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육아지원서비스

- 정기 프로그램 이용 여부
 - 개인대리양육이나 보육시설 외에 아동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
 - 전체 아동의 4.6%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취업모 아동보다 비취업모 아동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V-5-30〉 정기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참여 프로그램 있음	참여 프로그램 없음	계
전체	4.6	95.4	100.0
취업모	3.3	96.7	100.0
비취업모	5.1	94.9	100.0

- 정기 프로그램 내용

〈표 V-5-31〉 정기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통합 프로그램	47.8	43.5	48.9
한글 프로그램	0.8	-	1.0
기타(베이비 마사지, 요가)	51.4	56.5	50.1
계	100.0	100.0	100.0

- 이용 중인 정기 프로그램은 크게 통합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베이비마사지, 요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아동들이 통합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기 프로그램 이용 기관

- 정기 프로그램의 형태는 대부분 아동을 데리고 기관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 가구방문을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소수임.
- 가구방문의 경우 취업모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을 데리고 기관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구방문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V-5-32〉 정기 프로그램 기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개인 대상 가구 방문	1.5	4.8	1.5
기관 방문	98.5	95.2	98.5
계	100.0	100.0	100.0

○ 정기 프로그램 이용 횟수

- 정기 프로그램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4.13회로 대부분의 정기 프로그램을 주 1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취업모의 이용횟수가 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V-5-33〉 정기 프로그램 이용 횟수

단위: 회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3	1.70	3.94	1.16	4.18	1.82
통합 프로그램	3.80	0.69	3.49	0.87	3.87	0.61
한글 프로그램	4.00	-	-	-	4.00	-
기타(베이비 마사지, 요가)	4.16	1.74	4.03	0.70	4.20	1.95

- 정기 프로그램 참여 시간
 - 정기 프로그램의 회당 참여시간은 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3분, 기타 프로그램은 약 47분으로 나타남.
 - 한글 프로그램은 회당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인 것으로 여겨짐.

〈표 V-5-34〉 정기 프로그램 이용 참여시간

단위: 분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7.64	16.68	49.87	15.34	47.05	16.97
통합 프로그램	43.40	8.35	49.08	14.20	42.06	5.41
한글 프로그램	120.00	-	-	-	120.00	-
기타(베이비 마사지, 요가)	47.26	10.86	47.26	9.47	47.26	11.24

- 정기 프로그램 비용
 - 정기 프로그램의 월별 이용 비용은 대략 3~4만원 가량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 1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회당 이용비용은 1만원 안팎으로 계산됨.

〈표 V-5-35〉 정기 프로그램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3	3.01	4.52	3.55	3.53	2.83
통합 프로그램	4.16	3.24	4.59	3.10	4.06	3.27
한글 프로그램	-	-	-	-	-	-
기타(베이비 마사지, 요가)	3.52	3.14	4.35	3.79	3.29	2.90

나. 지역사회특성

- 지역사회의 육아관련 특성
 -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시설
 -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 시설이 충분한지 질문한 결

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불충분하다는(불충분 또는 매우 불충분) 응답이 약 20%를 차지함. 유치원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약 24%로 보육시설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응답비율이 26% 가량을 차지해, 사교육기관, 유치원, 보육시설 순으로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 유치원, 사교육기관 모두에 대해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V-5-36〉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 시설 충분성

단위: %, 점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사교육기관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충분함	11.2	11.8	10.9	8.3	9.2	7.9	10.0	10.8	9.7
충분함	44.2	44.9	43.9	38.4	41.9	37.0	35.6	35.7	35.5
보통임	25.4	25.1	25.6	29.4	28.9	29.7	28.6	30.2	28.0
불충분함	15.7	15.7	15.6	19.5	16.6	20.7	21.6	20.8	21.9
매우불충분함	3.5	2.5	4.0	4.4	3.5	4.8	4.2	2.6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56	2.52	2.58	2.73	2.63	2.78	2.74	2.69	2.84
표준편차	1.00	0.97	1.01	1.01	0.98	1.02	1.04	1.00	1.10

○ 공공여가 공간 및 문화시설

-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의 공공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한지 묻는 질문에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으나,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3.6%로 두 번째로 높음.
-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불편하다고 답했으며, 편리하다는 응답은 21.9%에 불과해 공공여가 공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지역사회 내의 공공여가 공간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5-37〉 공공여가 및 문화시설 편리성

단위: %, 점

구분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편함	9.9	12.3	8.9	4.3	6.8	3.2
편리한 편임	37.3	40.6	35.9	17.6	20.3	16.5
보통임	23.3	22.4	23.7	22.1	23.1	21.7
불편한 편임	23.6	20.4	24.9	39.4	35.9	40.8
매우 불편함	5.9	4.3	6.6	16.7	14.0	1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8	2.64	2.84	3.47	3.30	3.53
표준편차	1.10	1.01	1.10	1.10	1.14	1.06

○ 치안 및 안전사고

-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치안 측면에 대해서는 전체의 45.4%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2.2%를 차지함.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7.8%임.

〈표 V-5-38〉 치안 및 안전사고

단위: %, 점

구분	치안			안전사고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안전	4.6	7.1	3.5	3.6	5.6	2.8
비교적 안전	45.4	47.6	44.5	37.4	40.0	36.4
보통	32.2	31.1	32.7	32.7	33.4	32.4
비교적 위험	15.9	12.8	17.1	23.2	19.1	24.8
매우 위험	1.9	1.4	2.1	3.1	1.8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65	2.54	2.70	2.85	2.71	2.90
표준편차	0.67	0.86	0.87	0.92	0.90	0.93

- 지역사회 안전사고의 측면에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보다 더 강했음. 전체의 37.4%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한 반면, 비교적 또는 매우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도 26.3%로 4분의 1이 넘었음.

- 전반적으로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치안 및 안전사고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좋다는 응답은 33.9%, 좋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9.0%였음.
-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에 대해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5-39〉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단위: %, 점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좋음	4.7	6.0	4.2
좋음	33.9	35.8	33.2
보통	42.4	44.1	41.7
좋지 않음	16.6	12.7	18.2
매우 좋지 않음	2.4	1.4	2.8
계	100.0	100.0	100.0
평균	2.78	2.68	2.82
표준편차	0.86	0.82	0.87

다. 육아지원정책 특성

□ 정책의 방향

○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모성보호 제도와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4%가 두 가지 모두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취업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육아 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비취업모는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V-5-40〉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방향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및 확대	23.6	21.8	24.4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36.0	37.5	35.3
두 가지 모두	40.4	40.7	40.3
계	100.0	100.0	100.0

□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

-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가운데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휴가와 휴직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에 대해 대부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5-41〉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휴가 및 휴직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의 출산 휴가	전체	0.9	0.2	0.7	3.8	94.4	100.0	4.91	0.47
	취업모	-	0.2	1.3	2.3	96.2	100.0	4.95	0.30
	비취업모	1.3	0.2	0.5	4.4	93.6	100.0	4.89	0.53
여성의 육아 휴직	전체	0.8	0.3	1.0	5.8	92.1	100.0	4.88	0.49
	취업모	-	0.2	1.3	7.0	91.5	100.0	4.90	0.36
	비취업모	1.1	0.4	0.8	5.3	92.4	100.0	4.87	0.53
남성의 출산 휴가	전체	0.8	1.1	4.2	23.3	70.5	100.0	4.62	0.70
	취업모	0.3	1.0	4.7	26.9	67.0	100.0	4.59	0.66
	비취업모	1.0	1.1	4.1	21.8	72.0	100.0	4.63	0.71
남성의 육아 휴직	전체	0.6	2.8	13.9	27.6	55.0	100.0	4.34	0.86
	취업모	0.3	3.5	17.0	27.6	51.4	100.0	4.26	0.89
	비취업모	0.7	2.6	12.6	27.6	56.4	100.0	4.37	0.85

- 남녀 간의 차이를 보면,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70.5%, 50.0%로 떨어졌음.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은 네 가지 제도 가운데 가장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지원 서비스 중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전체의 81.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87.1%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두 가지 모두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V-5-42〉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보육지원

단위: %, 점

구분	직장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불필요	0.9	-	1.3	0.9	-	1.3
대체로 불필요	0.5	0.7	0.4	0.1	0.2	0.1
보통	2.4	2.2	2.4	1.2	1.6	1.1
대체로 필요	15.2	14.4	15.6	10.6	9.2	11.2
매우 필요	81.0	82.7	80.3	87.1	89.0	8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75	4.79	4.73	4.83	4.87	4.81
표준편차	0.61	0.50	0.65	0.54	0.40	0.58

- 수유실 설치와 유급 수유시간 제공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0.6%, 72.3%로 나타나, 보육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흥미로운 것은 모성보호의 경우 비취업모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들이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더 크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표 V-5-43〉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모성보호

단위: %, 점

구분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불필요	1.3	0.7	1.6	1.1	-	1.6
대체로 불필요	0.6	1.4	0.3	0.8	1.2	0.6
보통	3.6	5.4	2.9	4.7	6.5	4.0
대체로 필요	13.9	18.5	12.0	21.0	23.1	20.2
매우 필요	80.6	74.0	83.3	72.3	69.1	7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72	4.64	4.75	4.63	4.60	4.64
표준편차	0.68	0.71	0.67	0.72	0.67	0.73

- 시차 출근제와 대체인력풀 운영과 같은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3.5%, 61.3%로 다른 일과 가정 양립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그러나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90%를 육박하고 있어 여전히 필요성이 높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음.

〈표 V-5-44〉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단위: %, 명

구분	시차 출근제			대체인력풀 운영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불필요	0.6	0.2	0.8	0.5	-	0.8
대체로 불필요	1.7	1.1	2.0	1.6	1.7	1.6
보통	9.9	10.8	9.4	9.9	11.5	9.3
대체로 필요	24.4	23.7	24.6	26.6	24.8	27.4
매우 필요	63.5	64.2	63.2	61.3	62.0	6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48	4.51	4.47	4.46	4.47	4.46
표준편차	0.79	0.75	0.81	0.78	0.76	0.79

-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우선순위
 - 각각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우선순위를 3가지만 순서대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는 여성의 출산휴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3순위로 보육비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러한 결과는 위에 나타난 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도 일치함. 즉, 여성의 출산휴가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제도이며, 이어서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순으로 중요도를 차지함.

〈표 V-5-45〉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여성의 출산휴가	62.9	64.7	62.2	10.3	9.1	10.8	4.3	3.4	4.7
여성의 육아휴직	13.8	13.6	13.9	45.6	47.1	45.0	12.7	12.6	12.7
남성의 출산휴가	1.2	1.3	1.1	6.0	3.3	7.2	9.8	7.4	10.8
남성의 육아휴직	1.0	0.3	1.2	4.1	2.9	4.6	6.9	5.2	7.6
직장 보육시설	6.5	9.4	5.3	11.4	15.2	9.8	17.8	21.0	16.4
보육비 지원	12.5	9.4	13.8	16.9	15.8	17.3	31.8	30.9	32.1
수유실 설치	0.6	0.4	0.7	1.6	1.2	1.8	3.6	4.5	3.2
유급 수유시간	0.3	0.2	0.3	1.3	1.8	1.2	2.5	3.0	2.3
시차 출근제	0.7	0.7	0.7	2.1	2.4	2.0	8.8	10.0	8.3
대체인력풀 운영	0.5	0.1	0.7	0.7	1.3	0.4	2.0	2.1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육아지원 정책 수혜

-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여부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 정책 가운데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2.2%가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체 패널의 약 2.2%가 농어민 가정 육아비 지원의 수혜 대상인 것으로 여겨짐.

〈표 V-5-46〉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수혜	2.2	1.0	2.7
비수혜	97.8	99.0	97.3
계	100.0	100.0	100.0

○ 도우미 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경우 전체의 14.4%가 수혜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서비스가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이용 비율이 1.4%에 불과함. 그러나 이는 아동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서비스가 아직까지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일 수 있음.

〈표 V-5-47〉 도우미 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산모, 신생아 도우미(보건소, 병원 등에서 신청)	14.4	7.3	17.4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1.4	1.8	1.3
이용해 본 적 없음	84.1	90.9	81.4
계	100.0	100.0	100.0

□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

- 직장에 다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의 시행여부를 응답하도록 함.
- 대부분의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직장도 72.5%임. 그러나 나머지 제도들은 시행하고 있는 직장이 모두 절반 이하이며, 대부분 시행비율이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육아 지원제도의 시행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표 V-5-48〉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의 출산휴가	96.3
여성의 육아휴직	72.5
남성의 출산휴가	44.1
남성의 육아휴직	32.6
직장 보육시설	14.7
보육비 지원	25.2
수유실 설치	19.6
유급 수유시간	19.8
시차 출근제	21.2
대체인력풀 운영	18.4

-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
 - 직장에서 시행 중인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각각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휴가는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제도의 이용률은 대략 50~60% 정도로 나타남.

〈표 V-5-49〉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의 출산휴가	97.3
여성의 육아휴직	57.6
직장 보육시설	20.5
보육비 지원	61.4
수유실 설치	50.5
유급 수유시간	47.1
시차 출근제	37.5
대체인력풀 운영	64.4

주: 응답자가 어머니이므로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음.

-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은 대체인력풀 이용과 보육비 지원이며, 직장보육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직까지 아동이 어리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외의 대리양육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직장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만족도
 - 각각의 직장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당부분을 차지함.
 - 5점 척도로 직장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여성의 육아휴직과 대체인력풀 운영으로 각각 4.12, 4.01점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수유실 설치와 보육비 지원으로 각각 3.42, 3.48점이었음.

〈표 V-5-50〉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의 출산휴가	1.7	8.5	16.0	52.4	21.4	100.0	3.83	0.916
여성의 육아휴직	1.0	2.5	9.0	58.6	28.9	100.0	4.12	0.746
직장 보육시설	4.0	-	21.1	45.0	29.8	100.0	3.97	0.932
보육비 지원	0.9	9.4	36.4	47.2	6.1	100.0	3.48	0.785
수유실 설치	-	8.9	49.6	32.8	8.8	100.0	3.42	0.772
유급 수유시간	-	3.6	28.9	52.0	15.5	100.0	3.79	0.739
시차 출근제	-	4.6	26.0	38.1	31.2	100.0	3.96	0.869
대체인력풀 운영	-	-	20.3	58.7	21.0	100.0	4.01	0.643

주: 응답자가 어머니이므로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음.

VI. 향후 추진 계획

1. 2010년 주요 연구 내용

□ 2차년도 데이터 구축

○ 2차년도 자료 처리

- 2009년 10월 조사 완료된 2차년도 자료에 대한 코딩(사후 코딩 문항 포함) 및 편칭, 자료 클리닝 및 에디팅 실시
- 2차년도 자료의 무응답 및 표본 마모(sampling attrition) 등에 따른 편향을 보정할 수 있는 무응답 보정 및 사후가중치 조정 방법 개발
-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모두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 2차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

- 2차년도 조사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실시
- 통계분석 과정에서 모집단의 주요 특성별 분포를 1차년도 분석결과와 비교해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무응답 성향을 파악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 발간

- 2009년 12월 완료되는 심층조사의 검사결과를 입력, 자료를 생성함.
- 심층조사의 검사 결과와 1차년도 일반조사 자료를 병합(merge)하여 분석을 위한 통합 데이터셋 생성
- 심층조사 자료 분석
 - 심층조사 검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 실시
 - 주요 발달 변인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변인별 심층분석 실시
-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결과를 담은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 발간(상반기 예정)

□ 3차년도 조사 준비 및 실시

- 2차년도 조사결과 검토 및 아동의 발달단계와 가구구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3차년도 질문지 문항 개발
- 3차년도 조사를 위한 CAPI 시스템 개발
- 조사원 훈련 및 예비조사 실시
-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1차년도 자료공개 및 제1차 학술대회 시행

- 자료공개 및 간행물 발간 및 배포
 - 코드북, 사용자지침서, 도구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 제1차 학술대회 시행 및 자료집 발간(하반기 예정)

□ 패널관리 및 추적

- 패널조사의 경우 차수가 거듭될수록 패널의 응답거절 및 추적실패로 인해 패널이 탈락하게 되는 표본마모가 발생하게 됨.
- 초기 구축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패널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널관리 및 추적 강화
 - 이사 등으로 연락처가 바뀐 패널이 자발적으로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사례품(아동용 동화책) 증정
 -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추적
 - 연말 연하장 발송
 - 설 연휴 시점에서 패널 전체에 대한 감사 인사와 3차년도 패널조사에 대한 안내를 담은 우편물 발송
 - 우편물 반송 패널에 대해 전화로 접촉하여 변경된 주소 정보 갱신

2. 향후 추진 시 고려사항

3차년도 조사 시 고려할 점

- 조사원 간담회 결과 조사시기는 휴가철(7~8월)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조사시기를 5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 3차년도 조사 시 아동의 월령에 맞는 간단한 육아상식 책자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발달검사 도구의 추가 또는 교체 검토

- 아동이 성장해가면서 사용가능한 발달검사 도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조사 시 발달검사 도구를 추가하거나 다른 도구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

대체표본 검토

- 2차년도 조사자료의 표본유실률을 토대로 표본 마모에 따른 대체표본 활용 가능성을 검토
- 표본의 대표성 유지를 위한 대체표본 활용 방안 모색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홍보 강화

- 1차년도 자료 공개 이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에 대한 공지, 아동패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 자료 공개 워크숍 개최 등을 검토

국제 협동연구를 위한 가능성 모색

- 국제 학술대회 발표, 해외 패널조사연구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등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국제 협동연구의 가능성 모색
-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소개를 위한 영문 리플릿 발간 및 영문 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 준비 작업 실시

□ 종단 데이터 구축 및 연구방법론 세미나 개최

- 3차년도 조사가 완료되면 종단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생성되므로 2011년 이후 종단분석에 관한 연구방법론 세미나 개최 여부를 검토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http://www.hira.or.kr/re/rec_infopub/cesarean_few.html?MD=08_03에서 2007년 12월 14일에 인출.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곤·여유진·이봉주·손창균·김계연·김문길·서봉균·오지현·유현상·송치호·강상경·안상훈·구인회·김태성·백학영·정소희·윤민석(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민화·곽금주·성현란·심희옥·장유경(2003). 영아기 정서단어의 습득에서 기질과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39-55.
- 김영환·김지혜·오상우·임영란·홍상황(2001).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2005).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지침. <http://www.cdc.go.kr>에서 2008년 3월 2일에 인출.
- 박수미·김종숙·이택면·김승연·강석훈·김미령·Olsen, R. J. (2006).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서문희·이옥·백화중·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5).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한구·김양분·현주·김일혁·강상진·김현철·박성호·민병철(2005).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1)-에비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한구·김안국·민주홍·류지영·신동준·손희진·최기산(2006).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경상·김기현·조주연·김현희·박영실(2006).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http://www.nypi.re.kr/panel.jung_question.asp?chk=j2006에서 2007년 5월 14일에 인출.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박경자·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통계청(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6). 가계자산조사. 대전: 통계청.
- Allen. K. E. & Martoz. L. R.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pp. 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Elder, G. H., Jr. (1998). *Life Course Dynam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lder, G. H., Jr.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 939-991). New York: Wiley.
- European Value Study Foundation. (2008). *Final questionnaire for European Value Survey*. <http://www.europeanvalues.nl>에서 2008년 4월 20일에 인출.
- Fagerstrom. K. O., Heatherton. T. F., & Kozlowski. L. T. (1991). Nicotine addiction and its assessment. *Ear, Nose and Throat Journal*, 69, 763-765.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8: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life Saitama*, Japan: Author.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thbart, M. (2006). Mary Rothbart's temperament questionnaires. <http://www.bowdoin.edu/~sputnam/rothbart-temperament-questionnaires/>에서 2009년 6월 18일에 인출.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 386-401.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

부 록

부록 1. 2차년도 발달검사 안내 리플릿

부록 2. 영문 리플릿

부록 3. 시군별 표본 구축현황

부록 4.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화면

부록 5. 부모 안내문(심층조사)

부록 6. 문항별 응답빈도

부록 7. 1차년도 질문지(분석용)

부록 1. 2차년도 발달검사 안내 리플릿

<앞면>

초사발역시 아랍 정어 둥 아 요~

과학적 치료수준에 근거한 육아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신생아(1개월)부터 4살까지의 발달검사(18개월)는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중요한 육아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기의 발달검사를 해드립니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발달검사가 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이 아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소장의 사례와 최신 육아정책 관련 자료를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소장의 사례와 함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육아정책 관련 자료를 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곡동 175-87 안곡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한국아동학회, 연구실)
 TEL. 02-998-7706, 7708, 7709, 7713
 FAX. 02-990-3317, 3319
 E-mail. panel@kicce.re.kr
 Homepage. www.kicce.re.kr/panel



우리 아기가
 받게 될
 발달검사는?

육아정책개발센터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아동학회는 국제연구기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영아(1)의 건강 발달에 필요한 육아정책 마련을
 위해 신생아(1)부터 4살까지의 발달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뒷면>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육아환경**
우리 아기가 받게 될 발달검사는?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취약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산생이시?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국단위의 기초 연구입니다.

어떤 발달검사를 하나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하는 아기에 대한 발달검사는 18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K-ASQ (Korean Ages & Stages Questionnaire)와 한국어 단어 II (Demer II) 두 가지를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검사도구인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문항 구성이 달라지므로 연령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발달검사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제도에서도 사용되는 매우 신뢰로운 발달검사입니다.

발달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발달검사 모두 연결성이 더 미흡 **반응이** 진행됩니다. K-ASQ는 연결성이 드리는 질문지에 부모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어 II는 연결성이 아기를 관찰하거나 놀며, 발성인지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검사 결과는 검사 실시 3주 후부터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www.kicce.re.kr/panel)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성장에 따라 발달수치가 달라지므로 2차년도 검사결과와는 1차년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확인이 어려우신 부모님께서는 원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연구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아동 대상의 발달검사는 아기가 문제가 있거나 있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는 끝부분은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본 검사 결과에서 발달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가까운 소아과에 문의하여 후후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향후 한국아동패널에서 실시할 예정인 심층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권합니다.

심층조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심층조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발달리 영유아발달검사 II (PSD II)와 예치검사, 기질검사 및 어머니 대상의 성격검사 등이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발달진반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고,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총 3회의 심층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그 중 첫 번째가 올해 실시됩니다. 심층조사는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으로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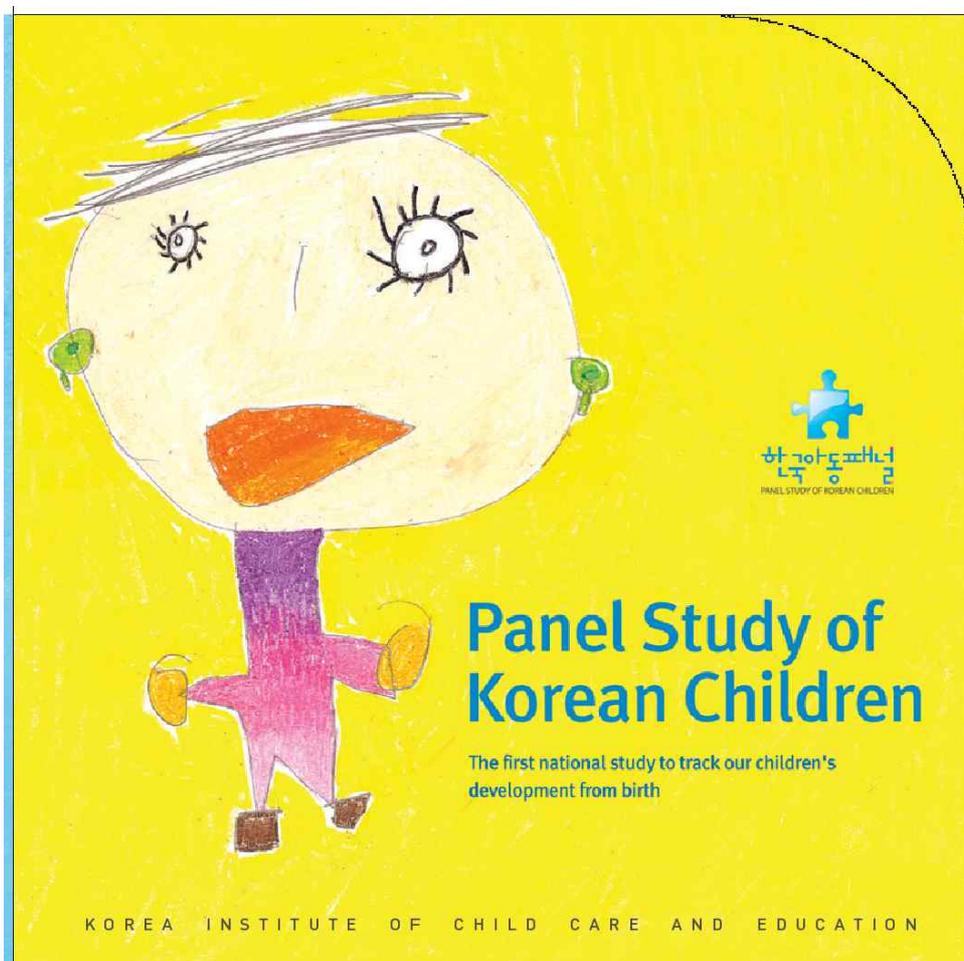
제1차 심층조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차 심층조사는 10월~11월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공지 후에는 휴대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미리 신청하신 후 이기외 함께 전국의 관여별로 지정된 주요 100명씩 직접 방문하여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제1차 심층조사는 2차년도 조사를 원하시는 가정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
국립중앙교육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록 2. 영문 리플릿

<1 페이지>



<2 페이지>

1. What is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



- PSKC is a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of Korean children and families.

The study follows each child's life course looking into the child's health, developmental status, and growth over time during the early formative years of childhood from birth to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families are caring and educating their children; how parents cope with handling both their professions and child rearing; and also how communities and social programs are providing support to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by means of services and policies of early care and education.

<3 페이지>

2. Why is this study important ?

- From the moment a child is born,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play pivotal roles in enhancing and supporting the child's growth, adaptation, and learning. These factors include the child's family, child care providers and teachers, schools and communities, and also the policies and programs the child's family decides to undertake. This project follows each child and family from birth by addressing the ecology of those multiple environments.
-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obtain national data revealing the current facts and trends of child rearing in Korea. Through the collected information, the PSKC is expected to provide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suppor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for identifying effective ways to support families and their children.

3. What issues are addressed in the PSKC?

The PSKC will track and investigate the following:

- **Child developmental index:** Health, growth, temperament, daily activities, and habits, according to the age-appropriate developmental stage.
-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Parenting quality and practices, the parent's professional lives, and also what the parent's beliefs and expectations are.
- **Characteristics of the child's mother:** Maternity, personality,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 **Family characteristics:** Economic and physical environment, finances, welfare loads, family relations,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marriage, and fathering.
- **Social support services and policies for early care and education:** The types, characteristics, availability, and usage of provis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Community environment:** Neighborhood safety, atmosphere and supportiveness of the local community for child rearing.
- **Advocacy for family-oriented policy agenda for child rearing:** Policies for child 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o provide support to help maintain a balance between family and work.

<4 페이지>



4. How is the study conducted?

The PSKC is composed of two kinds of data collection:

- A general survey runs once a year for each of approximately 2,000 panels that started in 2008 with a variety of survey methods such as hospital visits, questionnaires, interviews using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telephone calls, and direct-mailing.
- An in-depth study of approximately 200 selected panels concerning the child's current developmental status and mother's character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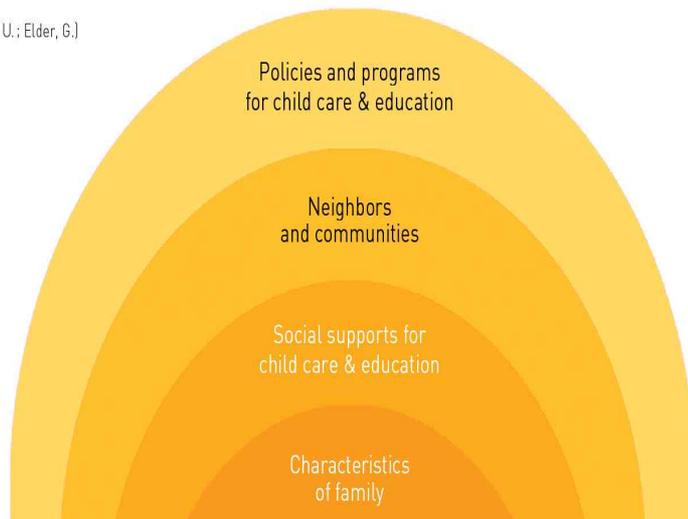
5. The yearly plans for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age year	General Survey												In-depth study	
	0	1	2	3	4	5	6	7 (1G)	9 (3G)	12 (6G)				
2008														
2009														1st
2010														
2011														
2012														2nd
2013														
2014														
2015														3rd
2017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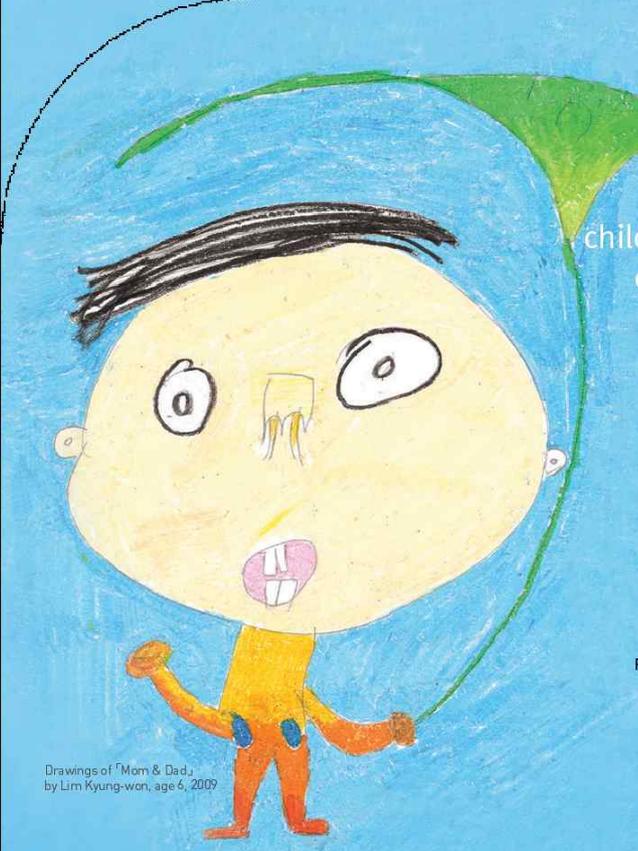
<5 페이지>

Ecological and life span perspectives for the PSKC

(Bronfenbrenner, U.; Elder, G.)



<6 페이지>



© Designed by GIG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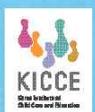
Only through quality child care and education, can our children grow happily and safely pursue their dreams.

For additional information, visit the PSKC web site at: www.kicce.re.kr/panel/

Contact KICCE_PSKC Research Team
Anguk Bldg, 11F, 175-87 Anguk-Dong, Jongno-Ku, Seoul 110-734, Korea
Phone: 82-2-730-7070 Fax: 82-2-730-3317
E-mail: panel@kicce.re.kr

Drawings of "Mom & Dad," by Lim Kyung-won, age 6, 2009

KICCE as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established in December 2005 a think-tank leading to the advancement of caring and educating our children www.kicce.re.kr



부록 3. 시·군별 표본 구축 현황

도	시·군	표본 수	시·군	표본 수	계
강원도	강릉시	1	태백시	2	31
	삼척시	1	평창군	2	
	원주시	19	화천군	1	
	철원군	1	횡성군	4	
충청남도	계룡시	1	아산시	17	103
	금산군	5	연기군	8	
	논산시	1	천안시	63	
	당진군	4	태안군	1	
	보령시	1	홍성군	1	
	서산시	1			
충청북도	괴산군	1	증평군	1	63
	영동군	1	진천군	1	
	음성군	7	청원군	12	
	제천시	1	청주시	39	
경기도	고양시	99	안양시	35	603
	과천시	3	양평군	2	
	광명시	1	여주군	14	
	광주시	13	연천군	1	
	구리시	2	오산시	12	
	군포시	1	용인시	73	
	김포시	6	의왕시	2	
	남양주시	12	의정부시	6	
	부천시	7	이천시	56	
	성남시	32	파주시	20	
	수원시	95	평택시	8	
	시흥시	45	포천시	2	
	안산시	9	하남시	6	
	안성시	4	화성시	37	

도	시·군	표본 수	시·군	표본 수	계
경상남도	거제시	5	양산시	3	117
	거창군	2	진주시	37	
	고성군	3	진해시	8	
	김해시	8	창녕군	3	
	남해군	2	창원시	14	
	마산시	1	통영시	6	
	밀양시	2	하동군	1	
	사천시	10	함양군	7	
	산청군	1	합천군	4	
경상북도	경산시	3	안동시	1	95
	경주시	1	영천시	1	
	고령군	14	예천군	1	
	구미시	42	울진군	2	
	김천시	5	칠곡군	22	
	상주시	1	포항시	1	
	성주군	1			
전라남도	고흥군	3	여수시	1	107
	광양시	25	영광군	1	
	구례군	1	완도군	1	
	나주시	1	장성군	1	
	목포시	2	해남군	3	
	보성군	2	화순군	2	
	순천시	64			
전라북도	고창군	1	익산시	1	51
	김제시	2	임실군	1	
	무주군	1	전주시	39	
	완주군	5	정읍시	1	

부록 4.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화면

KICCE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년도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모집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실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리서치에 패널조사팀입니다. 2008년도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0월에 진행될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조사 장소 및 일시

지역구분	학교	교명	조사장소	일시	대상인원
서울·경기·인천	초등학교	서울 서대문구	이포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서울 강남구	대치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경기 고양시	고양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인천 남동구	남동초등학교	2009.10.15	10명
부산·대구·충청	초등학교	부산 동래구	동래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대구 서구	서구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충청 남부	충청남부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충청 북부	충청북부초등학교	2009.10.15	10명
광주·전남·전북	초등학교	광주 서구	서구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전남 남원	남원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전북 완주	완주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전북 익산	익산초등학교	2009.10.15	10명
제주	초등학교	제주 서귀포	서귀포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제주시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제주 동서귀포	동서귀포초등학교	2009.10.15	10명
	초등학교	제주 연세	연세초등학교	2009.10.15	10명

◆ 모집 인원

지역구분	학교	대상인원	지역구분	학교	대상인원		
서울·경기·인천	초등학교	40	부산·대구·충청	초등학교	40		
	중학교	20		광주·전남·전북	초등학교	40	
	고등학교	20			제주	초등학교	40
	합계	100					

◆ 선정 방법

심층조사 선정 방법은 선정 패널 중 주제를 통해 각 지역별로 1순위를 우선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기준으로 선정 인원이 미달되면, 2순위로 보충합니다.

◆ 선정 여부 공지

심층조사에 선정된 패널은 문자메시지로 선정결과를 알려드리며, 또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 결과는 **10월 7일**에 공지됩니다.


KIDDE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년도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모집

◆ 신청 방법

위의 조사 장소 및 일시를 보고 해당 패널 본인이 심층조사 받기를 희망하는 지역을 1순위, 2순위로 표시하여 주시고, 아래의 신청합니다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순위

2순위

신청합니다

◆ 연락처

- 심층조사 모집 관련 문의 :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 02-3488-2763
- 심층조사 검사 관련 문의 :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 02-308-7700

조사장소,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절차, 신청문의

연구기관: 육아정책개발센터 조사 수행기관: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광교구 연구동 176-87 연구빌딩 7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1
 ☎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 02-308-7706, 7708, 7709, 7710 ☎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 02-3488-2763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육아정책개발센터

부록 5. 부모 안내문(심층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패널의 제1차 심층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아동의 발달 전반과 애착,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면접, 검사, 설문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동 대상의 베일리 발달 검사와 어머니 대상의 애착 검사는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셔서 전문검사자의 협조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사를 받으러 오실 경우,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일러주시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의 기질(ECBQ) 검사와 어머니 성격(PAI) 검사는, 약속된 검사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택에서 직접 설문지에 응답해 오셔야합니다.

◎ 설문지 응답 시 유의할 사항으로,

- ▶ 아동의 기질 검사의 경우, 설문지에 설명되어 있는 '해당되지 않음(N/A)'과 '전혀 그렇지 않다(1)'의 구분을 숙지하셔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어머니 성격 검사의 경우 4점 척도로 되어있는데, 응답번호가 **【1-2-3-4】**가 아닌 **【0-1-2-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안지에 제시되어 있는 각 척도의 의미를 고려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에 답을 칠하실 때, 해당번호 칸에 정확히 기입하시고 아래에 부착된 복사지에도 함께 표기될 수 있도록 연필이나 펜(사인펜 사용 금지)을 이용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부착된 복사지가 밀려 다른 칸에 답이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응답지의 첫 장은 설문이 끝난 뒤에도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층조사 설문지이다 보니 문항수가 많은 편입니다. 조사 설계상 항목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오니, 기계적으로 읽고 답하시기보다 잘 숙지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빠뜨리는 문항 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설문지에 인적사항 기입이 반복되더라도 모두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심층조사가 완료(12월 초 예정)되고 데이터 검수 과정을 마치는 대로, 심층조사 참여 패널 분들께 검사결과를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

패널조사를 위해 변함없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올림

부록 6. 문항별 응답빈도

가. 일반적 특성²⁰⁾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아동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별	hbgen	2078	2078		
		연령	hdm	2077	2077		
		출생순위	hbordr	2077	2071		
	건강특성	출생시 체중	hbwei	2077	2073		
		*4개월 체중	m08bwei	1864	1484	모자보건수첩 기록 참조	
		출생시 신장	hbhei	2077	1815		
		*4개월 신장	m08bhei	1864	1173	모자보건수첩 기록 참조	
		출생시 두위	hbhead	2077	1564		
		*4개월 두위	m08bhead	1864	485	모자보건수첩 기록 참조	
		출생후 건강상태-치료여부	m08btreat1 m08btreat2	2078	2067		
		입원실 치료 기간	m08btreat3	218	217	입원실 이용 경우만 응답	
		집중치료실 치료 기간	m08btreat4	69	69	집중치료실 이용 경우만 응답	
		*예방접종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방문일정보다 조사가 앞서서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예방접종 관련기록이 누락될 수 있음
		- 결핵	m08shot1	1864	1518		
		- 디프테리아 등	m08shot2	1864	1508		
- B형 간염	m08shot3	1864	1467				
- 소아마비	m08shot4	1864	1498				
부모특성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 연령	m08bday	2078	2077		
		아버지 연령	f08bday	2078	1992		
		어머니 결혼특성	m08marst	2078	2049		
		*아버지 결혼특성	f08marst	1864	1780		
		결혼기간	m08marym	2078	2052		
		*국적 및 귀화여부					
		- 어머니 국적	m08ctzn	1864	1860		
		- 아버지 국적	f08ctzn	1864	1797		
		- 어머니 귀화여부	m08ctz1	1854	1821		
		- 아버지 귀화여부	f08ctz1	1791	1759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만 응답	

1) * 표시 문항은 거부가구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으로 기대응답수가 1864임.

2) 변인 산출을 위해 2개 이상의 변수가 사용된 경우, 모두 응답한 경우만 사용됨.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부모특성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 학력	m08edu	2078	2062		
		아버지 학력	f08edu	2078	1993		
		*종교 - 어머니 종교 유무 - 아버지 종교 유무 - 어머니 종교 - 아버지 종교	m08relig f08relig m08relig1 f08relig1	1864 1864 990 787	1853 1790 990 787	종교 있는 가구만 응답	
		어머니 동거 여부	m08cohab	2078	2070		
		아버지 동거 여부	f08cohab	2078	2011		
		*어머니 장애 유무	m08handi	1864	1842		
		*아버지 장애 유무	f08handi	1864	1785		
	건강특성	*어머니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m08diseas	1864	1844		
		*아버지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f08diseas	1864	1786		
		*음주 - 어머니 음주 여부 - 어머니 음주 빈도 - 어머니 주량 - 아버지 음주 여부 - 아버지 음주 빈도 - 아버지 주량	m08drink m08drinkf m08drinkn f08drink f08drinkf f08drinkn	1864 502 502 1864 1351 1351	1863 502 500 1719 1349 1343	음주자만 응답 음주자만 응답	
		*흡연 - 어머니 흡연 여부 - 어머니의 니코틴 중독 정도 - 아버지 흡연 여부 - 아버지의 니코틴 중독 정도	m08smoke m08smoke1~ 08smoke6 f08smoke f08smoke1 ~ f08smoke6	1864 17 1864 902	1863 17 1715 878	흡연자만 응답 흡연자만 응답	
		아버지 근로특성	취업상태	f08work	2078	2010	
			직업분류(대분류)	f08job1	1978	1926	현 취업자만 응답
			종사상 지위	f08jobstat	1978	1902	
			총 근로시간	f08wktm	1978	1097	
		어머니 근로특성	취업상태	m08work	2078	2071	
			직업분류(대분류)	m08job1	654	624	현 취업자만 응답
	종사상 지위		m08jobstat	654	621		
	총 근로시간		m08wktm	654	626		
	출산후 1년내 복귀계획		hreturn	2077	2072		
	취/학업 분류		l08wkst	2078	2078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부모특성	어머니 근로특성	*임금근로자 직무만족도					
		- 임금 또는 소득	I08wwsat1	451	451	임금근로자만 응답	
		- 취업의 안정성	I08wwsat2	451	450		
		- 업무 내용	I08wwsat3	451	449		
		- 근로환경	I08wwsat4	451	451		
		- 근로시간	I08wwsat5	451	450		
		- 개인의 발전가능성	I08wwsat6	451	451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I08wwsat7	451	450		
		- 인사고과의 공정성	I08wwsat8	451	441		
		- 복리후생	I08wwsat9	451	441		
		*비임금근로자 직무만족도					
		- 임금 또는 소득	I08nwwsat1	75	74	비임금근로자만 응답	
		- 취업의 안정성	I08nwwsat2	75	75		
		- 업무 내용	I08nwwsat3	75	75		
		- 근로환경	I08nwwsat4	75	75		
		- 근로시간	I08nwwsat5	75	75		
		- 개인의 발전가능성	I08nwwsat6	75	75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I08nwwsat7	75	75		
		*전반적 직무만족도	I08wsat	611	526	취업모만 응답	
		취업상태	I08emplst	611	611	취업모만 응답	
		직장 복귀 계획	I08jrt	168	167	휴직자만 응답	
		직장 복귀 시점	I08jrtplm	168	149		
		향후 취업 계획	I08jplan	443	427	현 복귀자만 응답	
		퇴직 or 이직 이유	I08jstopr	34	34	복귀 무계획자만 응답	
		학업상태	I08stst	14	14	학업모만 응답	
		학업 복귀계획	I08strtpl	7	7	휴학자만 응답	
		학업 복귀시점	I08strtbm1	7	7		
		주당 학업 할애시간	I08sthour	7	7	계획자만 응답	
		직장 or 학업 중단 시기	I08quit	1453	1453	미취업/미취학 자만 응답	
		직장 or 학업 중단 이유					
- 임신 전	I08quitr1	359	357	임신 전 중단자만 응답			
- 임신 중	I08quitr2	491	485				
- 출산 후	I08quitr3	71	71				
취업 or 학업 계획	I08jstplan	1453	1449	출산 후 중단자 제외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가구 및 가구원 특성	가구특성	가구구성원 수	I08fammem	2078	2078	
		*가구원 구성	I08fammo	1864	1864	
	위탁가구 특성	아동 위탁여부	I08fost	2078	2078	
		위탁가구 관계	t08_1relat t08_2relat t08_3relat t08_4relat	47	34	위탁가구만 응답
	경제적 특성	가구 소득	I08income1	2078	1911	
		지출				
		가구 총 지출	I08expn1 I08expn2	2078	1832	소비성, 비소비성 모두 포함
		아동관련 총 지출	I08expn1c I08expn2c	2078	1790	
		*금융자산	I08financ1	1864	1254	
		*부동산 총액	I08estat1	1864	1573	
		*가구 부채	I08debt1	1864	1421	
		기초생활 수급여부	I08welf	2078	1970	
	주거관련 특성	*주택유형	I08htyp2	1864	1855	
		*소유형태	I08htyp1	1864	1863	
		*추가주택 소유여부	I08haown	1864	1055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일반적 특성	*현 동네 거주 기간	I08movd	1864	1845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I08aratyp	1864	1864	

나. 아동발달 특성²¹⁾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K-ASQ	영역별 총점				
	- 의사소통	I08_kq1	2078	1992	
	- 대근육운동	I08_kq4	2078	1992	
	- 소근육운동	I08_kq7	2078	1992	
	- 문제해결	I08_kq10	2078	1992	
	- 개인-사회성	I08_kq13	2078	1992	
	위험발달 여부				
	- 의사소통	I08_kq2	2078	1992	
	- 대근육운동	I08_kq5	2078	1992	
	- 소근육운동	I08_kq8	2078	1992	
	- 문제해결	I08_kq11	2078	1992	
	- 개인-사회성	I08_kq14	2078	1992	
	의심발달 여부				
	- 의사소통	I08_kq3	2078	1992	
	- 대근육운동	I08_kq6	2078	1992	
	- 소근육운동	I08_kq9	2078	1992	
	- 문제해결	I08_kq12	2078	1992	
- 개인-사회성	I08_kq15	2078	1992		
절선점수미만	I08_kq16	2078	1992		
위험발달 총 갯수	I08_kq16	2078	1992		
의심발달 총 갯수	I08_kq17	2078	1992		
한국형 텐버 II	최종 분포	I08_dq16	2078	1705	
	영역별 지연 여부				
	- 사회발달	I08_dq2	2078	1705	
	- 미세운동·적응	I08_dq5	2078	1705	
	- 언어발달	I08_dq8	2078	1705	
	- 운동발달	I08_dq11	2078	1705	
	영역별 주의 여부				
	- 사회발달	I08_dq1	2078	1705	
	- 미세운동·적응	I08_dq4	2078	1705	
- 언어발달	I08_dq7	2078	1705		
- 운동발달	I08_dq10	2078	1705		

21) K-ASQ와 텐버II는 아동의 컨디션, 위탁가구와의 협의,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함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한국형 텐버 II	영역별 지연항목수 - 개인-사회성 - 미세운동·적응 - 언어발달 - 운동발달 - 전체	I08_dq2	2078	1705	
		I08_dq5	2078	1705	
		I08_dq8	2078	1705	
		I08_dq11	2078	1705	
		I08_dq14	2078	1705	
	영역별 주의항목수 - 개인-사회성 - 미세운동·적응 - 언어발달 - 운동발달 - 전체	I08_dq1	2078	1705	
		I08_dq4	2078	1705	
		I08_dq7	2078	1705	
		I08_dq10	2078	1705	
		I08_dq13	2078	1705	
기질	정서성	m08cchrc1	2078	2073	
		m08cchrc3	2078	2061	
		m08cchrc6	2078	2070	
		m08cchrc8	2078	2067	
		m08cchrc10	2078	2062	
	활동성	m08cchrc2	2078	2075	
		m08cchrc4	2078	2069	
		m08cchrc5	2078	2068	
		m08cchrc7	2078	2070	
		m08cchrc9	2078	2064	
기초생활 습관	*수면	I08cslep1	1864	1862	
		I08cslep2	1864	1863	
		I08cslep3	1864	1862	
		I08cslep4	1864	1860	
		I08cslep5	1864	1857	
	*수유	I08cfed1	1864	1859	
		I08cfed2	1864	1860	
		I08cfed3	1864	1852	
		I08cfed4	1864	1862	
		I08cfed5	1864	1842	
	*배변/씻기	I08ctoilet1	1864	1863	
		I08ctoilet2	1864	1855	
		I08ctoilet3	1864	1861	

다. 출산 및 양육관련 특성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임신과 출산	임신관련 특성	산모 신장	hmhei	2077	2074	
		임신 중 체중증가	hbfpwei hbfdwei	2077	2059	
		임신방법	hpivf	2077	2074	
		재태기간	hdexpdm hexpdd hdm hdd	2077	2076	
		임신관련 느낌	hprfeel	2077	2077	
	출산관련 특성	분만형태	hdtype	2077	2077	
		출산 후 접촉	hdhug	2077	2073	
		출산관련 느낌	hprfeel	2077	2077	
		모유수유 - 수유 여부 - 수유 중단 이유 - 수유 기간	I08mfeed I08mfeedqr I08mfeedw	2078 811 811	2078 808 811	현 모유수유 중단자만 응답
	임신 및 출산 관련 기대	계획 임신 여부	hpplan	2077	2076	
		기대성별 - 어머니 기대성별 - 아버지 기대성별	hmexpgen hfexpgen	2077 2077	2077 2077	
		후속 출산 의도	m08bplan1	2078	2077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m08bplan2	577	531	후속 출산 계획 가구만 응답
		기대 자녀 수	hbordr m08bplan2	2077	2074	
		더 낳지 않는 이유	m08bplan3	1046	1020	후속 출산 무계획 가구만 응답
		*이상자녀수 - 이상적 자녀 수 - 성별 구분 여부 - 성별에 따른 자녀수	m08ecnum m08ecgen m08ecgenm m08ecgenf	1864 1864 822	1863 1849 822	이상 자녀의 성별 구분 가구만 응답
		부모교육	*교육여부		1864	1864
	*교육내용		I08ptrn11 ~ I08ptrn89	1506	1506	중복응답
	*교육기관			1506	1506	부모교육 받은 가구만 응답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어머니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m08effc1 ~ m08effc4	1864	185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m08self1 ~ m08self10	1864	1847	
	우울	출산 전 우울	hpdep1 ~ hpdep6	2077	2061	
		분만 1개월 후 우울	ph08pdep1 ~ ph08pdep6	2077	1621	
*1차년도 조사시 우울		m08dep1 ~ m08dep6	1864	1850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모의 결혼만족도	m08msat1 ~ m08msat4	1864	1857	
		*부의 결혼만족도	f08msat1 ~ f08msat6	1864	1648	
	부부갈등	*모가 인지한 부부갈등	m08marr1 ~ m08marr8	1864	1858	
		*부가 인지한 부부갈등	f08marr1 ~ f08marr4	1864	1649	
부모됨	자녀가치	*모의 자녀가치				
		- 정서적 자녀가치	m08pattd1 ~ m08pattd3	1864	1862	
		- 도구적 자녀가치	m08pattd4 ~ m08pattd7	1864	1861	
		*부의 자녀가치				
	- 정서적 자녀가치	f08pattd1 ~ f08pattd3	1864	1652		
	- 도구적 자녀가치	f08pattd4 ~ f08pattd7	1864	1649		
자녀기대	*부의 자녀기대		f08exp1	1864	1652	
			f08exp2	1864	1652	
		f08exp3	1864	1652		
		f08exp4	1864	1652		
		f08exp5	1864	1653		
		f08exp6	1864	1652		
	*모의 자녀기대		m08exp1	1864	1862	
		m08exp2	1864	1861		
		m08exp3	1864	1861		
		m08exp4	1864	1862		
		m08exp5	1864	1861		
		m08exp6	1864	1861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부모됨	양육신념	*양육신념				
		- 부의 부모책임	f08pduty	1864	1609	
		- 모의 부모책임	m08pduty	1864	1836	
		- 부의 가정학습 자질과 특성	f08pvalu1	1864	1650	중복응답
			f08pvalu2	1864	1650	
			f08pvalu3	1864	1650	
			f08pvalu4	1864	1647	
			f08pvalu5	1864	1642	
		- 모의 가정학습 자질과 특성	m08pvalu1	1864	1862	중복응답
			m08pvalu2	1864	1861	
	m08pvalu3		1864	1860		
	m08pvalu4		1864	1859		
	m08pvalu5		1864	1853		
양육실제	*모의 양육스타일	m08styl1 ~ m08styl6	1864	1860		
	- 도구적 스타일	m08styl1 ~ m08styl3	1864	1862		
	- 정서적 스타일	m08styl4 ~ m08styl6	1864	1861		
양육지식	*모의 양육지식	m08pknw1 ~ 08pknw13	1864	1830		
양육 스트레스	*모의 양육스트레스	m08pstres1 ~ 08pstres10	1864	1849		
가족	남편의 양육참여	*남편의 양육참여	m08hrear1 ~ m08hrear4	1864	1859	
	가족생활사건	*규범적 사건	m08fexpr1 ~ m08fexpr16	1864	1863	
		*비규범적 사건	m08fevnt1 ~ m08fevnt11	1864	186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I08ssup1 ~ I08ssup12	2078	2005	
		- 정서적 지원	I08ssup1 I08ssup4	2078	2073	
		- 도구적 지원	I08ssup2 I08ssup5 I08ssup6	2078	2020	
		- 여가적 지원	I08ssup3 I08ssup10 ~I08ssup12	2078	2066	
		- 정보적 지원	I08ssup7 ~I08ssup9	2078	2069	

라. 육아지원 관련 특성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이용 여부	I08daycar	2078	2078		
		서비스 이용 이유	I08ccwhy	340	340	서비스 이용자만 응답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형태	I08cctype	340	340		
	최초 대리양육 특성	*대리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	I08ccfactor	1864	1859		
		최초 대리양육 유형	I08ccfst2 I08ccype I08ccp1	340	340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만 응답	
		최초 대리양육 시작시기	I08ccfstw I08ccp4 I08ccfbw	340	338		
	개인 대리양육 이용	개인대리양육 이용이유	I08ccyp1	340	294		
		개인대리양육자 관계	I08ccp1	340	297		
		개인대리양육자 구인 경로	I08ccp2	340	39	비친인척 대리양육자 이용하는 경우	
		개인대리양육자 거주지	I08ccp3	340	297		
		개인대리양육 이용빈도	I08ccp51	340	297		
		개인대리양육 비용지불방식	I08ccp61	340	297		
	개인 대리양육 ²²⁾	개인대리양육 이용비용		340	264	현물, 현금 모두 포함	
		- 현금 지급	I08ccp62	258	258		
		- 현물 지급	I08ccp63	6	6		
		개인대리양육 만족도	I08ccpsat	340	297		
		개인대리양육자 특성	- 성별	I08ccpgen	340	297	
			- 학력	I08ccpedu	340	296	
			- 결혼상태	I08ccpmar	340	296	
	- 국적		I08ccpctz	340	297		
- 자녀양육경험	I08ccpex		340	297			

22) 개인 대리양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 응답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보육 시설 ²³⁾	보육시설 이용 이유	I08cctyp2	46	43	
		보육시설 설립유형	I08ccftyp1	46	40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	I08ccf1	46	41	
		보육시설 시설유형	I08ccftyp2	46	40	
		보육시설 주변 환경	I08ccfara	46	46	
		보육시설 이용빈도	I08ccfd1	46	46	
		보육시설 이용시간	I08ccft3 I08ccft4	46	46	
		보육시설 등원시간	I08ccft5	46	46	
		보육시설 하원시간	I08ccft6	46	46	
		보육시설 이용비용	I08ccfpay	46	45	
		보육비 지원 여부	I08ccpdc	46	45	
		보육비 지원 이유	I08ccpdcr1 ~ I08ccpdcr6	29	29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만 응답 중복응답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I08ccfsat	46	46	
	보육시설과 대리양육 병행 이유	I08cctyp3	3	3	보육시설과 대리양육 병행 가구만 응답	
	기타 서비스	*정기 프로그램 이용여부	I08ccpt	1864	1864	
		*정기프로그램 내용	I08ccpg11 I08ccpg21 I08ccpg31	80	80	정기 프로그램 이용가구만 응답
		*정기 프로그램 기관	I08ccpg12 I08ccpg22 I08ccpg32	80	80	
		*정기 프로그램 횟수	I08ccpg13 I08ccpg23 I08ccpg33	80	80	
		*정기 프로그램 참여시간	I08ccpg14 I08ccpg24 I08ccpg34	80	80	
*정기 프로그램 비용		I08ccpg15 I08ccpg25 I08ccpg35	80	79		

23)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만 응답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육아관련 특성	*보육시설 충분도	I08ara1	1864	1851		
		*유치원 충분도	I08ara2	1864	1836		
		*사교육기관 충분도	I08ara3	1864	1835		
		*공공여가 충분도	I08ara4	1864	1864		
		*문화시설 충분도	I08ara5	1864	1855		
		*치안	I08ara6	1864	1860		
		*안전	I08ara7	1864	1863		
		*전반적인 육아적합성	I08ara8	1864	1863		
육아지원정 책 특성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방향	I08plcyptr	2078	2068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 여성의 출산휴가	I08wccsrv1	1864	1853		
		- 여성의 육아휴직	I08wccsrv2	1864	1852		
		- 남성의 출산휴가	I08wccsrv3	1864	1853		
		- 남성의 육아휴직	I08wccsrv4	1864	1854		
		- 직장 보육시설	I08wccsrv5	1864	1850		
		- 보육비 지원	I08wccsrv6	1864	1848		
		- 수유실 설치	I08wccsrv7	1864	1848		
		- 유급 수유시간	I08wccsrv8	1864	1847		
		- 시차 출근제	I08wccsrv9	1864	1825		
	- 대체인력풀 운영	I08wccsrv10	1864	1824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순위					
		- 1순위	I08wccsrv11	1864	1860		
- 2순위		I08wccsrv12	1864	1860			
	- 3순위	I08wccsrv13	1864	1859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여부	I08ccs1	1864	1848			
	*도우미 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I08ccs20 I08ccs21 I08ccs22	1864	1842	중복응답		

대상	구분	변인	관련 변수명	기대 응답수	실 응답수	비고	
육아지원 정책 특성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					
		- 여성의 출산휴가	I08ccsrv11	429	429		
		- 여성의 육아휴직	I08ccsrv21	429	429		
		- 남성의 출산휴가	I08ccsrv31	429	429		
		- 남성의 육아휴직	I08ccsrv41	429	429		
		- 직장 보육시설	I08ccsrv51	429	429		
		- 보육비 지원	I08ccsrv61	429	429		
		- 수유실 설치	I08ccsrv71	429	429		
		- 유급 수유시간	I08ccsrv81	429	429		
		- 시차 출근제	I08ccsrv91	429	429		
		- 대체인력풀 운영	I08ccsrv101	429	429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					
		- 여성의 출산휴가	I08ccsrv12	413	413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 가구만 응답	
		- 여성의 육아휴직	I08ccsrv22	311	311		
		- 직장 보육시설	I08ccsrv52	63	63		
		- 보육비 지원	I08ccsrv62	108	108		
		- 수유실 설치	I08ccsrv72	84	84		
		- 유급 수유시간	I08ccsrv82	85	85		
		- 시차 출근제	I08ccsrv92	91	91		
		- 대체인력풀 운영	I08ccsrv101	79	79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만족도					
		- 여상의 출산휴가	I08ccsrv13	404	404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가구만 응답	
		- 여성의 육아휴직	I08ccsrv23	180	180		
		- 직장 보육시설	I08ccsrv53	16	16		
		- 보육비 지원	I08ccsrv63	66	66		
		- 수유실 설치	I08ccsrv73	46	46		
		- 유급 수유시간	I08ccsrv83	40	40		
		- 시차 출근제	I08ccsrv93	41	41		
- 대체인력풀 운영	I08ccsrv103	52	52				

부록 7. 1차년도 질문지(분석용24)

병원용 질문지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조사**
 ID -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용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국단위의 기초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02-733-2327, 733-2337, 730-3815)

조사 수행기관 :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5-1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02-3488-2783)

육아정책개발센터

24) 본 보고서에 수록된 1차년도 질문지는 분석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조사에 사용한 질문지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음.

8. 사람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다음은 귀하의 이번 임신에 대한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부부는 이번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라셨습니까?

- ① 아기의 어머니인 나만 계획하거나 바램
- ② 아기의 아버지인 배우자(또는 동거자)만 계획하거나 바램
- ③ 나와 배우자(또는 동거자) 모두 계획하거나 바램
- ④ 나와 배우자(또는 동거자)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음

9. 귀하는 출산 직전 한달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에 직장 또는 학업에 복귀하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없음
- ② 시간제(주당 평균 29시간 미만)로 근무 또는 학업
- ③ 전일제(주당 평균 30시간 이상)로 근무 또는 학업

11. 임신 중 귀하가 바란 아이의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③ 바라는 성별이 없었음

12. 임신 중 아기의 아버지가 바란 아이의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③ 바라는 성별이 없었음

13. 다음은 귀하(산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각 란에 체크 혹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장	2) 임신직전 체중	3) 출산직전 체중	4) 결혼 상태	5) 결혼 시기	6) 생년월일
()cm	()kg	()kg	①유배우 ②별거 ③이혼 ④사별 ⑤미혼	()년()월	()년()월

■ 마지막으로, 약 4개월 이후에 있을 방문면접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 등 아래 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휴대전화 : - -
집 전화 : - - (연락 가능한 유선 전화)	직장전화 : - -
이메일 :	배우자휴대전화 : - -
집 주소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_____	
산후조리 장소 주소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_____	
산후조리 장소 연락처(유선 또는 핸드폰)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면접원은 설문종료 후 아래 사항을 작성 하십시오	
면접원 이름 :	조사일시 :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병원명 :	병원주소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_____

전화조사용 질문지

KIOCE
육아정책개발센터
 ID -

한국아동패널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조사용 질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의 면접원 ○○○입니다.
 ○○님께서 지난달에 _____ 병원에서 한국아동패널 관련 조사를 하셨는데 생각나세요?
 먼저,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1. ○○님께서 지난달에 적어주신 연락처가, 휴대전화는()번, 집전화는 ()번, 집 주소는 ()였는데, 다 그대로인가요?
 1) 그대로다
 2) 바뀌었다(→ 기존 질문지에 빨간색 펜으로 연락처 직접 변경)

2. 그러면 출산 직후 한달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전혀 안 느끼는 1번, 항상 느끼는 5번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중 숫자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무기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안절부절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매사에 힘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개월 후에 우편물을 보내드리고, 방문 전화 드린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3. (면접원 판단) <종료 인사>를 마친 이후의 응답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1) 호의적 2) 비호의적 3) 본조사 거절, 패널제외 요청

※ 면접원은 설문종료 후 아래 사항을 작성 하십시오		
면접원 이름 :	조사일시 : ____ 월 ____ 일	응답자 이름 :

어머니대상 질문지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ID -

한국아동패널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대상 질문지

아동 이름		아동 생년월일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	
조사방법	① 가구면접 ② 우편조사 ③ 전화면접 ④ e-mail 조사 ⑤ 기타		
조사원 이름		조사 일시	

본 질문지는 위의 아기와 아기의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기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입니다.

문항에 따라서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각 문항별로 제시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서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5분가량 소요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

다음은 이번에 출산하신 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1. 아기가 출생 후 신생아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아니오
 ② 황달, 설사 등으로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_____ 일)
 ③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_____ 일)

2. 아기의 4개월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_____ kg
 ※ 4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3. 아기의 4개월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_____ cm
 ※ 4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4. 아기의 4개월 현재 머리둘레는 몇 cm입니까? _____ cm
 ※ 4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5. 다음의 표는 생후 4개월까지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일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표시된 표준예방접종
 중 접종을 하신 백신의 접종 횟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4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대상 전염병(백신종류)	횟수	대상 전염병(백신종류)	횟수
결핵(BCG)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B형 간염(HepB)		소아마비(폴리오)	

6.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미혼 8번 문항으로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7.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 초혼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식구의 도움 없이 어머니께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1. 귀하는 평소에 술을 마십니까?
 ① 마심
 ② 평소에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로 마시지 못함 ☞ 14번 문항으로
 ③ 마시지 않음 ☞ 14번 문항으로
12. 그럼,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회~4회
 ④ 거의 매일
13.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량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1잔 ~ 2잔
 ② 3잔 ~ 4잔
 ③ 5잔 ~ 6잔
 ④ 7잔 ~ 9잔
 ⑤ 10잔 또는 그 이상
14.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움
 ② 평소에 피우나 임신과 모유수유로 피우지 못함 ☞ 21번 문항으로
 ③ 피우지 않음 ☞ 21번 문항으로
15. 귀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5분 이내
 ② 6~30분 이내
 ③ 31~60분 이내
 ④ 한 시간 이후
16. 귀하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하루 중 담배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① 기상 후 첫 담배
 ② 그 외의 담배

26. 다음은 아기의 정상적인 발달과 양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아기가 아닌 일반적인 아기들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2)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3)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그 아이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 아기가 아주 어린 경우,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은 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6)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 (미숙아는 체중이 2.5kg이 못 된 채 태어난 아기와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를 통칭해서 말함)			
8) 건강한 아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대개 그 음식을 뱉어내기도 한다.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11) 아이들의 모든 언어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습득된다.			
12) 소음이 심하거나 불거리가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다.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7. 다음은 아기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음은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음은 아기 양육 시 남편의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식구의 도움 없이 어머니께서만 응답해주시시오.

30.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1.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2.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식구의 도움 없이 어머니께서만 응답해주시시오.

33.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4.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35.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중복응답 가능).

지난 1년간	경험함
1)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	
2) 병원비(임신·출산관련 비용 포함)나 초과비 등의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3) 의·식·주에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4)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5) 자동차 또는 인테리어 개조 등 값비싼 물품 구입 등으로 목돈을 지출하였다.	
6)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	
7)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았다.	
8) 식구 중 직장을 옮긴 사람이 있다.	
9) 식구 중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	
10) 식구 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11) 식구 중 일(주부로서의 일 포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사람이 있다.	
12) 식구 중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다.	
13) 나 또는 배우자가 해외나 지방(다른 지역)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4)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15) 식구 중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책임이 커진 사람이 있었다.	
16) 자녀의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36.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중복응답 가능).

지난 1년간	경험함
1) 내 자신,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2) 자녀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3)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4) 신체장애가 있거나 오랫동안 병을 앓는 식구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졌다.	
5) 시부모나 친정 부모를 직접 돌보거나 금전적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커졌다.	
6) 배우자가 사망했다.	
7) 자녀가 사망했다.	
8) 친정부모, 시부모, 가까운 친척, 친구 중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9) 식구 중 법을 어겨 조사를 받거나 체포를 당한 사람이 있었다.	
10) 가정폭력이 있었다.	
11) 식구 중 가출한 사람이 있었다.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에 답한 후 각 보기에 따른 해당 문항으로 이동하여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37.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양력 음력)

38.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① 예 38-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국적: _____) 39번 문항으로

38-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귀화하십니까?

① 예 38-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39번 문항으로

38-2. 귀화 전 국적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_____

39. 귀하는 평소에 가족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① 예 4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39-1번 문항으로

39-1.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지역(해외 포함)에 근무 중 ② 타지역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③ 학업관계 ④ 군복무

⑤ 장기입원, 요양 중 ⑥ 별거

⑦ 가출 ⑧ 기타 _____

40. 귀하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① 일을 하고 있음 ☞ 41번 문항으로
- ② 학교에 다님(휴학생 포함) ☞ 42번 문항으로
- ③ 전업주부임(집안일, 가사) ☞ 43번 문항으로
- ④ 무직임 ☞ 43번 문항으로
- ⑤ 기타 _____ ☞ 43번 문항으로

4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예) 직업의 종류: 은행원 직위: 지점 차장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 내에서의 직위: _____

41-1.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기타 _____

41-2.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_____ 시간 ☞ 43번 문항으로

42.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_ 년
- ④ 전문대 _____ 학년 ⑤ 대학교 _____ 학기 ⑥ 대학원석사 _____ 학기
- ⑦ 대학원박사 _____ 학기

아버지대상 질문지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ID -

한국아동패널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대상 질문지

아동 이름		아동 생년월일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	
조사방법	① 가구면접 ② 우편조사 ③ 전화면접 ④ e-mail 조사 ⑤ 기타		
조사원 이름		조사 일시	

본 질문지는 위의 아기와 아기의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기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입니다.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버지께서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5분가량 소요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

다음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식구의 도움 없이 아버지께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우선순위 없이 선택)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 ② 독립심
- ③ 근면함
- ④ 책임감
- ⑤ 상상력
-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 ⑧ 결단력과 끈기
- ⑨ 종교적 신념
- ⑩ 이타심
-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4. 다음은 해당 아동의 장래에 대하여 귀하가 부모로서 갖는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원하시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장래에.....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1) 돈을 잘 번다.	①	②	③	④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①	②	③	④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평소에 가족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 ① 예 2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19-1번 문항으로

19-1.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타지역(해외 포함)에 근무 중 ② 타지역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③ 학업관계 ④ 군복무
 ⑤ 장기입원, 요양 중 ⑥ 별거
 ⑦ 가출 ⑧ 기타 _____

20. 귀하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시시오.
 ※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일을 하고 있음 21번 문항으로 ② 학교에 다님(휴학생 포함) 22번 문항으로
 ③ 전업주부임(집안일, 가사) 23번 문항으로 ④ 무직임 23번 문항으로
 ⑤ 기타 _____ 23번 문항으로

2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예) 직업의 종류: 은행원 직위: 지점 차장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 내에서의 직위: _____

21-1.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기타 _____

21-2.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_____ 시간 23번 문항으로

22.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_ 년
 ④ 전문대 _____ 학년 ⑤ 대학교 _____ 학기 ⑥ 대학원석사 _____ 학기
 ⑦ 대학원박사 _____ 학기

2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기능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24. 귀하의 사실상 결혼 상태는?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25. 귀하는 장애급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6. 귀하는 희귀난치성 유전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7.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27-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조사 종료

27-1. 있다면, 어느 종교입니까?

-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기독교(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면접조사용 질문지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ID -

한국아동패널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조사용 질문지

현거주지 주소	현재 귀하가 머물고 있는 곳은? ① 자택 ② 친정 ③ 시댁 ④ 기타 _____시·도 _____군·구 _____동·읍·면 _____		
아동 성명		아동 생년월일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	
방문횟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방문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③ 외출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방문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③ 외출	
3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방문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③ 외출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 -

육아정책개발센터

다음은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두 가지 보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취업 중 **☞ 2번 문항으로**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 포함
 - ※ 시간제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포함
- ② 학업 중 **☞ 11번 문항으로**
 - ※ 휴학포함
- ③ 미취업/미취학 **☞ 17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2. 귀하의 (주된)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과 ②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되는 오른쪽 문항에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근로 유형	직무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임금 근로자 ⇨	2-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2-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2-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2-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2-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2-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2-8. 인사고과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2-9. 복지후생	①	②	③	④	⑤
② 비임금 근로자 ⇨	2-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2-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2-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2-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2-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2-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3. 그렇다면 귀하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 ② 불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스럽다
- ⑤ 매우 만족스럽다

4.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⑤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보 기	추 가 문 항
① 출산휴가 중 ② 육아휴직 중 ③ 기타휴직 중	⇨ 5. 아기가 몇 개월이 될 때 직장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생후 _____개월 <input type="checkbox"/> 10번 문항으로 ② 복귀할 생각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9번 문항으로
④ 출산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⑤ 새로운 직장에 취업	⇨ 6. 아기가 몇 개월이 되었을 때 직장에 복귀/신규 취업하셨습니다? 생후 _____개월 7. 귀하의 평소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세요. 주당 평균 _____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는지를 의미 8. 앞으로의 취업계획은 어떠하십니까? ①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임 <input type="checkbox"/> 10번 문항으로 ② 이직할 계획임 <input type="checkbox"/> 9번 문항으로 ③ 일을 그만둘 계획임 <input type="checkbox"/> 9번 문항으로 ④ 기타 _____

9.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 ④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⑥ 가족이 원해서
- ⑦ 기타 _____

10. 다음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중 현재 속해있는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귀하가 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표해주시시오. 또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골라주시시오.

- ① 해당 10-1번 문항으로
- ② 비 해당 (무급 가족업 종사자, 프리랜서 등 포함) 23번 문항으로

구 분		시행 여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휴가 및 휴직	10-1. 여성의 출산휴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0-2. 여성의 육아휴직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0-3. 남성의 출산휴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0-4. 남성의 육아휴직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보육지원	10-5. 직장 보육시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0-6. 보육비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모성보호	10-7. 수유실 설치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0-8. 유급 수유시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10-9. 시차 출근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0-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74조의 산전후 휴가)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 받는 것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3세까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23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학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11. 현재 학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문항에 답해주시요.

① 재학 중	⇒	<p>12. 아기가 몇 개월이 될 때 학업에 복귀하셨습니다? 생후 _____개월</p> <p>13. 귀하는 평소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십니까? 주당 평균 시간을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시요. 주당 평균 _____시간 ☞ 23번 문항으로</p>
② 휴학 중	⇒	<p>14. 언제 휴학하셨습니다? ① 임신 전에 ② 임신 중 (임신 _____개월) ③ 출산 후 (생후 _____개월)</p> <p>15. 해당 아동이 몇 개월이 될 때 학업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학업에 복귀하지 않을 생각임 ☞ 16번 문항으로 ② 생후 _____개월 ☞ 23번 문항으로</p>

16. 휴학 또는 학업을 그만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③ 학업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⑤ 가족이 원해서
- ⑥ 기타 _____

다음은 현재 미취업 또는 미취학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17. 언제 일 또는 학업을 그만두셨습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④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시시오.

보 기		추 가 문 항
		① 결혼 후 지금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 ☞ 22번 문항으로
② 임신 전에 그만 둬	⇨	18.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임신을 하기 위하여 ② 임신 이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 22번 문항으로
③ 임신 중에 그만 둬	⇨	19. 언제 일 또는 학업을 그만두셨습니까? 임신 _____개월 20.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③ 출산 후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④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⑤ 출산 후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⑦ 태교 등 출산준비를 위하여 ⑧ 기타 _____ ☞ 22번 문항으로
④ 출산 후에 그만 둬	⇨	21.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④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⑦ 기타 _____

22. 앞으로의 취업 또는 취학 관련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① 계획이 전혀 없음
- ②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③ 6개월~1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④ 1년~2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⑤ 2년~3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⑥ 3년~5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⑦ 기타 _____

다음은 수면, 수유, 배변 등과 같은 아기의 기초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23. 다음은 아기의 생활 중 수면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취침 전 수유를 마친 후 금방 잠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중에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다(일반적으로 길어야 6시간 미만임).	①	②	③	④	⑤
3) 하루에 14~16시간 동안 잠을 자며, 낮에는 간혹 2~3시간 동안 깨어있기도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손가락을 빨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잠이 들기 전에 혼자 웅얼이, 손장난 등의 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은 아기의 생활 중 수유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하루에 5~8회 정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유시간이 되면 칭얼댄다(단, 배가 고플 때 마다 울지는 않음).	①	②	③	④	⑤
3) 도움 없이도 혼자 젖꼭지를 잘 물며, 손으로 젖꼭지를 입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젖꼭지나 젖병을 힘차게 빨다. 때론 너무 세게 빨아서 사례에 걸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배가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분유를 더 타거나 다른 쪽 가슴으로 바꾸려하면 잘 기다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식구의 도움 없이 어머니께서만 응답해주시시오.**

29. (지금까지 받은 모든 부모교육에 관하여)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교육받으신 내용에 따라 어디에서 받으셨는지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 √표해주시시오.

내용별	기관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① 신생아 관리 방법(모유수유, 신생아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등)										
② 모자보건 관련 교육(신생아 예방 접종, 산욕기 관리 등)										
③ 분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라마즈 등의 호흡법, 스프롤로지 등의 분만법, 태교, 명상 등)										
④ 운동 또는 체형관리(요가, 체조 등)										
⑤ 아기 용품 만들기(장난감 만들기, 퀼트, 패치워크 등)										
⑥ 바람직한 자녀양육 방법(대화기법, 훈육방법 등)										
⑦ 기타 _____										

<기관별 보기>

- 가. 산부인과 또는 산후조리원의 강좌
- 나. 보건소
- 다. 시청·군청·구청·교육청 등의 공공기관
- 라. 복지관, 지역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 마. 종교단체, 사회단체
- 바.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대학 등)
- 사.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좌(매일유업, 남양유업, 셀트리 등)
- 아.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 자. 기타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30. 귀하의 남편(동거자)은 평소 근무시간 또는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십니까?
 주당 평균 시간을 출퇴근 혹은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시시오.
 주당 평균 _____ 시간
31. 다음은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상 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32.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해당없음

다음은 살고계신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38. 귀하는 현재 사시는 동네로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39. 현재 사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 | |
|----------|------------|
| ① 일반주택지역 | ② 일반아파트지역 |
| ③ 상가지역 | ④ 공장(단)지역 |
| ⑤ 농·어가지역 | ⑥ 기타 _____ |

40.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 충분히 있습니까?

※ 보육시설이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선교원은 제외됨.

- | | |
|-----------|--------|
| ① 매우 충분함 | ② 충분함 |
| ③ 보통임 | ④ 불충분함 |
| ⑤ 매우 불충분함 | |

41.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 놀이학교는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별도의 실외 놀이터 없이 4세(만 3세) 이하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예로는 위즈아일랜드, 하바 등이 있음

- | | |
|-----------|--------|
| ① 매우 충분함 | ② 충분함 |
| ③ 보통임 | ④ 불충분함 |
| ⑤ 매우 불충분함 | |

42.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 | | |
|-----------|--------|
| ① 매우 충분함 | ② 충분함 |
| ③ 보통임 | ④ 불충분함 |
| ⑤ 매우 불충분함 | |

다음은 육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식구의 도움 없이 어머니께서만 응답해주시시오.

48.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어머니가 직장과 병행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고 탄력적인 근무 조건을 보장하는 것 (예: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 2) 어머니를 대신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예: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고 비싸지 않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귀하께서는 이 둘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및 확대
- ②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 ③ 두 가지 모두

49.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에 √ 표해주시시오.

구 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휴가 및 휴직	1) 여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 남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4)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보육지원	5) 직장 보육시설	①	②	③	④	⑤
	6)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모성보호	7) 수유실 설치	①	②	③	④	⑤
	8) 유급 수유시간	①	②	③	④	⑤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9) 시차 출근제	①	②	③	④	⑤
	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②	③	④	⑤

- ※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74조의 산전후휴가)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받는 것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3세까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49-1. 위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50. 부모의 취업으로 취학전 자녀를 부모 외의 사람이 대리 양육할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이가 가족이나 집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 ②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
- ③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 ④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
- ⑤ 잘 모르겠음
- ⑥ 기타 _____

**다음은 이번에 출산하신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51. 현재 아기와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용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보기처럼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교사의 가정방문, 부모님이나 기타 아기를 돌보는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기 >

- ① 보건소 영아 마사지 ② 백화점 문화센터 영아오감 프로그램
- ③ 신기한 아기나라

1) 프로그램 참여 여부	1-1) 프로그램/기관명	1-2) 월별 참여 횟수	1-3) 회별 참여시간	1-4) 월별비용
① 참여프로그램 있음	1)	번	분	만원
	2)	번	분	만원
	3)	번	분	만원
	4)	번	분	만원
	5)	번	분	만원
	6)	번	분	만원
② 참여프로그램 없음				

52. 낮 시간 동안 아기를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어머니 ☞ 72번 문항으로
- ② 아버지 ☞ 72번 문항으로
- ③ 부모 외의 대리양육자 ☞ 52-1번 문항으로

※ 대리양육자는 부모보다 아기를 가장 많은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조부모, 친인척, 유급·무급도우미, 보육시설의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52-1.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기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일을 하기 위하여
- ② 공부를 하기 위하여
- ③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기를 돌보는 일이 몸에 무리가 되어서
- ④ 개인시간을 갖기 위하여
- ⑤ 대리양육자가 돌보는 것이 아기에게 더 좋은 것 같아서
- ⑥ 기타 _____

52-2. 현재 이용하는 개인 대리양육자 또는 대리양육기관이 처음입니까?

- ① 예 ☞ 53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52-2-1번 문항으로

52-2-1. 현재 아기를 돌보는 분 또는 기관이 처음이 아닌 경우, 가장 처음으로 아기를 돌보았던 대리양육자는 누구였습니까?

- ① 친할머니
- ② 친할아버지
- ③ 외할머니
- ④ 외할아버지
- ⑤ 기타 친인척 (아동과의 관계: _____)
- ⑥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육아 도우미
- ⑦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 ⑧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
- ⑨ 기타 _____

52-2-2. 가장 처음으로 대리양육자 또는 보육시설 이용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생후 _____주

53. 낮 시간 동안 아기를 주로 돌보는 대리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① 조부모, 친척, 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자 ☞ 53-1번 문항으로
- ②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 이용 ☞ 53-2번 문항으로
- ③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모두 ☞ 53-3번 문항으로

53-1.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에 아기를 보내지 않고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54번 문항으로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②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 ③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④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 ⑤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하여서
- ⑦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 ⑧ 주변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 ⑨ 기타 _____

53-2.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지 않고 보육시설에서 아기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62번 문항으로

- ① 개인 대리양육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 ② 개인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개인 대리양육자를 믿을 수 없어서
- ④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 ⑤ 아이에게 보육시설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⑥ 남들이 다 보내니까
- ⑦ 기타 _____

53-3.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모두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54번 문항으로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동안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 ② 개인 대리양육자의 장시간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
- ④ 보육시설에 데리고 다닐 사람이 없어서
- ⑤ 아이가 개인 대리양육자와 하루 종일 있기 심심해해서
- ⑥ 개인 대리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 ⑦ 기타 _____

58. 현재 이분은 아기를 일주일에 보통 며칠 동안 돌봐줍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③ 일주일 내내
- ④ 일주일에 며칠만 (_____ 일)

59.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아기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59-1번 문항으로
- ②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59-1번 문항으로
- ③ 현물로 지불 ☞ 59-2번 문항으로
- ④ 숙식만 제공 ☞ 60번 문항으로
- ⑤ 지불 안함 ☞ 60번 문항으로
- ⑥ 기타 _____

59-1.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아기를 돌보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지난 출산 이후 지불한 금액의 월평균을 내 주십시오.

(아이 양육과 관계없이 대리양육가구가 귀택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또는 용돈은 제외)
월평균 _____만원 ☞ 60번 문항으로

59-2.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아기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금액의 월평균을 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60. 지금 아기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비교적 불만족
- ③ 보통
- ④ 비교적 만족
- ⑤ 매우 만족

61. 지금 아기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특성	보기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력	① 중졸이하 ④ 대졸	② 고졸 ⑤ 대학원이상	③ 전문대졸 ⑥ 잘 모름
3) 결혼상태	① 미혼 ④ 사별	② 결혼 ⑤ 잘 모름	③ 이혼
4) 국적	① 한국인	② 조선족	③ 기타 외국인 (국가: _____)
5) 자녀양육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③ 잘 모름

☞ 문53번의 ①응답자는 -> 문72번 문항으로

문53번의 ③응답자는 -> 문62번 문항으로

**다음은 아기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가구도 응답해 주십시오.**

62. 아기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이름과 주소는?

보육시설 이름 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63. 아기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은?

※ 설립유형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조사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국공립
- ② 사회복지법인
- ③ 기타법인
- ④ 법인외(단체)
- ⑤ 민간개인
- ⑥ 직장
- ⑦ 가정(놀이방)
- ⑧ 공동육아
- ⑨ 기타 _____

64. 아기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대상별 시설 유형은?

※ 시설유형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조사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일반 보육시설
- ② 영아 전담
- ③ 장애아 전담
- ④ 장애아 통합
- ⑤ 방과후 전담
- ⑥ 방과후 통합

가구원대상 질문지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ID -

한국아동패널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대상 질문지

본 질문지는 귀댁의 가구원, 즉 식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조사해야 할 사람)

-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기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 나.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 다. 가구원이 아닌 따로 사는 아기의 생부 또는 생모

비가구원 (조사해서는 안 될 사람)

- 가.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
- 나. 하숙생 등의 비혈연 동거자
- 다.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대상 아기와 아기의 부모님을 제외한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아기와 아기의 부모님을 제외한 위의 모든 분들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각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

6. 이분은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시시오.
- ※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 ※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일을 하고 있음 ☞ 7번 문항으로
- ② 학교에 다님(휴학생 포함) ☞ 8번 문항으로
- ③ 전업주부임(집안일, 가사) ☞ 10번 문항으로
- ④ 무직임 ☞ 10번 문항으로
- ⑤ 미취학 ☞ 9번 문항으로
- ⑥ 기타 _____ ☞ 10번 문항으로

7. 이분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 예) 직업의 종류: 은행원 직위: 지점 차장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 내에서의 직위 _____

7-1.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기타 _____

7-2.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_____ 시간 ☞ 10번 문항으로

8.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10번 문항으로

-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 ③ 고등학교 _____ 학년 ④ 전문대 _____ 학년
- ⑤ 대학교 _____ 학기 ⑥ 대학원 석사 _____ 학기
- ⑦ 대학원 박사 _____ 학기

9. 미취학자녀인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유치원 이용 ② 보육시설 이용
- ③ 기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 ④ 미이용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KIOCE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조사

ID -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본 질문지는 귀 님의 자녀를 돌보는 가구의 가구원, 즉 위탁가구의 식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아기가 취업, 학업, 건강 등의 이유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친인척의 집, 대리양육자의 집 등)에서 살고 있는 경우 다음 문항에 답하여 주십시오.
- ※ 주중에 다른 집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부모님과 지내는 등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며 서로 방문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부모님이 아기와 같이 살면서 대리양육자의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가구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가구 가구원 (조사해야 할 사람)

- 가. 위탁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기의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 나.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비가구원 (조사해서는 안 될 사람)

- 가.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
- 나. 하숙생 등의 비혈연 동거자
- 다.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대상 아기만을 제외한 위탁가구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위탁가구의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_____

아기를 제외한 위의 모든 분들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각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

6. 이분은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시시오.
- ※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 ※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일을 하고 있음 ☞ 7번 문항으로
- ② 학교에 다님(휴학생 포함) ☞ 8번 문항으로
- ③ 전업주부임(집안일, 가사) ☞ 10번 문항으로
- ④ 무직임 ☞ 10번 문항으로
- ⑤ 미취학 ☞ 9번 문항으로
- ⑥ 기타 _____ ☞ 10번 문항으로

7. 이분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예) 직업의 종류: 은행원 직위: 지점 차장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 내에서의 직위 _____

7-1.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기타 _____

7-2.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_____시간 ☞ 10번 문항으로

8.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11번 문항으로

-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 ③ 고등학교 _____ 학년 ④ 전문대 _____ 학년
- ⑤ 대학교 _____ 학기 ⑥ 대학원 석사 _____ 학기
- ⑦ 대학원 박사 _____ 학기

다음은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이 사시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15. 현재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은 현재 사시는 동네로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16.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이 사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_____
17.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 충분히 있습니까?
 ※ 보육시설이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선교원은 제외됨.
 ① 매우 충분함 ② 충분함 ③ 보통임
 ④ 불충분함 ⑤ 매우 불충분함
18.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 학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 놀이학교는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 건물에 별도의 실외 놀이터 없이 5세(만 3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예로는 위즈아일랜드, 하바 등이 있음
 ① 매우 충분함 ② 충분함 ③ 보통임
 ④ 불충분함 ⑤ 매우 불충분함
19.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① 매우 충분함 ② 충분함 ③ 보통임
 ④ 불충분함 ⑤ 매우 불충분함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조사

ID -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국단위의 기초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질문지는 조사 대상 아기와 아기의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기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에 따라서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각 문항별로 제시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서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02-733-2327, 733-2337, 730-3815)

조사 수행기관 :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5-1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02-3488-2783)

육아정책개발센터

먼저, 이번에 출산하신 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1. 아기가 출생 후 신생아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 ① 아니오
- ② 황달, 설사 등으로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_____일)
- ③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_____일)

2.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미혼 4번 문항으로
- ② 유배우-초혼
- ③ 유배우-재혼
- ④ 사별
- ⑤ 이혼
- ⑥ 별거

3.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 초혼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4. 다음은 아기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9.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취업 중 10번 문항으로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시간제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② 학업 중 17번 문항으로

※ 휴학한 경우도 학업 중에 해당됩니다.

③ 미취업/미취학 23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10. 귀하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 ② 불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스럽다
- ⑤ 매우 만족스럽다

11.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⑤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보 기		추 가 문 항
① 출산휴가 중 ② 육아휴직 중 ③ 기타휴직 중	⇒	12. 아기가 몇 개월이 될 때 직장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생후 _____개월 ☞ 29번 문항으로 ② 복귀할 생각이 없음 ☞ 16번 문항으로
④ 출산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⑤ 새로운 직장에 취업	⇒	13. 아기가 몇 개월이 되었을 때 직장에 복귀/신규 취업하셨습니다? 생후 _____개월 14. 귀하의 평소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세요. 주당 평균 _____시간 15. 앞으로의 취업계획은 어떠하십니까? ①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임 ☞ 29번 문항으로 ② 이직할 계획임 ☞ 16번 문항으로 ③ 일을 그만둘 계획임 ☞ 16번 문항으로 ④ 기타 _____ ☞ 29번 문항으로

12.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 ④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⑥ 가족이 원해서
- ⑦ 기타 _____

☞ 29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학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13. 현재 학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문항에 답해주시요.

① 재학 중	⇨	<p>16. 아기가 몇 개월이 될 때 학업에 복귀하셨습니다? 생후 _____개월</p> <p>17. 귀하는 평소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십니까? 주당 평균 시간을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시요. 주당 평균 _____시간 ☞ 29번 문항으로</p>
② 휴학 중	⇨	<p>18. 언제 휴학하셨습니다? ① 임신 전에 ② 임신 중 (임신 _____개월) ③ 출산 후 (생후 _____개월)</p> <p>19. 해당 아동이 몇 개월이 될 때 학업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학업에 복귀하지 않을 생각임 ☞ 22번 문항으로 ② 생후 _____개월 ☞ 29번 문항으로</p>

14. 휴학 또는 학업을 그만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③ 학업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⑤ 가족이 원해서
- ⑥ 기타 _____

☞ 29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미취업 또는 미취학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15. 언제 일 또는 학업을 그만두셨습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④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시시오.

보 기	추 가 문 항
① 결혼 후 지금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	☞ 28번 문항으로
② 임신 전에 그만 됨	20.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임신을 하기 위하여 ② 임신 이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 28번 문항으로
③ 임신 중에 그만 됨	21. 언제 일 또는 학업을 그만두셨습니까? 임신 _____개월 22.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③ 출산 후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④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⑤ 출산 후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⑦ 태교 등 출산준비를 위하여 ⑧ 기타 _____ ☞ 28번 문항으로
④ 출산 후에 그만 됨	23.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④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⑦ 기타 _____ ☞ 28번 문항으로

16. 앞으로의 취업 또는 취학 관련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① 계획이 전혀 없음
- ②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③ 6개월~1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④ 1년~2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⑤ 2년~3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⑥ 3년~5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⑦ 기타 _____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24. 귀하의 남편(동거자)은 평소 근무시간 또는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십니까?
주당 평균 시간을 출퇴근 혹은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시시오.

주당 평균 _____ 시간

25. 다음은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상 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26.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해당없음

**다음은 육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식구의 도움 없이 어머니께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27.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어머니가 직장과 병행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고 탄력적인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것 (예: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 2) 어머니를 대신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예: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고 비싸지 않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귀하께서는 이 둘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및 확대
- ②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 ③ 두 가지 모두

**다음은 이번에 출산하신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28. 낮 시간 동안 아기를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어머니 ☞ 53번 문항으로
- ② 아버지 ☞ 53번 문항으로
- ③ 부모 외의 대리양육자 ☞ 33-1번 문항으로

※ 대리양육자는 부모보다 아기를 가장 많은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조부모, 친인척, 유급·무급 도우미, 보육시설의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33-1.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기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일을 하기 위하여
- ② 공부를 하기 위하여
- ③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기를 돌보는 일이 몸에 무리가 되어서
- ④ 개인시간을 갖기 위하여
- ⑤ 대리양육자가 돌보는 것이 아기에게 더 좋은 것 같아서
- ⑥ 기타 _____

33-2. 현재 이용하는 개인 대리양육자 또는 대리양육기관이 처음입니까?

- ① 예 ☞ 34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33-2-1번 문항으로

33-2-1. 현재 아기를 돌보는 분 또는 기관이 처음이 아닌 경우, 가장 처음으로 아기를 돌보았던 대리양육자는 누구였습니까?

- ① 친할머니
- ② 친할아버지
- ③ 외할머니
- ④ 외할아버지
- ⑤ 기타 친인척 (아동과의 관계: _____)
- ⑥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육아 도우미
- ⑦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 ⑧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
- ⑨ 기타 _____

33-2-2. 가장 처음으로 대리양육자 또는 보육시설 이용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생후 _____주

29. 낮 시간 동안 아기를 주로 돌보는 대리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① 조부모, 친척, 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자 ☞ 34-1번 문항으로
- ②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 이용 ☞ 34-2번 문항으로
- ③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모두 ☞ 34-3번 문항으로

34-1.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에 아기를 보내지 않고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②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 ③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④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 ⑤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하여서
- ⑦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 ⑧ 주변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 ⑨ 기타 _____

☞ 35번 문항으로

34-2.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지 않고 보육시설에서 아기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 대리양육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 ② 개인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개인 대리양육자를 믿을 수 없어서
- ④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 ⑤ 아이에게 보육시설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⑥ 남들이 다 보내니까
- ⑦ 기타 _____

☞ 43번 문항으로

34-3.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모두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동안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 ② 개인 대리양육자의 장시간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
- ④ 보육시설에 데리고 다닐 사람이 없어서
- ⑤ 아이가 개인 대리양육자와 하루 종일 있기 심심해해서
- ⑥ 개인 대리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 ⑦ 기타 _____

☞ 35번 문항으로

다음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친인척을 포함한 대리양육자가 아기를 돌보는 가구(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가구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30. 부모를 대신하여 낮 시간 동안 아기를 주로 대리 양육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 ① 친할머니 ☞ 37번 문항으로 ② 친할아버지 ☞ 37번 문항으로
- ③ 외할머니 ☞ 37번 문항으로 ④ 외할아버지 ☞ 37번 문항으로
- ⑤ 기타 친인척 (아동과의 관계: _____) ☞ 37번 문항으로
- ⑥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육아 도우미
- ⑦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 ⑧ 기타 _____

31. 이분은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되었습니까?

- ① 평소 알던 사람임
- ② 주변의 소개로
- ③ 온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구인구직 사이트, 정보공유 커뮤니티 등)
- ④ 오프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지역신문, 아파트 전단지 등)
- ⑤ 업체, 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로
- ⑥ 기타 _____

※ 온라인상으로 업체를 검색한 후 해당업체를 이용한 경우는 ③번이 아니라 ⑤번에 해당됩니다.

32. 이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아지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 ③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 ④ 아기를 이분 집에 낮 시간동안 맡기고 있음
- ⑤ 기타 _____

37-1. 이분에게 아기를 맡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생후 _____주

33. 평상시 이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기를 돌보십니까? 함께 살면서 대리양육자가 전적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는 아침에 아기가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를 응답해주시시오.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부터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 까지

34. 현재 이분은 아기를 일주일에 보통 며칠 동안 돌봐줍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③ 일주일 내내
- ④ 일주일에 며칠만 (_____일)

35.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아기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40-1번 문항으로
- ②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40-1번 문항으로
- ③ 현물로 지불 40-2번 문항으로
- ④ 숙식만 제공 41번 문항으로
- ⑤ 지불 안함 41번 문항으로
- ⑥ 기타 _____

40-1.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아기를 돌보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지난 출산 이후 지불한 금액의 월평균을 내 주십시오.
(아이 양육과 관계없이 대리양육가구가 귀택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또는 용돈은 제외)
월평균 _____만원

☞ 41번 문항으로

40-2.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아기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금액의 월평균을 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36. 지금 아기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비교적 불만족
- ③ 보통
- ④ 비교적 만족
- ⑤ 매우 만족

37. 지금 아기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특성	보기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이상 ⑥ 잘 모름
3)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잘 모름
4) 국적	① 한국인 ② 조선족 ③ 기타 외국인 (국가: _____)
5) 자녀 양육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③ 잘 모름

※ 문 34에 ①에 답한 경우(조부모, 친척, 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자)는 53번 문항으로
③에 답한 경우(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모두)는 43번 문항으로

다음은 아기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가구도 응답해 주십시오.

38. 아기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이름과 주소는?

보육시설 이름 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39. 아기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은?

※ 설립유형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공란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 | | |
|-------|--------|
| ① 국공립 | ② 법인 |
| ③ 민간 | ④ 직장 |
| ⑤ 가정 | ⑥ 부모협동 |
| ⑦ 모름 | |

40. 아기가 다니는 기관이 위치한 주변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 | |
|----------|------------|
| ① 일반주택지역 | ② 일반아파트지역 |
| ③ 상가지역 | ④ 공장(단)지역 |
| ⑤ 농·어가지역 | ⑥ 기타 _____ |

43-1. 이 기관에 아기를 맡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생후 _____주 이후

41.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에 아기가 매일 갑니까?

- | | |
|------------------|----------------------|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 ③ 일주일 내내 | ④ 일주일에 며칠만 (_____일) |

42. 평상시에 아기는 보육시설을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옵니까?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부터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 까지

43.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등원 _____분, 하원 _____분

44. 현재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만원

다음은 귀 가구의 소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49. 지난 12개월간 귀댁의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소비성 지출에는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기타 잡비 등이 포함됩니다.

월평균 _____ 만원

50. 소비성 지출 중 아기의 출산 후 아기를 위해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51. 지난 12개월간 귀댁의 비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비소비성 지출에는 각종 세금,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보장성 보험 및 귀댁으로부터의 사적이전(타 가구를 위한 생활비) 등을 뜻합니다.

월평균 _____ 만원

52. 월평균 비소비성 지출 중 아기의 출산 후 아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에 답한 후 각 보기에 따른 해당 문항으로 이동하여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53. 귀하(대상 아동의 어머니)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양력 음력)

54. 귀하는 평소에 가족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① 예 6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59-1번 문항으로

59-1.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지역(해외 포함)에 근무 중

② 타지역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③ 학업관계

④ 군복무

⑤ 장기입원, 요양 중

⑥ 별거

⑦ 가출

⑧ 기타 _____

55. 귀하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시시오.
- ※ (9번 문항과는 달리)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 ※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일을 하고 있음 61번 문항으로
- ② 학교에 다님(휴학생 포함) 62번 문항으로
- ③ 전업주부임(집안일, 가사) 63번 문항으로
- ④ 무직임 63번 문항으로
- ⑤ 기타 _____ 63번 문항으로

56.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예) 직업의 종류: 은행원 직위: 지점 차장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 내에서의 직위: _____

61-1.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기타 _____

61-2.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_____시간 63번 문항으로

57.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_ 년
- ④ 전문대 _____ 학년 ⑤ 대학교 _____ 학기 ⑥ 대학원 석사 _____ 학기
- ⑦ 대학원 박사 _____ 학기

58.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기능대학) ⑥ 대학교
-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에 답한 후 각 보기에 따른 해당 문항으로 이동하여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59. 배우자(대상 아동의 아버지)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양력 음력)

60. 이분은 평소에 가족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 ① 예 66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65-1번 문항으로

65-1.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타지역(해외 포함)에 근무 중 ② 타지역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③ 학업관계 ④ 군복무
 ⑤ 장기입원, 요양 중 ⑥ 별거
 ⑦ 가출 ⑧ 기타 _____

61. 이분은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시십시오.
 ※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 ① 일을 하고 있음 67번 문항으로 ② 학교에 다님(휴학생 포함) 68번 문항으로
 ③ 전업주부임(집안일, 가사) 69번 문항으로 ④ 무직임 69번 문항으로
 ⑤ 기타 _____ 69번 문항으로

62. 이분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 예) 직업의 종류: 은행원 직위: 지점 차장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 내에서의 직위: _____

67-1.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기타 _____

67. 대상 아기는 귀택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73-1번 문항으로

② 취업, 건강 등의 이유로 다른 집(조부모 등 친인척의 가구)에서 살고 있다 ☞ 73-2번 문항으로

68. 다음은 가구원, 즉 식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비가구원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기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나.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가. 입주 도우미, 운전자 등의 비혈연 고용인 나. 하숙생 등의 비혈연 동거자 다.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73-1. 위의 기준에 따라 귀택에서 대상 아기를 제외한 가구원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 조사 완료

73-2. 위의 기준에 따라 귀택이 아닌, 대상 아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아기를 제외한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 조사 완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연구보고 2009-12

한국아동패널 2009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50-9 93330